청년층의 창업 이행에 대한 연구
- Youth panel을 이용한 미시적 접근 -

2022. 10.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다산경제연구원)

제 출 문

중소기업연구원 원장 귀하

본 연구결과를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과제
「창업으로의 이행에 관한 연구 - 미시적 접근을 중심으로 -」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2. 10.

제출기관: 다산경제연구원

요 약

연구 목적

□ 한국은 경제성장기에 성장 및 고용이 동시에 이루어져 오다 2005년 이후 저성장 기조와 맞물려 고용없는 성장 체제를 보임(고용유발계수 10억원당 15명 이내로 하락)

○ 이러한 기조하에서 창업은 ① 개인적으로 제한된 노동시장에서 직업 세계로의 원활한 이행을 지원하고, ② 사회적으로는 경제활동수준 및 고용상태 변동을 야기시킴으로써 국가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③ 청년 실업 문제를 완화시킴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를 근원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음

□ 하지만 기존에는 누가 창업을 하는지(창업 결정요인), 누가 창업상태를 유지하는지(창업 후 유지 영향요인)에 대한 데이터 기반 연구가 부족

□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패널 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어떠한 집단(성, 연령, 학력, 세대, 노동시장 경험 등) 특성이 창업 및 창업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고자 함

○ 추가로 과거의 특정 시점(분석대상기간 설정)과 비교 가능한 최근 시점 간의 차이를 분석하여 효율적 창업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함

정부의 창업 지원 정책

□ 정부의 창업 관련 지원 정책은 중앙부처의 사업만 약 22개가 나열될 정도로 다양하게 있음

○ 이렇게 다양한 사업이 존재하지만 일부 창업지원 사업의 경우 대국민 홍보 부

족과 낮은 사업비 단가로 인해 사업 활성화와 창업팀의 경쟁력 제고에 제약요인으로 작용 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음

○ 또한 패키지 사업을 제외하고는 창업 이후 사후 관리에 대한 지원은 없거나 소극적인 활동(정부창업지원사업 안내, 교육정보 등 프로그램 안내) 지원에만 그치고 있어 관리에 대한 한계를 보이고 있음

[표] 정부의 창업 지원 정책 요약

	창업 지원 정책	주관부처	주요대상	'22예산(백만원)	비고
1	사회적기업 진흥원 운영	고용부	일반	31,889	창업전반
2	기상산업 활성화	기상청	기상기업	1,000	
3	농식품 벤처창업 및 벤처육성	농림부	농식품분야	24,334	
4	관광사업 창업지원 및 벤처육성 (관광벤처기업 발굴 및 지원)	문체부	관광분야	10,914	
5	문화중심도시육성(문화콘텐츠 제작 및 마케팅지원)	문체부	애니,웹툰,영화 등	4,850	
6	섬유패션산업활성화기반마련	산업부	봉제업	450	
7	창업사업화 지원	중기부	일반	432,842	창업전반
8	중소기업 재기지원(재도전 성공패키지)	중기부	재창업자	16,838	실패경험자
9	벤처기업 경쟁력 강화(여성벤처 활성화)	중기부	여성	800	
10	혁신창업사업화자금(일자리 창출촉진)	중기부	창업7년미만	1,090,000	융자
11	혁신창업사업화자금(청년전용창업자금)	중기부	청년,3년미만	210,000	융자
12	창업성공패키지	중기부	청년,3년미만	98,015	
13	재도약지원자금(재창업자금)	중기부	재창업자	100,000	융자
14	소상공인 창업지원(생활혁신형 창업지원사업)	중기부	일반	315	
15	여성기업육성(여성창업지원)	중기부	여성	4,956	
16	지식재산산업 창업 촉진(IP디딤돌 프로그램)	특허청	일반	3,214	
17	수산산업 창업투자 지원(지역별 창업투자지원센터)	해수부	해양수산분야	5,250	
18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 및 기업투자 유치지원	해수부	해양수산분야	2,560	
19	창업인프라지원(창업보육센터지원)	중기부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11,954	
20	소상공인재기지원(희망리턴패키지)	중기부	재창업자	31,725	

	창업 지원 정책	주관 부처	주요대상	'22예산 (백만원)	비고
21	창업생태계기반구축(중장년기술창업센터)	중기부	창업지원센터	4,608	
22	대학창업활성화	교육부	대학창업기업	10,000	펀드운영

□ 이에 몇 가지 개선점을 제시하면,

○ 첫째, 정부의 창업지원 정책들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여 참여율을 높이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창업 상담이나 지원 정책 안내 등의 창구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으며, 해당 창구를 통해 타 창업지원 프로그램 연계 등의 시너지 효과를 구축할 수 있음

○ 둘째, 창업 관련 지원 정책들을 패키지 형태로 통합할 필요 있음

- 현재 부처별 또는 동일 부처 내에서도 유사한 형태의 지원 대상만 다른 사업들이 존재하고 있음
- 이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원 대상만 차이가 있는 유사 사업들은 통합할 필요가 있으며, 전문성이나 특수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타 지원 사업(인프라지원, 융자지원) 등과의 연계를 통해 후속적인 지원이 필요함

○ 셋째, 창업지원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할 필요 있음

- 정부의 창업 지원에 대한 일부 사업들을 보면, 창업 단계까지만 지원이 있고 사후지원 프로그램은 없거나 소극적인 단계에서의 활동에 국한된 사업들이 있음
- 창업에 대한 초기 생존률이 낮은 만큼 이를 인큐베이팅하여 중장기 생존률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이에 단순 창업 지원 차원의 프로그램 들은 패키지 형태(예비창업, 창업단계, 사후지원(인프라, 융자, 수출, 기술개발 등))로 전환하여 지속적인 사후관리 체제로 개편한 필요 있음

최근 창업 청년층 특성

□ 본 장에서는 청년패널(Youth Panel; YP) 자료를 활용하여 최근 청년층의 창업 실태를 살펴보고 있음

□ (창업자의 인적특성) 최근 창업자의 인적 특성을 요약하면

○ (성별) 취업자 남성비율 52.6% vs. 창업자 남성비율 59.4%

○ (연령대) 취업자 25-29세 30.4% vs. 창업자 35-40세 40.6%

○ (학력) 취업자 대졸 52.3% vs. 창업자 대졸 41.7%

○ 즉, 전체 취업자에 대비해 보아도 남성의 창업 비중이 여성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연령대는 35세 이상의 비중이 높고, 학력은 취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는 다음과 같은 특성으로 정리해 볼 수 있음

- 첫째, 남성의 창업 비중은 여성에 비해 높은데, 이는 창업이론 가운데 기업가정신 이론 등이 투사된 결과라 판단되며, 이러한 동향은 최근 시점으로 올수록 감소했을 것으로 예상됨
- 둘째,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school to work)시 창업보다는 일반 취업자의 비중이 높으며, 창업의 경우도 '학교 - 임금근로자 - 창업'의 매카니즘 비중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셋째, 최근 청년층의 창업은 고학력 경력자의 기술창업보다는 저학력의 생계형 창업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유추할 수 있음
- 현재 세부적인 분석 결과의 인용이 보다 필요하지만 창업자의 기본 학력 특성으로만 판단했을 때는 저자본, 저기술의 생계형 창업 가능성이 높음
- 생계형 창업은 단기 폐업, 저임금 저고용 및 고용 증대의 한계 등으로 창업의 질적 저하를 야기 시킨다는 점에서 기술창업과는 근원적으로 차별성을 가짐

□ (창업자의 창업특성) 최근 창업자의 창업 특성을 요약하면

○ (창업동기) ‘좋아하는 업종이어서’ 32.5% > ‘일하는 시간이 자유로운 편이어서’가 18.1% > ‘적당한 임금근로 일자리를 발견할 수 없어서’가 11.5%

- 청년층의 최근 일자리에 대한 인식 변화가 반영된 결과라 판단되나 일자리 미스매치에 의한 비자발적 창업의 비중도 상당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창업관련 정보획득 경로) ‘친구 또는 지인의 지원을 받음’ 37.1% > ‘혼자서’ 35.1% > 부모(가족, 친지 등)의 지원을 받음 17.2%

- 즉, 대부분의 창업 초기 정보 획득의 경로는 인적 네트워크 또는 개인 스스로의 역량을 통해 사업설계 및 창업 전반에 걸친 정보를 취득하고 있음

- 반면, ‘공공창업 교육센터에서 창업 교육을 받는다’는 응답은 2.4%로 앞서 검토했던 정부의 창업 지원 정책의 규모를 고려했을 때 실제 이를 활용하는 비중은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창업과정에서의 어려움) 청년 창업자들의 경우 자금확보(2.99) > 기술확보(2.83) > 행정절차(2.81)의 어려움을 보임

- 어려움을 호소한 비중 : 자금확보 26.5%, 기술확보 17.5%, 인력확보 13.7%, 행정절차 12.8%, 업종선정 12.8% 등

- 인력 확보에 대한 어려움의 경우엔 2.78점, 13.7% 정도로 다른 요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고용인이 없는 자영업의 비중이 높다고 추론됨

○ (창업소재지, 산업, 직업) 서울과 경기, 인천 등의 수도권이 50% 이상

- (산업) 도매 및 소매업 27.8% > 숙박 및 음식점업 14.4% > 교육 서비스업 13.3%

- (직업) 영업, 판매, 운전, 운송직 35.3% > 미용, 여행, 숙박, 음식, 경비, 청소직 16.1% > 경영, 사무, 금융, 보험직 12.8% > 교육, 법률, 사회복지, 경찰, 소방직 및 군인 11.9%

- 기술창업보다는 생계형 창업의 비중이 높다는 특성을 보임

청년 창업 결정 요인 변화

□ 청년층의 창업 특성 변화는 기초 통계에서 확인한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임

○ (연령) 우선 공통된 특성으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창업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에 있음

- 이는 청년 창업의 경우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school to work)시 학교에서 창업으로 바로 연결되기 보다는 '학교 - 임금근로자 - 창업'의 매카니즘 구성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이는 과거나 최근 모두에서 나타나고 있는 결과임

○ (학력) 과거에는 고졸 이하의 창업 비중이 유의하게 높아 생계형 창업 가능성이 높게 나타난 반면 최근에는 학력이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나고 있음

- 이러한 결과는 두 가지 가능성을 의미하고 있는데, 첫째는 창업이 학력과 무관하게 나타나는 것 즉, 기술창업의 비중이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져 생계형 창업 비중을 상쇄시켰을 가능성이 있고, 둘째는 학력의 인적 프리미엄이 작용하지 않고 생계형 창업만이 증가했을 가능성이 있음

- 앞선 3장에서 분석한 최근 청년 창업 분석 동향 결과와 종합적으로 판단해보면, 고학력자들의 창업 비중이 늘어 생계형 창업 보다는 기술 창업의 가능성이 높아지기는 했지만, 전체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여전히 생계형 창업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두 번째 가설이 보다 타당하다고 판단됨

[표] 청년층 창업 결정요인(요약)

	전체	과거	최근
연령	많음	많음	많음
학력	고졸이하	고졸이하	-
혼인여부	기혼	미혼	기혼
부모직업	부모 자영업	부모 자영업	-
직장이동횟수	-	많음	많음
가구소득	-	저소득	-
거주지역	-	-	광역시

○ (혼인여부) 과거('07-09) 시점의 경우 미혼일수록 창업하는 비중이 높게나타났으나 최근('16-18)에는 기혼의 창업 가능성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창업 연령 증가와 연계되어 나타난 결과라고 판단되고, 최근의 창업 연령이 과거에 비해 높아지고 있는 결과가 반영되었다고 판단됨

○ (부모직업) 부모가 자영업일수록 과거에는 창업을 하는 비중이 유의적으로 높았으나 최근에는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를 보임

- 이는 과거에는 부모의 직업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현재에 비해 높았으나 이러한 성향이 최근에 올수록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으며, 부모의 영향 보다는 본인의 직업관이나 자유 의지가 창업을 하는데 보다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직장이동횟수) 전체 분석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과거 시점에서의 분석이나 최근 시점에서의 분석에서는 직장이동횟수가 많을수록 창업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청년층의 경우 다른 연령대의 직업이동과 다르게 직장이동은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과정에서 안정기로 수렴하는 과정에 가까움

- 직장이동횟수가 높다는 것은 안정기로 수렴하지 못하는 불안정 취업 형태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중노동시장 구조하에서 2차 노동시장에 머물다 창업으로 이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음

- 이 경우 1차 노동시장에서의 안정적 경력형성 과정을 통한 기술 창업 보다는 생계형 창업 가능성이 높으며 과거나 최근 모두 생계형 창업 비중이 상당수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음

○ (가구 소득) 과거의 경우 저소득 계층에서의 창업 가능성이 높았던 반면 최근의 경우엔 가구의 소득의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가구 소득인 낮은 계층의 창업은 상대적으로 생계형 창업 가능성이 높은 것을 감안한다면, 최근에는 이러한 경향은 약해지고 있는 추세로 보임

- 다만, 생계형 창업 과정을 기술 창업 등의 유익한 창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창업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정부의 자금 지원 등의 창업 환경이 원

활할 수 있는 창업 생태계 조성이 필요함

○ (거주지역) 서울에 비해 인천, 광주, 대전 등의 창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서울이나 읍면부에 비해 창업을 위한 종합적인 생태계(창업비용, 인프라, 지자체 지원, 창업 자원 접근성 등)가 중간 형태인 광역시에서 최적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지역별 산업 생태계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청년 창업 사업장 지속 결정요인 변화

□ 창업 유지에 대한 시간 비교를 위해 생존분석 방법인 K-M curve를 활용하여 살펴봄

○ 과거 시점(2007-2009) 50% 생존률 : 약 34개월

○ 최근 시점(2017-2019) 50% 생존률 : 약 43개월

□ 창업 유지 기간에 대한 분석은 생존분석 방법인 Cox Reg.를 이용함

○ (개인특성) 창업 결정요인 분석에 있어선 개인들의 특성이 유의하게 작용하였으나 창업 유지 분석에서는 개인 특성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즉, 창업을 하기 까지의 과정에서는 창업 관련 이론 등이 유의미하게 작용하여 개인의 특성들이 영향을 미치나 창업 이후의 생존은 개인적 특성 보다는 사업 특성이 보다 큰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표] 청년층 창업 생존요인(요약)

	전체	과거	최근
성	-	-	여성
연령	-	-	-
학력	-	-	-
직장이동횟수	-	-	-
가구소득	-	-	-

	전체	과거	최근
사업장소재지	서울 외 지역	서울 외 지역	서울 외 지역
규모	5인 이상	5인 이상	5인 이상
산업	-	-	서비스산업

○ (사업특성) 서울 지역에서의 창업 보다는 그 외 지역에서의 창업에서 생존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특히, 과거의 경우 수도권 인근의 생존률이 서울에 비해 높았으나 최근에는 수도권 외곽에서의 생존률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이 또한 앞선 창업 결정요인과 마찬가지로 창업 생태계(창업비용, 인프라, 지자체 지원, 창업 자원 접근성 등)에 따른 영향으로 판단되며 향후 지역별 연구를 통해 밝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규모) 5인 이상 창업 사업장의 생존률이 5인 미만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는 앞서도 언급하였던 기술창업과 생계형 창업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보이며, 일정 정도의 규모의 경제를 통해 기업의 생존이 유지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또한 5인 미만 기업의 생존률을 높이기 위해 창업 지원 뿐 아니라 사후 관리에도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정책 제언

□ 정부의 창업 지원 정책에 대한 제언

○ 첫째, 정부의 창업 지원 정책들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여 참여율을 높이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둘째, 창업 관련 지원 정책들을 패키지 형태로 통합할 필요 있음

○ 셋째, 창업 지원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할 필요 있음

□ 청년층 창업 특성 분석 결과에 따른 정책 제언

○ 첫째, 최근 창업 청년층의 매카니즘을 보면 '학교 - 취업 - 창업'의 매카니즘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으로 창업 취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 둘째, 생계형 창업 중심에서 기술 창업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 지원 필요

○ 셋째, 정부의 창업 지원 정책 접근성이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성공모델 제시 필요

차 례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 목적 3

3. 연구 구성 4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창업지원 정책 5

1. 창업에 관한 정의 및 선행연구 5

1) 창업의 개념 5

2) 창업 관련 주요 이론 7

3) 창업 결정 요인에 대한 연구 10

2. 우리나라 창업 지원 정책 14

1) 창업 관련 주요 정책 14

2) 창업 관련 정책에 대한 개선점 16

제3장. 최근 창업 청년층 특성 분석 18

1. 분석 자료 18

2. 최근 창업 청년층의 특성 19

1) 창업자의 인적 특성 19

2) 창업 전반 특성 22

3. 소결 30

제4장. 청년층의 창업 특성 변화 33

1. 분석 자료 33
2. 분석 방법 33
   1) 로짓분석 35
   2) 생존분석 36
3. 분석 결과 38
   1) 청년층 창업 결정요인 변화 38
   2) 청년층 창업 사업장 지속 결정요인 변화 55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66

참고문헌 74

부록 80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 한국은 2011년 이후로 2-3%대 저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조응하여 2005년 이후부터는 소위 고용 없는 성장의 양상을 보임

○ 즉, 임금 근로 일자리는 제한적으로 증가해왔으며, 이는 청년 고용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그림 1-1] 우리나라 경제성장율 및 고용유발 계수

주: 각 연도별 수치는 명목GRDP를 의미함
출처 : 통계청, 『지역소득』

□ 또한 이러한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면서 청년 실업은 점점 증가하고 있음

○ 2000년 이후 경제성장률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청년 실업률은 전체실업률의 2배 가량을 유지하고 있음

○ 이에 한국경제는 저성장 국면, 잠재성장률 저하의 구조로 고착화되고 있으며, 서구 선진국들과 같이 실업이 단기적인 경제성장률 제고를 통한다

하더라도 바로 완화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라는 인식이 증가하고 있음

□ 이와 같은 고실업의 장기화로 인해 청년들이 부딪히는 현실은 과거 그 어느 때 보다도 체감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 청년실업과 함께 청년 저신용자 증가가 문제가 되고 있으며, 실업을 유예하고자 졸업을 미루고 단시간 근로로 내몰리고 있음

○ 또한 장기 미취업으로 인한 낙인효과(stigma effect)는 가뜩이나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보다 미취업 기간이 길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음

□ 이러한 기조하에서 창업은 ① 개인적으로 제한된 노동시장에서 직업 세계로의 원활한 이행을 지원하고, ② 사회적으로는 경제활동수준 및 고용상태 변동을 야기시킴으로써 국가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③ 청년 실업 문제를 완화시킴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를 근원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정부는 고용창출의 근간인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청년실업 신화를 타개하기 위한 대안으로 청년창업 활성화를 강화하고 있음

○ 이로 인해 청년창업가들의 열정, 창의성, 도전정신 등이 창업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글로벌 시장에서 젊고 유능한 청년창업가의 활동이 점차 증가 하고 있는 실정임

○ 창업은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조직을 창조하는 것으로 처음 생각한 사업 아이디어로부터 수많은 시행착오와 끊임없는 개선을 통해 사업기회로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창업을 계획하고 있는 예비창업자들은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개인적인 능력 및 인적, 물적 자원을 총동원하고 외부와의 관계, 외부의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최종 창업 의사결정을 내림(이승배, 2013)

□ 기존에는 누가 창업을 하는지(창업 결정요인), 누가 창업상태를 유지하는지(창업 후 유지 영향요인)에 대한 데이터 기반 연구가 부족

○ 국내 창업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거시적 분석에 치우쳐 전체적인 동향 흐름을 관조하는데 그침

○ 특히, 시점(세대) 간 창업 관련 심층적인 분석 및 비교가 부족하여 과거와 최근 시점 간 창업 특성 비교를 통하여 시대적 흐름에 따른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연구들로 제한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① 개인의 창업 관련된 자료의 부재 ② 분석 자료의 구조적 문제(예: 개인의 추적 자료 부재 및 유효표본수 확보의 문제 등) 등으로 그간 관련 연구에서 소외되어 옴

○ 하지만, 청소년, 청년, 대졸자, 고령화 등 특정 계층들을 대상으로 국가 주도의 승인 통계조사가 활발히 이루어졌고, 최근 데이터가 10년 이상 축적된 조사가 증가함에 따라 여러 주제에 대한 데이터 기반 연구 및 심층분석 연구가 가능해짐에 따라, 청년층의 창업 특성에 관해서도 심층 연구를 시도해보고자 함

2.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창업에 대하여 접근하고 있음

○ 첫째, 청년층 가운데 어떤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일반적인 임금 근로자 대신 창업을 선택하는가 살펴보고 있음

○ 둘째, 창업을 선택하는 청년층의 특성이 과거에 비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살펴보고 있음

○ 우리는 이를 통해 창업 지원 정책을 검토하고, 변화하는 창업자들의 특성에 맞게 관련 지원 정책들이 나아갈 방향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함

□ 이를 위해 연구에서는 기존의 패널 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어떠한 집단(성, 연령, 학력, 세대, 노동시장 경험 등) 특성이 창업 및 창업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고자 함

○ 추가로 과거의 특정 시점(분석대상기간 설정)과 비교 가능한 최근 시점 간의 차이를 분석하여 효율적 창업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함

○ 또한 창업 기업이나 거시적인 접근이 아닌 창업 청년을 중심으로 분석함으로써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갖고자 함

3. 연구 구성

□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음

○ 본 연구를 위해 우선 청년패널(Youth Panel; YP) 자료를 활용하여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조사 당시 창업을 했다고 응답한 경우를 “과거 초기 창업자”로 정의하고,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창업을 한 경우를 “최근 초기 창업자”로 정의하여 분석 대상을 구축하여 분석을 진행하였음

○ 분석을 위해 2장에서는 정부의 주요 창업 지원 정책 및 이론적 배경, 선행 연구 등을 검토함

○ 제3장에서는 YP 2016-2018에 해당되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최근 창업 청년층의 인적 특성 및 창업 특성을 살펴보고 있음

○ 제4장에서는 기 구축한 청년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과거 초기 창업자’와 ‘최근 초기 창업자’의 창업 결정요인 및 창업 유지 결정요인 분석을 하고 있음

○ 제5장에서는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고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창업지원 정책

1. 창업에 관한 정의 및 선행연구

1) 창업의 개념

□ 본 연구에서의 주된 창업 주체는 청년이므로 청년 창업을 중심으로 개념을 정의하고자 함

□ 청년에 대한 정의는 국가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각 나라의 사회문화적·제도적 요인에 따라 정의되고 있음

○ 특히, 연령상의 상·하한을 통한 청년의 기준은 각 나라 뿐 아니라 정책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는 차원에서 각 부처, 지자체 별로 상이함

○ 청년미취업자의 고용을 확대하고 국내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청년실업해소 및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의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04년 제정된 「청년실업해소특별법」제2조 1항에서는 청년을 "취업을 원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령에 해당하는 자" 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에서는 "대통령이 정하는 연령에 해당하는 자라 함은 15~29세" 라고 명시하고 있음(이지영, 2009).

○ 국제연합(UN)은 청년을 "15~24세 젊은이"로 정의하고 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노동과 관련된 청년의 연령을 15 ~24세로 정의하고 있음(채무국, 2004).

○ 한국의 경우 노동부, 통계청 보건복지부 등 정부기관에서는 15~29세의 연령층을 따로 분리하여 청년층으로 정의하고 있으며(김영희, 2004), 대부분의 연구에서도 15~29세 연령층을 청년층으로 정의하고, 일부 연구에서는 15~24세 연령층 혹은 15~27세 연령층을 청년층으로 정의함

○ 이처럼 한국에서 청년 연령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 국제 노동기구(ILO)에서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한 연령과 다른 이유는 군복무로 인

해 많은 청년들이 노동시장 진입이 2~3년 늦어지며, 재수 또는 대학 재학 중 휴학 등으로 노동시장 진입이 1~2년 정도 늦어지는 학생이 많아 외국에 비해 경제 활동을 시작하는 시기가 늦기 때문임(나성숙, 2005)

○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진흥원, 서울시 등의 정부기관들은 청년창업 지원 프로그램의 지원요건을 40세 미만으로 제한함으로써 청년을 40세 미만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현행법을 살펴보면 고용정책기본법 제 28조 및 동행 시행령 제21조 3항에 의하여 '신규청년실업자'를 교육기본법 제 9조에서 학교 졸업 후 또는 전문직원 훈련과정을 이수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20세 이상 40세 미만의 신규실업자로 규정하고 있음

□ 청년창업은 청년이라는 연령대와 창업이라는 노동 상태가 결합된 개념

○ 중소기업청의 연령대별 신설법인 통계에 따르면 30세 미만의 청년창업법인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전체 창업자 수에 비해서도 청년창업 법인의 수는 극히 미미한 수준인데다 전체 신설법인 수에 비해서도 청년창업 법인 수는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면 청년창업가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대변해주고 있음

○ 또한 벤처기업의 20, 30대의 CEO 비중이 2001년 전체의 56.2%를 차지한 것에 비하면 2008년 11.8%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청년창업의 상당부분이 서비스업을 비롯한 생계형 창업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음(안태욱, 2012)

○ 한국의 학생들은 높은 창업의지에 비해 전공지식과의 괴리, 도전감과 회생각오의 부족, 대학생창업지원제도의 관한 지식부족, 외적 환경의 비우호성 인식 등이 창업을 실행하는데 한계로 작용하고 있음

○ 또한 청년창업이 부진한 이유는 창업가 마인드 부족이 가장 많이 지적되고 다음으로 창업관련 지식의 부족, 도전감의 결여, 관련 지원의 미비, 사회적 인프라 부족, 부모가족의 만류 등이 이야기되고 있음(이신모, 2006).

○ 이렇듯 다양한 이유로 청년층에게 창업이 기피 또는 회피되어 왔지만, 국가 경제 악화로 인한 취업난 심화로 취업의 대안으로서 또는 참신한 아이템을 통해 미래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창업을 선택하는 비중이 늘어남

2) 창업 관련 주요 이론

(1) 기업가 정신의 지식 확산 이론(Knowledge Spillover Theory of Entrepreneurship: KSTE)

□ 창업을 지식으로부터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핵심적 활동으로 바라보는 이론으로, 국가의 혁신 성과를 높이는 중요한 결정요인으로서 기업가의 역할을 강조함(Acs et al., 2009)

○ 원초적 지식은 그 자체로 상업성을 갖지 않으며, 지식이 창업을 통해 경제적 지식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를 제품이나 서비스와 같은 상업적 지식의 형태로 변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함(정두희, 이경표, 신재호, 2019)

□ 구체적으로, 원초적 지식은 기업가에게 파급(spillover)되며, 이는 기업가의 창업 활동을 통해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지식으로 탈바꿈 될 수 있음을 의미함. 즉, 창업가는 지식과 경제적 가치 창출 사이를 연결하는 매개체 역할임을 강조함(Audretsch et al., 2004)

○ 지식의 축적은 경제 성장을 위해 필수적이지만, 기업가 정신을 통해 상업적인 기회로 연결시키지 못한다면 지식의 축적이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는데 도움을 줄 수 없음(Braunerhjelm et al., 2010)

○ 창업가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창의적인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여, 수익 창출과 고용 증가를 통한 국가적 성장을 야기하는 중요한 혁신의 주체 역할을 함

○ 즉, 창업가는 창업 활동을 통해 원초적 지식이 경제적 가치를 지닌 혁신적인 제품 및 서비스로 이어지도록 만드는 역할을 수행하는 주체임

(2) 자원기반이론(Resource Based View: RBV)

□ 자원기반이론은 기업이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갖추고 있어야 할 자원의 요건을 결정하는 이론으로, 신생기업의 시장성과 및 생존율 차이 등을 뒷받침하는 이론임(Barney, 1991)

○ 자원기반이론에 따르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유형의 핵심 자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으며, 기업이 보유한 자원의 특성은 경영 성과 향상을 야기하는 중요한 요인임

○ 기업에 경쟁우위를 가져다줄 수 있는 자원의 특성으로 '가치(valuable)', '희소성(rare)', '모방 불가성(inimitable)', '대체불가성(non-substitutability)' 네 가지를 주장(Barney, 1991)함. 특히, 지식재산과 같은 무형 자원은 네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중요 자원으로 창업기업의 경쟁우위 창출에 있어 필수적임

□ 자원기반이론은 창업기업들이 갖는 자원이 모두 이질적이며, 쉽게 이동하지 않는다는 자원 이질성과 비유동성을 기본 가정으로 하고 있음. 즉, 창업기업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자원은 기업 경쟁우위 향상에 필수적인 고유 특성임을 강조함

○ 이질성: 동일한 산업에 속한 기업들일지라도, 각 기업이 보유하는 자원은 이질적임. 즉, 기업 고유의 자원은 경쟁력 확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함

○ 비유동성: 자원은 조직 간에 이동할 수 없기에, 자원의 이질성이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음. 즉, 타 기업이 갖지 못한 우리 기업만의 자원은 경쟁우위 창출에 필수적임

□ 자원기반이론에 따르면, 창업기업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기술이나 지식재산은 그 자체가 경쟁 기업과의 차별화 원천으로 작용함

○ 경쟁 기업과 구별되는 창업기업의 고유 자원을 통해 차별화된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속적인 경쟁우위를 획득할 수 있음을 강조함

⑶ 기업가 정신 이론

□ 창업 자체가 지역 및 국가 경제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아이디어 및 혁신에 기반한 생산적 기업가 정신의 비중이 중요하다는 것을 주장하는 이론. 최근에는 창업가가 가져야 할 중요한 조건 중 하나로 기업가 정신이 강조되고 있음(강경란, 박철우, 2021)

□ 기업가 정신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위험 감수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기회를 포착하고, 진취적으로 도전함으로써 혁신과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역량으로 정의됨(Miller, 1983).

○ 즉, 기업이 가지고 있는 한정된 자원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회 창출을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며, 혁신과 진취적인 과정을 통해 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도모하는 종합적인 역량을 의미함

□ 창업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창업가의 기업가 정신은 혁신성, 위험감수성, 그리고 진취성으로 구성됨(Miller, 1983)

○ 혁신성(Innovativeness): 시장 지향적 아이디어를 기회로 전환시키는 과정이자 새로운 기회와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 노력을 의미. 즉, '창업가의 대담하고 광범위한 행동으로 기업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욕구'로 표현할 수 있음. 제품 디자인, 광고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활동이 이에 해당됨

○ 위험감수성(Risk taking): '불확실한 결과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도전하려는 의지'를 의미함. 급변하는 환경을 선호하며, 모험적이고 도전적인 창업가의 성향을 나타냄

○ 진취성(Proactiveness): '개인이 주어진 것 이상으로 일하고, 적극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의미함. 시장에 새로운 제품과 기술을 도입하려는 적극적인 태세로, 경쟁사와의 관계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시장의 수요에 부합하는 경영 활동을 취하는 성향

3) 창업 결정 요인에 대한 연구

□ 창업 결정 요인에 대한 국내·외 실증 연구들은, 성공적인 창업을 위한 선행 요인에 주목하였음. 구체적으로, 창업기업의 성과 및 질적 성장성을 높이기 위한 조건들을 분석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음

□ 창업이 얼마나 활발하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은 창업의지가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결정되며 이는 개인특성차원의 요인과 환경차원 그리고 인구 통계적 특성의 영향으로 파악됨

○ 임아름(2015)의 연구를 보면 창업 영향 요인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음

○ 개인의 창업의사결정과 행동이 창업의지, 즉 창업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선행되어야 하고(윤방섭, 2004), 의지는 미래 목표행동에 대한 전념을 나타내며 그런 행동의 실행여부를 가장 정확하게 예측하고 설명하는 변수

○ 행동의지는 목표 행동에 대한 태도, 사회적 규범, 그리고 지각된 행동통제력의 세 가지 핵심적 태도 요소의 영향을 받아 의사결정자의 주의를 목표행동에로 집중시키며 결과적으로 그 사람의 행동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변수로 여겨지고 있음

○ 따라서 창업의지는 창업과 관련된 행동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중요한 변수로서 창업에 대한 행위 의도적 태도를 의미하며 개인적 특질과 자기유능성 인식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음

○ 창업 활동에 관련한 연구들에 있어서도 창업가 개인의 독특한 성격특성과 능력에 초점을 맞추는 접근법이 대부분을 차지함

○ 창업과정에 영향을 주는 개인적 특질로는 개인의 위험선호 성향, 통제의 위치, 성취욕구, 자율욕구, 경력지향성 등이 대표적인 것이다. 이러한 창업가의 개인적 특성은 창업뿐만 아니라 생존 및 성장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이러한 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후속연구들도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음

○ 반면 환경적 요인으로는 정부정책, 사회경제적 조건, 창업 및 경영기술,

재무적 지원, 비재무적 지원, 사회적 인식 등의 요인들이 지적되고 있음(이신문, 2005).

○ 인구 통계적 특성의 차이에 따라 창업의 정도가 달라진다는 결과를 보여주는 다양한 연구들도 있는데 흔히 인구 통계적 변수들은 성별, 교육수준, 재산상태 등을 들 수 있음(윤종록, 2003)

○ 한편, 미국의 Babson대학과 영국의 London Business School은 공동으로 주요 각국의 창업가적 활동의 정도와 내역을 상호간에 비교분석 하는 국제 창업가 활동조사(GEM: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를 1999년 이래 매년 실시하여 총 창업활동지수(TEA: Total Entrepreneurial Activity)를 조사 발표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창업활동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경제활동이 경제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국내 환경적 배경의 창업활동에 대한 영향, 창업활동을 활성화시키는 요인 등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여러 국가 간에 창업가활동의 실태를 비교분석하고 있음

○ GEM은 기본적으로 사회문화적 환경이 창업가적 체계여건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나아가 창업가적 활동기회와 창업가적 활동능력에 작용하여 기업생성의 정도를 결정케 하며 궁극적으로 새로운 기업의 활발한 생성이 국가의 경제성장에 영향을 주게 된다는 개념모델을 바탕으로 전개되고 있음

□ 이승혜 등(2021)의 연구를 보면 창업 결정요인을 크게 지원정책, 산업환경, 창업가 개인특성으로 구분하고 있음

□ 창업과 관련된 이들의 연구 특성들을 보면

○ 창업가의 개인적인 특성이나 환경적인 요소 보다는 기업가적 특성 등의 심리학적 배경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

○ 우리의 연구와 유사한 연구들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송진화(2021)는 청년층 중에서도 특정 분야(문화예술산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개인적 특성과 해당 분야 창업지원프로그램이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이러한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이 매개 역할을 하는지 실증 분석함

- 분석 결과, 개인의 혁신성과 위험감수성이 창업 의지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들 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이 매개변수로서 유의미한 정(+)의 영향력이 밝혀짐

○ 김장호 & 금용필(2020)은 창업 교육을 이수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창업 의지 영향요인을 살펴보고, 창업 의지와 창업 행동 간 관계를 실증하는 연구를 수행

- 연구 결과, 혁신성, 문제 해결능력, 창업 분야의 전문성이 창업 교육을 이수한 대학생의 창업 의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또한 이들의 창업 의지는 창업 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다만, 본 연구에서도 실제 창업 여부와 같은 행동 자체를 종속변수로 한 것이 아니라 '미래 창업 계획 수립', '새로운 사업을 구상 중' 등 창업을 위한 구체적 행동을 설문화하여 조사한 후 이를 활용함

○ 홍효석 & 설병문(2013)의 연구에서는 대학 및 대학원생의 창업교육과 창업 동아리 경험이 창업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

- 연구 대상은 창업 교육과 창업동아리 경험을 기준으로 구분한 경남 지역의 대학생과 대학원생이며, 연구 결과 창업교육과 창업동아리 경험이 있는 집단의 창업 계획수립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높았고, 이 두 요인이 실제 창업 계획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침

○ 김승환 & 양동우(2020)는 개인의 환경적 요소, 부모 특성 등이 대학 재학생의 창업의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국가 차원의 창업 정책에 대한 사회안전망 인식이 이러한 관계를 조절하는지 실증함

- 분석 결과, 가계 재정에 대한 인지도 보다는 만족도가 창업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부모 특성 중에서는 부모의 창업 경험이 대학 청년층의 창업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오세호 & 남정민(2020)은 진로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거나 창업이 활성화된 비교대상 6개 국가(중국, 인도네시아, 영국, 독일, 이스라엘, 미국)와 우리나라 청년층의 직업선택 및 창업과정에서의 영향요인에 관해 분석하였

으며, 분석 결과 창업교육, 창업의지, 직업만족도, 부모 영향도 등이 창업의지 영향요인으로 나타남

[표 1-1] 창업 연구별 결정요인 요약

연구자(년도)	결정요인 변수
Baum et al.(2001)	환경 역동성, 풍부성, 복잡성
Dohse & Schertler(2003)	연구개발인력, 특허권, 인적자본, 벤처캐피탈
Guerini & Rossi-Lamastra (2014)	지식 유형(대학교 지식과 산업 지식 유형)
Zhou et al.(2016)	산업구조, 인구, 면적, 퇴출기업의 특성, 지역특성요인
강경란, 박철우(2021)	기업가정신, 디지털 역량
김예정(2019)	창업 의지
김형철 외.(2008)	창업가의 성취욕구, 시장경쟁 강도, 제품 산업성장률
박철우(2018)	개인 특성, 창업동아리 활동
안태욱 외.(2020)	창업자 특성
왕서혜 & 박상수(2020)	기업가적 개인 특성, 기업가적 실천역량, 창업에 대한 태도
이미경 & 김정인(2020)	창업보육센터 지원 서비스
이민재 & 정진섭(2021)	개방형 혁신
정두희 외.(2019)	특허기반 창업 여부, 특허기반 창업 강도
정상철 & 김영진(2017)	창업가정신
최승호 외.(2016)	대학 창업교육프로그램

주 : 지역별 창업 특성 및 성과에 대한 연구(이승혜 외, 2021), 인용

□ 우리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이들의 개인적 특성, 기업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실증 분석함

2 우리나라 창업 지원 정책

1) 창업 관련 주요 정책

□ 정부는 창업 활성화 및 창업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발굴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이러한 정부의 창업 지원 정책은 지원 대상이나 필요성 등에 따라 일부 개편되는 방식으로 지속되어 옴

○ 2022년 운영 사업 기준으로 창업과 관련된 정부 지원 사업은 약 22개로 나타나며, 이는 교육 및 컨설팅, 인프라 지원, 융자 사업 등으로 구분됨

○ 본 창업 지원 정책들은 중앙부처를 중심으로 파악한 것으로 각 지자체나 민간 부문의 지원 내용 등을 포함하지 않고, 해당 사업 내에서도 창업 지원 외에 다른 용도로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이 있다는 점은 고려해야 함

○ 이 가운데 대표적인 창업 지원 정책 사업은 중소기업벤처부의 창업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이 있음

- 창업사업화지원 프로그램은 창업기업의 성장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창업 활성화 및 생존률을 제고하기 위한 지원 사업으로 '21년 전체 참여자는 4,300여명 가량으로 파악되고 있음

- 해당 사업은 예비 창업, 초기 창업, 창업 도약의 단계별로 지속적인 지원이 있다는 특성을 갖고 있으며, 특히 청년, 여성, 사회적기업 등 취약 계층의 창업 사업화를 지원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이와 더불어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주요 정책을 보면, 중소기업벤처부의 창업성공패키지, 혁신창업사업화자금(청년전용창업자금), 교육부의 대학창업활성화 등이 해당될 수 있으며, 이 가운데 창업성공패키지 사업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 청년창업사관학교 및 글로벌창업사관학교라는 이름으로 창업준비, 창업실행, 창업성장(정책자금 지원, 수출 및 마케팅 지원) 등의 전반적인 패키지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 ’21년 기준 약 1,044명이 참여했으며, 고용보험 상 창업 사업장은 914개로 87.5% 가량 창업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그 외 유사 사업이나 융자, 인프라 지원, 펀드 투자 형태의 사업 등은 <부록>을 참조

[표 1-2] 정부의 창업 지원 정책 요약

	창업 지원 정책	주관부처	주요대상	‘22예산(백만원)	비고
1	사회적기업 진흥원 운영	고용부	일반	31,889	창업전반
2	기상산업 활성화	기상청	기상기업	1,000	
3	농식품 벤처창업 및 벤처육성	농림부	농식품분야	24,334	
4	관광사업 창업지원 및 벤처육성 (관광벤처기업 발굴 및 지원)	문체부	관광분야	10,914	
5	문화중심도시육성 문화콘텐츠 제작 및 마케팅지원)	문체부	애니,웹툰,영화 등	4,850	
6	섬유패션산업활성화기반마련	산업부	봉제업	450	
7	창업사업화 지원	중기부	일반	432,842	창업전반
8	중소기업 재기지원(재도전 성공패키지)	중기부	재창업자	16,838	실패경험자
9	벤처기업 경쟁력 강화(여성벤처 활성화)	중기부	여성	800	
10	혁신창업사업화자금(일자리 창출촉진)	중기부	창업7년미만	1,090,000	융자
11	혁신창업사업화자금(청년전용창업자금)	중기부	청년,3년미만	210,000	융자
12	창업성공패키지	중기부	청년,3년미만	98,015	
13	재도약지원자금(재창업자금)	중기부	재창업자	100,000	융자
14	소상공인 창업지원(생활혁신형 창업지원사업)	중기부	일반	315	
15	여성기업육성(여성창업지원)	중기부	여성	4,956	
16	지식재산산업 창업 촉진(IP디딤돌 프로그램)	특허청	일반	3,214	
17	수산산업 창업투자 지원(지역별 창업투자지원센터)	해수부	해양수산분야	5,250	
18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 및 기업투자 유치지원	해수부	해양수산분야	2,560	
19	창업인프라지원(창업보육센터지원)	중기부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11,954	
20	소상공인재기지원(희망리턴패키지)	중기부	재창업자	31,725	
21	창업생태계기반구축(중장년기술창업센터)	중기부	창업지원센터	4,608	
22	대학창업활성화	교육부	대학창업기업	10,000	펀드운영

2) 창업 관련 정책에 대한 개선점

□ 정부의 창업 관련 지원 정책은 중앙부처의 사업만 약 22개가 나열될 정도로 다양하게 있음

○ 이렇게 다양한 사업이 존재하지만 일부 창업지원 사업의 경우 대국민 홍보 부족과 낮은 사업비 단가로 인해 사업 활성화와 창업팀의 경쟁력 제고에 제약요인으로 작용 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음

○ 또한 패키지 사업을 제외하고는 창업 이후 사후 관리에 대한 지원은 없거나 소극적인 활동(정부창업지원사업 안내, 교육정보 등 프로그램 안내) 지원에만 그치고 있어 관리에 대한 한계를 보이고 있음

□ 이에 몇 가지 개선점을 제시하면,

○ 첫째, 정부의 창업지원 정책들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여 참여율을 높이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창업 상담이나 지원 정책 안내 등의 창구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으며, 해당 창구를 통해 타 창업지원 프로그램 연계 등의 시너지 효과를 구축할 수 있음

○ 둘째, 창업 관련 지원 정책들을 패키지 형태로 통합할 필요 있음

- 현재 부처별 또는 동일 부처 내에서도 유사한 형태의 지원 대상만 다른 사업들이 존재하고 있음

- 이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원 대상만 차이가 있는 유사 사업들은 통합할 필요가 있으며, 전문성이나 특수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타 지원 사업(인프라지원, 융자지원) 등과의 연계를 통해 후속적인 지원이 필요함

○ 셋째, 창업지원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할 필요 있음

- 정부의 창업 지원에 대한 일부 사업들을 보면, 창업 단계까지만 지원이 있고 사후지원 프로그램은 없거나 소극적인 단계에서의 활동에 국한된

사업들이 있음

- 창업에 대한 초기 생존률이 낮은 만큼 이를 인큐베이팅하여 중장기 생존률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이에 단순 창업 지원 차원의 프로그램 들은 패키지 형태(예비창업, 창업단계, 사후지원(인프라, 융자, 수출, 기술개발 등))로 전환하여 지속적인 사후관리 체제로 개편한 필요 있음

제3장. 최근 창업 청년층 특성 분석

1. 분석 자료

□ 본 장에서는 청년패널(Youth Panel; YP) 자료를 활용하여 최근 청년층의 창업 실태를 살펴보고자 함

○ YP는 최근 지속되고 있는 실업 등 다양한 청년 관련 문제[1]의 원인 파악과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자료 확보를 위하여 2000년대 초 국가 승인 통계조사 자료로 설계되었으며, 이후 현재까지 조사가 이어지면서 10년 이상의 자료가 누적됨

○ YP 조사는 청년층의 학교에서 노동시장 이행(school-to-work), 노동시장 진입 후 이동, 노동시장 성과 등을 살펴보기 위해 설계된 조사로 매년 동일한 대상을 추적 조사하는 패널 자료임

- 조사 항목으로는 청년층의 학교생활, 사회·경제활동, 가계 배경 등이 있으며, 2001년의 만15~29세 청년을 대상으로 1차 웨이브를 구축하여 6차년도에 걸친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이후 2007년을 기점으로 새롭게 만15~29세 청년을 대상으로 2차 웨이브를 구축하여 현재까지 조사가 진행되고 있음

- 본 장에서는 가장 최근 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조사 당시 본인이 창업한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음이고 응답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이들의 특성을 살펴보았음

- 가장 최근 공개된 자료는 2020년에 조사 된 자료로 전체 표본 13,722명 중 69.5%에 해당하는 9,539명이 조사에 참여하였고 이 중 취업자는 6,169명(64.7%)로 나타남

---

1) 한국고용정보원은 고용조사분석시스템(survey.keis.or.kr)을 통하여 해당 기관에서 조사하는 자료들을 공개하고 있으며, 해당 사이트의 YP 소개에 따르면, 청년실업과 같은 청년층의 노동시장 문제는 지금까지 지속된 경기 위축과 경력을 중시하는 형태로의 노동시장 변화, 교육-노동시장 간 괴리로 인한 인력수급의 양적·질적 불일치 등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뿐만 아니라 수요·공급자 간의 정보 교류의 미활성화 등 많은 복합적 요인들에 의해 발생하며, 이러한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차원에서 극복할 수 없는 부분이므로 정부 차원의 다양한 정책 시도를 통한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일차적 방법으로 본 조사를 통한 실태 파악에 있음을 밝히고 있음

- 전체 취업자 중 조사 당시 종사상지위가 자영업자(고용원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모두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가 전체 취업자의 8.5%(526명)로 나타남

- 다만, 현재 자영업자라고 해도 본인이 직접 해당 사업장을 창업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종사상지위가 '자영업자'라고 응답한 사람 중 해당 사업장의 설립 연도와 해당 사업장 근무 시기가 동일한 경우만을 창업자로 정의하였고, 따라서 총 453명이 창업자로 분류되었음

2 최근 창업 청년층의 특성

1) 창업자의 인적 특성

□ 본 장에서는 가장 최근 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조사 당시 본인이 창업한 사업장에서 일한다고 응답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이들의 특성을 살펴봄

○ (성별) 먼저 창업자 이외의 취업자 집단에서는 성별의 경우 남성이 52.6%로 여성에 비해 5.1%p 높았으나, 창업자의 경우 남성이 59.4%로 여성의 비율에 비해 18.8%p가 더 높게 나타나 창업자 중 남성의 비율이 높은 편

- (연령) 연령대별로는 일반 취업자의 경우 25세 이상 29세 미만의 비율이 30.4%로 가장 높고, 30세 이상 35세 미만, 35세 이상 40세 미만의 경우 각각 25.1%, 25.9%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반면 창업자의 경우 35세 이상 40세 미만 연령대가 40.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30세 이상 35세 미만이 24.5%, 25세 이상 29세 미만이 17.0%의 순으로 나타남

- (학력) 학력별로는 일반 취업자의 경우 대졸이 52.3%로 과반에 해당하였고, 다음으로 전문대졸 23.9%, 고졸이하 18.7%의 순으로 나타남

- 반면 창업자의 경우 대졸이 가장 많았으나(41.7%) 일반 취업자 비율에 비해 낮은 편이었고, 다음으로 고졸이하 27.4%, 전문대졸 24.6%의 순임

[표 3-1] 청년층 취업자[1] 및 창업자의 개인 속성 비교(단위: 명, %)

구분		취업자		창업자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전체		5,716	100.0	453	100.0
성	남성	3,005	52.6	269	59.4
	여성	2,711	47.4	184	40.6
연령	19세 이상 25세 미만	619	10.8	15	3.3
	25세 이상 29세 미만	1,737	30.4	77	17.0
	30세 이상 35세 미만	1,432	25.1	111	24.5
	35세 이상 40세 미만	1,483	25.9	184	40.6
	40세 이상	445	7.8	66	14.6
학력	고졸이하	1,071	18.7	124	27.4
	전문대졸	1,364	23.9	116	25.6
	대졸	2,988	52.3	189	41.7
	석사 이상	291	5.1	24	5.3

주: 취업자는 종사상지위 응답 값 중 자영업자를 제외한 경우이며, 조사 당시 자영업자 중에서도 현 직장 설립 연도와 본인의 취업 연도가 다른 경우에는 창업자가 아닌 취업자로 분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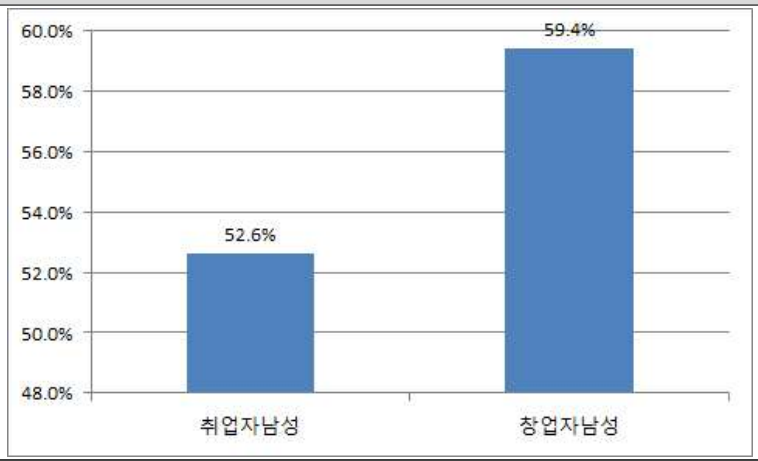
□ (창업자의 인적특성) 최근 창업자의 인적 특성을 요약하면

○ (성별) 취업자 남성비율 52.6% vs. 창업자 남성비율 5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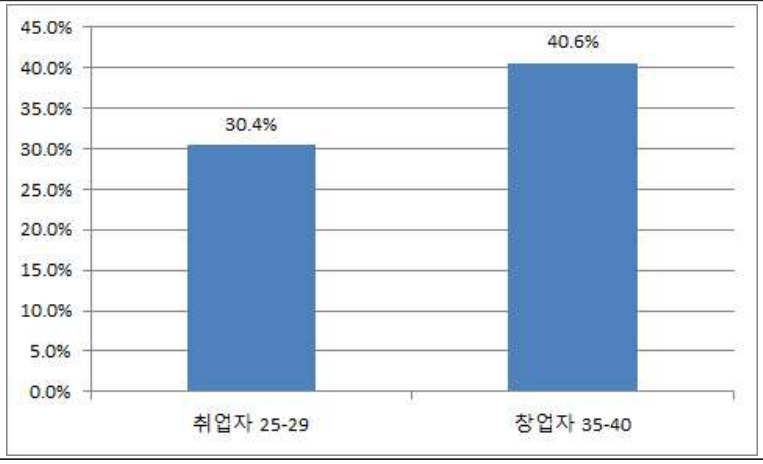
○ (연령대) 취업자 25-29세 30.4% vs. 창업자 35-40세 40.6%

○ (학력) 취업자 대졸 52.3% vs. 창업자 대졸 4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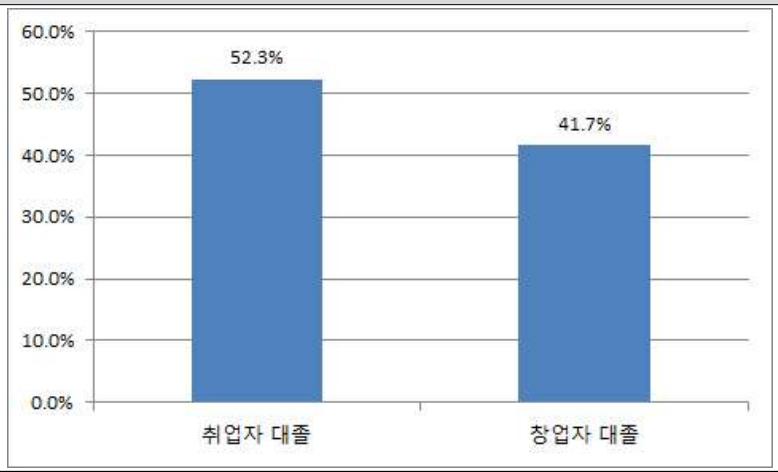
[그림 3-1] 청년층 창업자의 성별 특성



[그림 3-2] 청년층 창업자의 연령 특성



[그림 3-3] 청년층 창업자의 학력 특성



○ 즉, 전체 취업자에 대비해 보아도 남성의 창업 비중이 여성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연령대는 35세 이상의 비중이 높고, 학력은 취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는 다음과 같은 특성으로 정리해 볼 수 있음

- 첫째, 남성의 창업 비중은 여성에 비해 높은데, 이는 창업이론 가운데 기업가정신 이론 등이 투사된 결과라 판단되며, 이러한 동향은 최근 시점으로 올수록 감소했을 것으로 예상됨

- 둘째,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school to work)시 창업보다는 일반 취

업자의 비중이 높으며, 창업의 경우도 '학교 - 임금근로자 - 창업'의 매카니즘 비중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셋째, 최근 청년층의 창업은 고학력 경력자의 기술창업보다는 저학력의 생계형 창업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유추할 수 있음
- 현재 세부적인 분석 결과의 인용이 보다 필요하지만 창업자의 기본 학력 특성으로만 판단했을 때는 저자본, 저기술의 생계형 창업 가능성이 높음
- 생계형 창업은 단기 폐업, 저임금 저고용 및 고용 증대의 한계 등으로 창업의 질적 저하를 야기 시킨다는 점에서 기술창업과는 근원적으로 차별성을 가짐

2) 창업 전반 특성

(1) 창업 동기

□ 다음으로는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창업 동기, 창업 정보 획득 경로, 창업 시 애로사항 등에 대해 살펴봄

□ 먼저 현재 창업 사업장을 운영 중인 청년층의 주된 창업 동기를 살펴보면,

○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좋아하는 업종이어서'가 32.5%를 차지하였고, '일하는 시간이 자유로운 편이어서'가 18.1%, '적당한 임금근로 일자리를 발견할 수 없어서'가 11.5% 등을 차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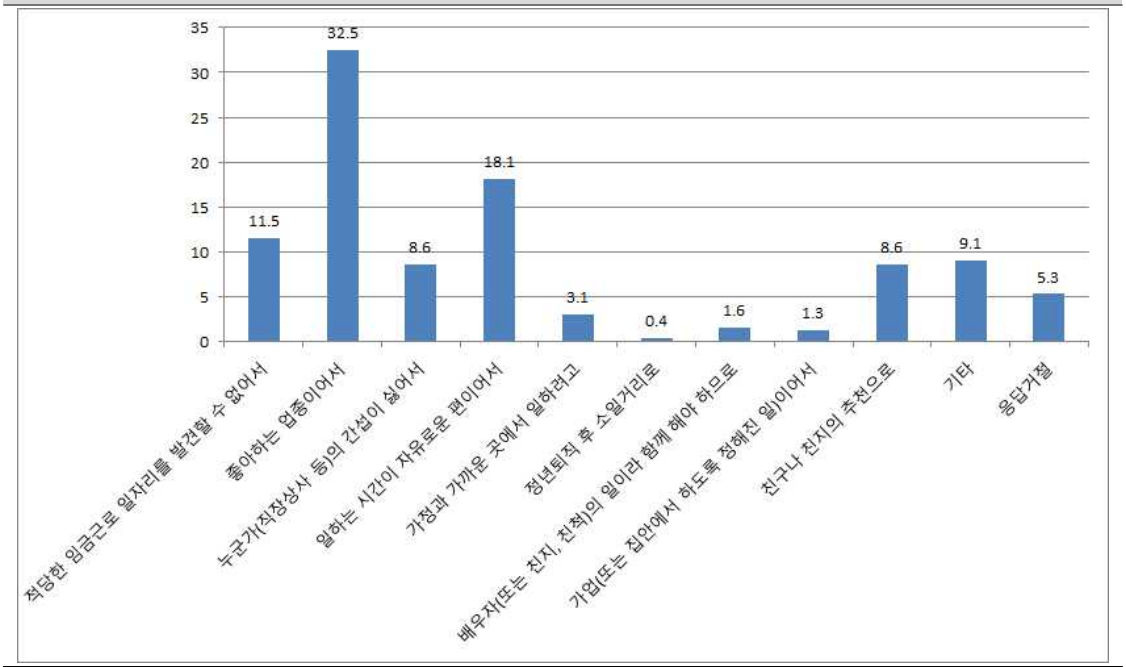
- 청년층의 일에 대한 인식 변화로 나타난 결과로 판단되며, 고용의 안정성이나 임금으로 인한 일자리 선택 기준에서 개인의 선호, 구속받지 않음 등의 세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됨
- 하지만, 적당한 임금근로 일자리를 발견할 수 없어서라는 응답의 비중이 11.5% 나타나고 있어 일자리 미스매치에 의한 비자발적 창업의 비중도

상당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음

[표 3-2] 청년층 창업자의 주된 창업 동기(단위: 명, %)

구분	인원	비율
전체	453	100.0
적당한 임금근로 일자리를 발견할 수 없어서	52	11.5
좋아하는 업종이어서	147	32.5
누군가(직장상사 등)의 간섭이 싫어서	39	8.6
일하는 시간이 자유로운 편이어서	82	18.1
가정과 가까운 곳에서 일하려고	14	3.1
정년퇴직 후 소일거리로	2	0.4
배우자(또는 친지, 친척)의 일이라 함께 해야 하므로	7	1.6
가업(또는 집안에서 하도록 정해진 일)이어서	6	1.3
친구나 친지의 추천으로	39	8.6
기타	41	9.1
응답거절	24	5.3

[그림 3-4] 창업 동기



(2) 창업 관련 정보 획득 경로

□ 다음으로는 현재 창업 사업장을 운영 중인 청년층이 창업 당시 사업 설계 및 창업 관련 정보를 획득한 경로를 살펴보면,

○ 가장 많은 정보 탐색 경로는 '친구 또는 지인의 지원을 받음'이 37.1%를 차지하였고, '혼자서'라는 응답이 35.1%로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으며, 부모(가족, 친지 등)의 지원을 받음이 17.2%를 차지하고 있음

- 즉, 대부분의 창업 초기 정보 획득의 경로는 인적 네트워크 또는 개인 스스로의 역량을 통해 사업설계 및 창업 전반에 걸친 정보를 취득하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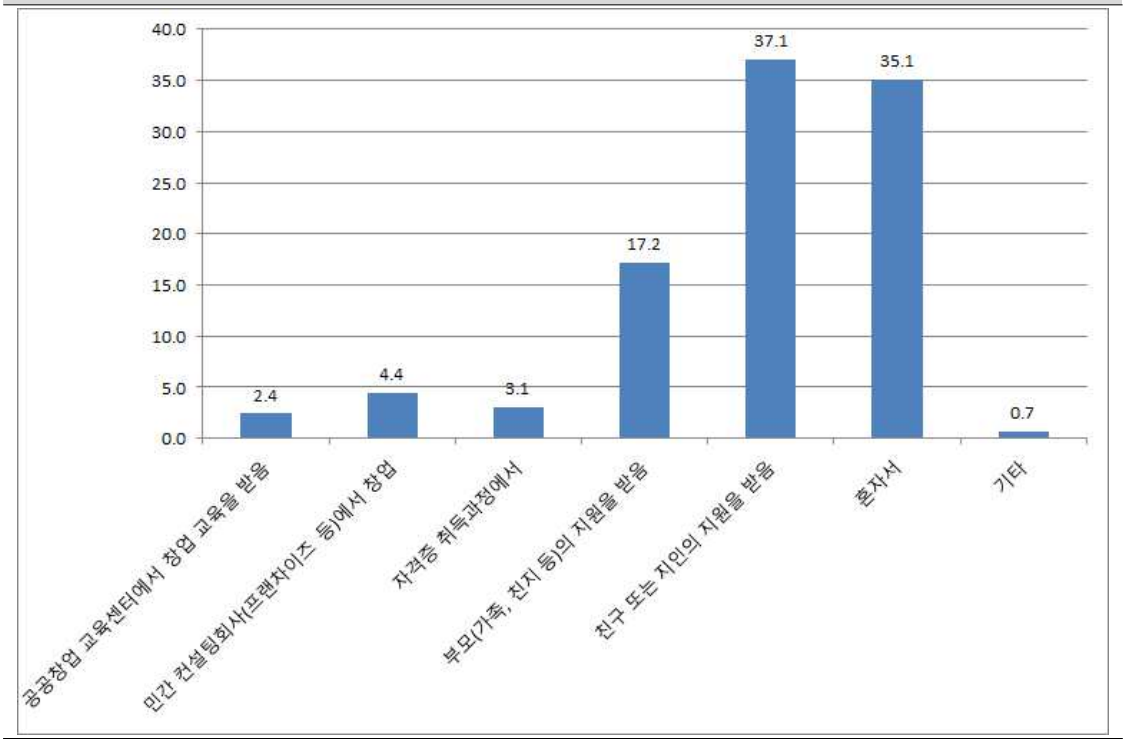
- 반면, '공공창업 교육센터에서 창업 교육을 받는다'는 응답은 2.4%로 앞서 검토했던 정부의 창업 지원 정책의 규모를 고려했을 때 실제 이를 활용하는 비중은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물론, 개인이 혼자서 정보를 획득하였다는 응답에 공공 서비스도 일부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 예상되지만 본인 외의 인적 네트워크 활용 비중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그 활용성이 크게 부족하다고 판단됨

[표 3-3] 청년층 창업자의 사업설계 및 정보 획득 경로(단위: 명, %)

구분	인원	비율
전체	453	100.0
공공창업 교육센터에서 창업 교육을 받음	11	2.4
민간 컨설팅회사(프랜차이즈 등)에서 창업	20	4.4
자격증 취득과정에서	14	3.1
부모(가족, 친지 등)의 지원을 받음	78	17.2
친구 또는 지인의 지원을 받음	168	37.1
혼자서	159	35.1
기타	3	0.7

[그림 3-5] 창업 정보 획득 경로



(3) 창업 과정에서의 어려움

□ 다음으로는 현재 창업 사업장을 운영 중인 청년층이 창업 당시 어떤 점에서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면,

[표 3-4] 청년층 창업자의 창업 당시 유형별 애로사항 정도(단위: %)

	매우 쉬움	쉬운 편	그런대로 괜찮음	어려운 편	매우 어려움
자금확보	4.9	22.5	46.1	21.6	4.9
기술확보	5.3	27.4	49.9	14.4	3.1
인력확보	6.6	26.3	53.4	10.2	3.5
행정절차	4.0	25.6	57.6	11.0	1.8
업종선정	9.1	31.1	47.0	10.4	2.4

○ 평균적으로 가장 어렵다고 응답한 항목은 자금확보 항목으로 리커트5점 척도 기준 2.99점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기술확보가 2.83점, 행정

절차가 2.81점 등의 순을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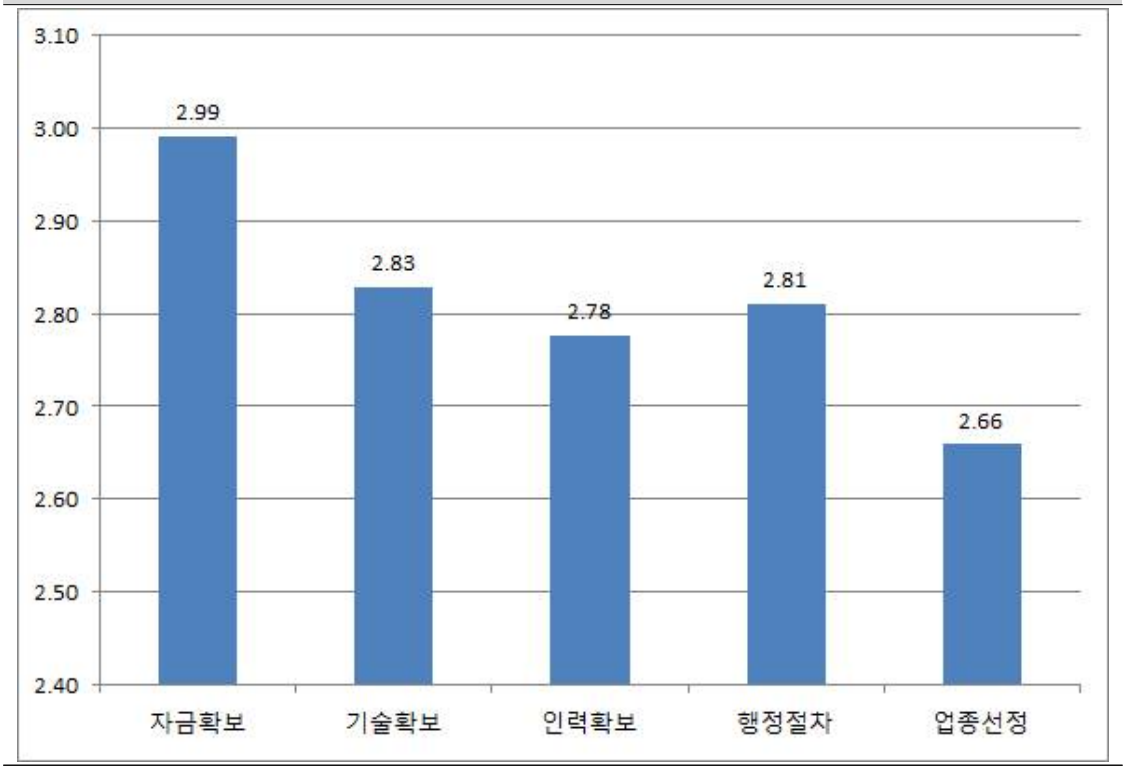
- 각 항목별로 어려움을 호소한 비중은 자금확보의 경우 26.5%, 기술확보 17.5%, 인력확보 13.7%, 행정절차 12.8%, 업종선정 12.8%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

- 즉, 최근 창업한 청년층의 경우 가장 큰 어려움은 자금확보를 들 수 있으며, 창업자 가운데 26.5% 가량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인력 확보에 대한 어려움의 경우엔 2.78점 13.7% 정도로 다른 요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고용인이 없는 자영업의 비중이 높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추론할 수 있음

○ (요약) 청년 창업자들의 경우 자금확보(2.99) > 기술확보(2.83) > 행정절차(2.81)의 어려움을 보임

[그림 3-6] 창업 당시 애로사항(단위:점, 5점척도)



(4) 창업 소재지, 산업 및 직업

□ 다음으로는 현재 창업 사업장의 소재지, 산업, 직업 등을 살펴봄

□ 먼저 청년 창업자의 창업 사업장 소재지를 살펴보면,

○ 인구 비중이 높은 서울과 경기, 인천 등의 수도권이 가장 높은 5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지역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음

[표 3-5] 청년층 창업 사업장 소재지(단위: 명, %)

구분	인원	비율
전체	453	100.0
서울	91	20.1
부산	31	6.8
대구	32	7.1
인천	44	9.7
광주	27	6.0
대전	26	5.7
울산	12	2.7
경기	97	21.4
강원	14	3.1
충북	10	2.2
충남/세종	8	1.8
전북	7	1.6
전남	19	4.2
경북	11	2.4
경남	16	3.5
제주	5	1.1
그외 지역	1	0.2
응답거절	2	0.4

□ 다음으로 청년 창업자의 창업 사업장 산업유형을 살펴보면,

○ 최근 청년창업의 경우 도매 및 소매업의 비중이 27.8%로 가장 높고, 숙박 및 음식점업이 14.4%, 교육 서비스업이 13.3%, 개인서비스업이 8.2% 등의

순을 차지하고 있음

- 해당 사업군의 세부 업종이 일반 판매점이나 온라인판매, 음식점, 학원 등이 자리한다는 점에서 최근 청년층의 창업이 기술창업 보다는 생계형 창업의 비중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음

- 이러한 개인사업자의 창업은 단명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생계형 창업이 지속적인 고용창출로 연결되는 데는 구조적인 한계가 존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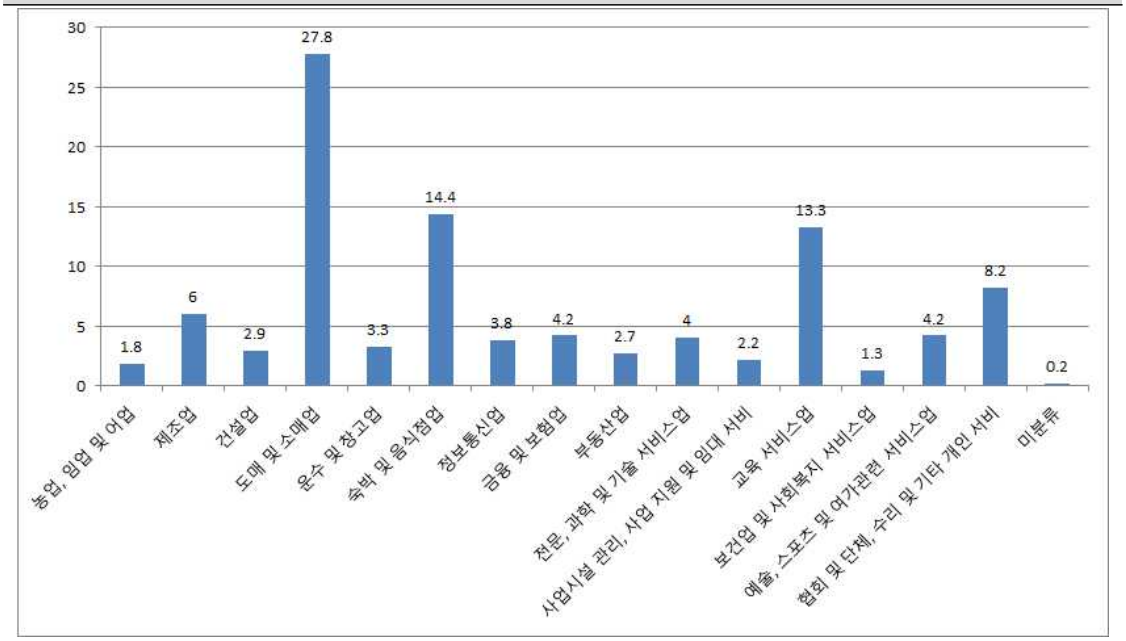
-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을 보유한 개인이나 기업이 창업하여 안정적으로 장기간 고도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고용창출 면에서는 유리하고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 하지만 현재 대략적으로 기술창업이라 구분할 수 있는 제조업이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의 경우엔 전체의 10.0%만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3-6] 청년층 창업 사업장 산업유형(단위: 명, %)

구분	인원	비율
농업, 임업 및 어업	8	1.8
제조업	27	6.0
건설업	13	2.9
도매 및 소매업	126	27.8
운수 및 창고업	15	3.3
숙박 및 음식점업	65	14.4
정보통신업	17	3.8
금융 및 보험업	19	4.2
부동산업	12	2.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8	4.0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	10	2.2
교육 서비스업	60	13.3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6	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9	4.2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	37	8.2
미분류	1	0.2

[그림 3-7] 창업 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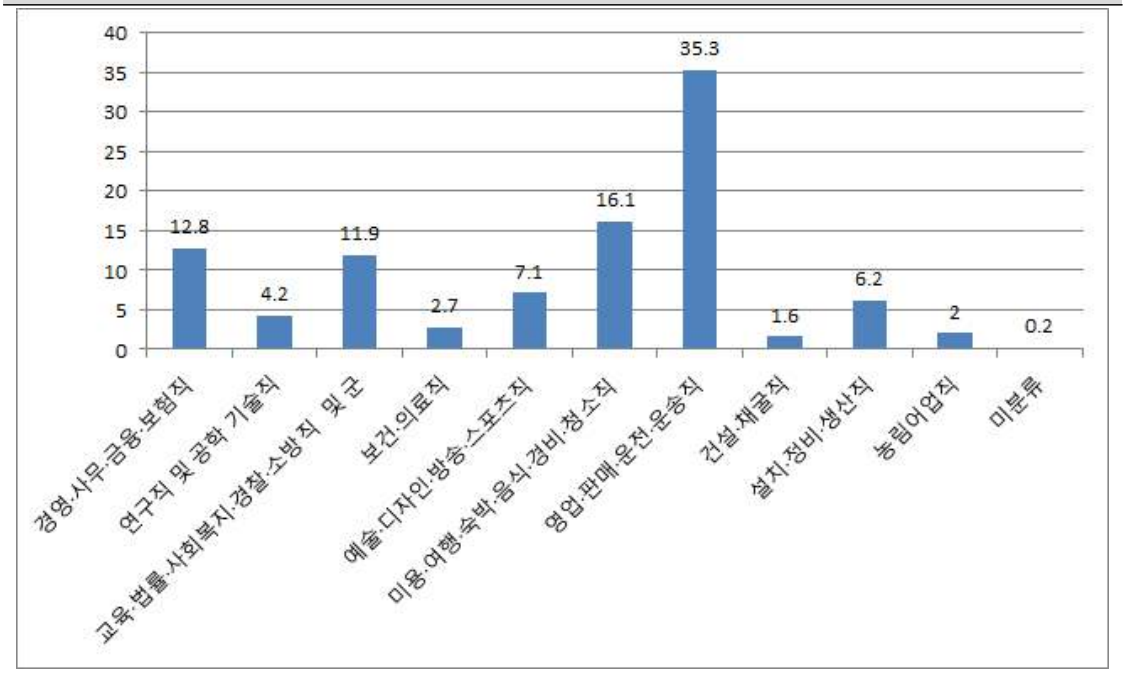
□ 다음으로 창업 청년층의 직종을 살펴보면,

○ 영업, 판매, 운전, 운송직이 전체의 35.3%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용, 여행, 숙박, 음식, 경비, 청소직이 16.1%, 경영, 사무, 금융, 보험직이 12.8%, 교육, 법률, 사회복지, 경찰, 소방직 및 군인이 11.9%의 순으로 나타남

[표 3-6] 창업 청년층 직종(단위: 명, %)

구분	인원	비율
경영·사무·금융·보험직	58	12.8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	19	4.2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	54	11.9
보건·의료직	12	2.7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32	7.1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직	73	16.1
영업·판매·운전·운송직	160	35.3
건설·채굴직	7	1.6
설치·정비·생산직	28	6.2
농림어업직	9	2.0
미분류	1	0.2

[그림 3-8] 창업 직업



○ 창업 직종 또한 창업 산업과 마찬가지로 유통업이나 미용, 음식 서비스업 등의 생계형 창업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창업을 통한 고용 창출의 연계가 한계가 있는 구조로 파악됨

3. 소결

□ 본 장에서는 청년패널(Youth Panel; YP) 자료를 활용하여 최근 청년층의 창업 실태를 살펴보고 있음

□ (창업자의 인적특성) 최근 창업자의 인적 특성을 요약하면

○ (성별) 취업자 남성비율 52.6% vs. 창업자 남성비율 59.4%

○ (연령대) 취업자 25-29세 30.4% vs. 창업자 35-40세 40.6%

○ (학력) 취업자 대졸 52.3% vs. 창업자 대졸 41.7%

○ 즉, 전체 취업자에 대비해 보아도 남성의 창업 비중이 여성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연령대는 35세 이상의 비중이 높고, 학력은 취업

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는 다음과 같은 특성으로 정리해 볼 수 있음

- 첫째, 남성의 창업 비중은 여성에 비해 높은데, 이는 창업이론 가운데 기업가정신 이론 등이 투사된 결과라 판단되며, 이러한 동향은 최근 시점으로 올수록 감소했을 것으로 예상됨

- 둘째,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school to work)시 창업보다는 일반 취업자의 비중이 높으며, 창업의 경우도 '학교 - 임금근로자 - 창업'의 매카니즘 비중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셋째, 최근 청년층의 창업은 고학력 경력자의 기술창업보다는 저학력의 생계형 창업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유추할 수 있음

- 현재 세부적인 분석 결과의 인용이 보다 필요하지만 창업자의 기본 학력 특성으로만 판단했을 때는 저자본, 저기술의 생계형 창업 가능성이 높음

- 생계형 창업은 단기 폐업, 저임금 저고용 및 고용 증대의 한계 등으로 창업의 질적 저하를 야기 시킨다는 점에서 기술창업과는 근원적으로 차별성을 가짐

□ (창업자의 창업특성) 최근 창업자의 창업 특성을 요약하면

○ (창업동기) '좋아하는 업종이어서' 32.5% > '일하는 시간이 자유로운 편이어서'가 18.1% > '적당한 임금근로 일자리를 발견할 수 없어서'가 11.5%

- 청년층의 최근 일자리에 대한 인식 변화가 반영된 결과라 판단되나 일자리 미스매치에 의한 비자발적 창업의 비중도 상당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창업관련 정보획득 경로) '친구 또는 지인의 지원을 받음' 37.1% > '혼자서' 35.1% > 부모(가족, 친지 등)의 지원을 받음 17.2%

- 즉, 대부분의 창업 초기 정보 획득의 경로는 인적 네트워크 또는 개인 스스로의 역량을 통해 사업설계 및 창업 전반에 걸친 정보를 취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공공창업 교육센터에서 창업 교육을 받는다'는 응답은 2.4%로 앞서 검토했던 정부의 창업 지원 정책의 규모를 고려했을 때 실제 이를 활용하는 비중은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창업과정에서의 어려움) 청년 창업자들의 경우 자금확보(2.99) > 기술확보(2.83) > 행정절차(2.81)의 어려움을 보임

- 어려움을 호소한 비중 : 자금확보 26.5%, 기술확보 17.5%, 인력확보 13.7%, 행정절차 12.8%, 업종선정 12.8% 등

- 인력 확보에 대한 어려움의 경우엔 2.78점, 13.7% 정도로 다른 요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고용인이 없는 자영업의 비중이 높다고 추론됨

○ (창업소재지, 산업, 직업) 서울과 경기, 인천 등의 수도권이 50% 이상

- (산업) 도매 및 소매업 27.8% > 숙박 및 음식점업 14.4% > 교육 서비스업 13.3%

- (직업) 영업, 판매, 운전, 운송직 35.3% > 미용, 여행, 숙박, 음식, 경비, 청소직 16.1% > 경영, 사무, 금융, 보험직 12.8% > 교육, 법률, 사회복지, 경찰, 소방직 및 군인 11.9%

- 기술창업보다는 생계형 창업의 비중이 높다는 특성을 보임

제4장. 청년층의 창업 특성 변화

1. 분석 자료

□ 본 장에서는 청년패널(Youth Panel; 이하 YP)[2] 자료를 활용하여 시점별·유형별 창업 영향요인, 창업 유지 영향요인 등을 분석함

○ YP는 크게 2개의 웨이브로 구성되어 있으며, 첫 번째는 2001년 예비조사를 시작으로 2006년까지 6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조사(YP2001)이고, 이후 기존 패널의 연령 증가로 인해 저연령대 청년 통계의 보완이 필요해지고, 최근 시점에서의 청년 노동시장 및 학교생활의 대표통계를 생산·제공하는 것이 필요해지면서 2007년 기준 만15~29세 청년을 새롭게 표본으로 구축한 2차 웨이브 조사(YP2007)를 진행

○ 1차 웨이브(YP2001)는 2차 웨이브(YP2007) 조사가 시작되면서 추적 조사를 멈추었고, 현재까지는 2차 웨이브(YP2007)에 대해서 계속 추적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한국고용정보원, n.d.), YP2001과 YP2007 조사 간 조사 내용에 일부 차이가 있어 본 연구에서는 최근까지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2차 웨이브(YP2007)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실증 분석을 실시

□ 본 연구에서는 분석을 위한 충분한 표본 확보[3]를 위하여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조사 당시 창업을 했다고 응답한 경우를 “과거 초기 창업자”로 정의하고,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창업을 한 경우를 “최근 초기 창업자”로 정의하여 분석대상을 구축

○ 분석대상의 직업력 자료에는 각 개인별로 특정 시점에 2개 이상의 일자리

---

2) 청년패널조사는 청년층의 학교생활, 사회·경제활동, 가계배경 등을 반영하는 기초 자료를 수집하여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고용정책의 수립 및 관련 연구지원을 위하여 수행되고 있으며, 2001년의 만 15~29세 청년을 대상으로 1차 웨이브를 구축하여 6차년도에 걸친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이후 2007년을 기점으로 새롭게 만15~29세 청년을 대상으로 2차 웨이브를 구축하여 현재까지 조사가 진행됨

3) YP는 2007년에 10,206명의 청년층을 원표본으로 구축한 대규모 패널 조사에 해당하지만, 중고등학생, 대학생, 취업자, 미취업자 등 다양한 유형의 집단이 조사 대상에 포함되어 본 연구와 같이 “청년층 초기 창업자”와 같은 조건을 기준으로 분석 대상을 구축할 경우 분석에 포함될 수 있는 표본수가 현저히 감소하여 본 연구에서는 과거와 최근 초기 창업자 표본을 구축하기 위하여 3개년 자료를 pooling하여 활용함

가 동시에 관찰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된 일자리만을 분석에 포함하기 위하여 동시 일자리의 경우 응답자가 주된 일자리라고 응답한 일자리를 우선순위로 하여 중복된 일자리를 제거

□ 청년층의 창업 영향요인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창업자와 대비되는 일반 취업자 데이터를 추가로 구축해야 함

○ 이 때 일반 취업자는 창업자와 동일하게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취업자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취업자 중 상용직으로 취업한 경우를 분석 대상으로 구축함

□ 분석 대상 연령층은 18세에서 34세로 한정함

○ 청년패널조사는 1차년도에 구축 된 조사 표본에 대하여 매년 추적 조사를 실시하여 패널의 연령이 증가

○ 1차년도 조사 구축 당시 구축된 표본의 연령층이 만 14~34세로 과거 자료의 경우 해당 연령층만 존재하는 반면, 최근에는 40대 연령층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되어, 과거와 최근 청년층 비교를 위해서는 연령 제한이 필요

2. 분석 방법

□ 본 장에서의 분석은 크게 두 파트로 구성됨

○ 먼저, 과거(2007~2009)의 청년층과 최근(2016~2018) 청년층 간에 창업 영향요인에 변화가 있었는지를 살펴봄

- 이 때 창업 전 개인특성 정보(성, 연령, 학력, 거주지역 등)와 노동시장 정보(경력)를 활용하여 청년창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변화를 비교 분석

○ 다음으로 과거와 최근에 창업한 청년층 간에 창업 후 창업 사업장을 유지하는 영향요인의 변화가 있었는지를 살펴봄

1) 로짓 분석

□ 본 연구에서는 과거(2007~2009)와 최근(2016~2018) 청년층 간에 창업 영향요인에 변화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로짓분석을 실시함

○ 종속변수에 대한 설명 변수의 영향력을 볼 때 보통 회귀모형을 활용하며, 선형회귀모형에서 종속변수는 연속적인 척도로 측정한 양적 변수를 활용

○ 그러나, 본 연구에서의 창업 여부는 어떤 사건이 발생한 경우를 1로 하고,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0으로 하는 이산형 변수이므로, 종속변수가 범주형 변수일 때 활용하는 로짓 모형(logit model)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로짓 모형은 선형확률모형이 설명 변수의 값에 따라 확률이 0보다 작아지거나 1보다 큰 경우가 발생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특정한 함수 형태를 가정(우석진, 2013)

○ 로짓 모형의 기본식은 1-1과 같이 표현할 수 있고, G(μ)에 대한 가정이 1-2와 같이 로지스틱 함수(logistic function)인 경우가 로짓 모형에 해당

$$\Pr(y=1|x) = G(x'b) \qquad 0 < G(u) < 1 \qquad (1-1)$$

$$G(u) = \frac{\exp(u)}{(1-\exp(u))} = \frac{1}{1+\exp(-u)} \qquad (1-2)$$

○ 로짓 모형 추정을 통해 계수(coefficient)값이 도출되면, 이 계수 값 자체가 선택 확률에 미치는 한계효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4] 확률에 미치는 한계효과를 추정하기 위하여 확률의 부분 변화(partial change in probability), 확률의 이산변화(discrete change in probability), 승비(odds ratios) 등의 방법을 활용(성웅현, 2001)

4) 성웅현(2001)에 따르면, 선형회귀함수에서 회귀계수는 다른 독립변수들의 수준을 일정하게 통제하였을 때 설명변수가 한 단위 증가함에 따라 어떤 사건이 발생될 확률변화로 해석할 수 있지만, 로지스틱반응함수의 경우 회귀계수에 대하여 비선형이기 때문에 선형회귀함수와 같은 해석을 할 수 없음

2) 생존 분석

□ 과거(2007~2009)의 청년층과 최근(2016~2018) 청년층 간에 창업 후 창업 사업장 유지 영향요인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생존분석을 실시함

○ 특정 상태의 지속 기간(duration)과 설명 변수 혹은 외생적인 정책변수 간의 관계를 추정할 때 생존분석 방법을 주로 활용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특정 상태(창업 사업장 유지)의 지속 기간이 설명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생존분석 방법을 활용

○ 선형회귀모형을 활용할 경우, 쉽고 직관적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지속기간의 분포는 정규분포가 아닌 지수분포(exponential distribution)를 따르며, 지속기간 최빈점은 1개가 아니라 2개 이상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아 정규분포는 전형적인 지속기간 분포의 설명에 제한적(우석진, 2013)

○ 또한 지속 기간은 양수이지만, 정규분포는 음(-)일 확률이 존재하고, 자료의 우측절단(right censoring) 발생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서 자료의 우측절단이란 지속 기간이 연구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건에 의해 끝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관측 기간이 종료되어 지속 기간이 단절되는 것을 의미

- 예를 들면 본 연구에서 청년층의 창업 후 사업장 유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는데, 이들의 창업 후 상태에 대한 자료가 충분한 기간동안 확보되지 않으므로(현재 창업 후 2년 이내의 조사자료만 확보) 조사시점까지 폐업이 발생하지 않고, 그 이후 폐업한 경우 폐업이라는 사건이 관측 기간에 의해 관찰되지 않아 이러한 경우 우측 절단이 존재

- 관측치의 우측 절단이 발생할 경우 사건 발생 가능성이 과소 추정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며, 이러한 한계를 생존분석 방법으로 보완

○ 보통 생존 함수(survivor function)를 통해 특정 시점에 살아있을 비조건부 확률, 즉 특정 시점에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을 확률을 분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실제 분석에서는 생존 함수보다 일대일 관계에 있는 위험률 함수(harzard function)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짐(우석진, 2013)

- 위험률 함수는 t시점까지 사건이 발생되지 않았을 때 그 다음 짧은 기간 동안 사건이 발생할 확률로 정의되며, 위험률 함수의 일반적인 형태는 2-1과 같고, 특히 식 2-2와 같은 비례위험함수(proportional hazard model, PH) 형태가 자주 사용됨(우석진, 2013)

$$h_i(t) = g(h_0(t), \beta_0 + x_i\beta_1 \qquad (2-1)$$

$$h_i(t) = h_0(t)\exp(\beta_0 + x_i\beta_1) \qquad (2-2)$$

○ 생존분석 방법은 사건이 발생하는 시간의 측정 방식에 따라서 연속시간(continuous) 생존 분석과 비연속시간(discrete) 생존 분석으로 구분

- 본 연구에서 창업 사업장 이탈(폐업 등)을 산출하기 위해 사용한 정보인 창업 시점과 이탈 시점은 월 단위 응답값으로 관찰단위가 연속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우선영, 2018), 연속시간 생존분석 방법 중 Cox의 비례위험모형(Cox proportional hazard model)[5]을 이용하여 청년층 창업 시점별 사업 종료 발생 확률의 변화와 창업 사업장 유지 기간 변화를 살펴봄

- 생존 분석에서 중요한 변수는 관측이 시작된 시점(time 0), 관측이 종료된 시점(time 1), 그리고 관측이 끝난 이유가 지속 기간의 완료(failure)인지 혹은 관측 기간이 끝났기 때문인지이며(우석진, 2016), STATA를 활용한 Cox 비례위험모형 분석 시 해당 변수들을 명확히 지정해주는 것이 중요

- 본 연구에서는 관측 시작 시점을 청년층이 창업한 시점으로 하고, 관측종료 시점은 사업장을 폐업(그만 둔)한 시점 혹은 관측 기간이 끝난 시점[6]으로 하였으며, 관측이 종료된 시점까지 창업 사업장의 폐업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모두 '0'으로 코딩하여 이벤트 발생 여부(failure)를 지정

5) Cox의 비례위험모형은 비례위험률 모형 중 베이스라인의 위험률에 대한 가정 없이 추정하는 반모수적 추정 방법에 해당함

6) GOMS는 대학 졸업 후 1년 6개월에서 2년이 지난 시점, 그러니까 익년 혹은 익익년 8월을 조사 기준일로 설정하여 조사하므로, 창업 후 폐업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측이 끝난 시점을 조사기준일인 매 조사년 8월로 설정. 예를 들면, 2008GOMS의 경우 2007년 8월 졸업자와 2008년 2월 졸업자를 대상으로 2009년 8월 이후에 조사를 실시하며, 조사기준일은 2008년 8월이므로 조사기준일까지 사업장을 유지한 경우 관측 종료 시점은 2008년 8월이고, 이벤트는 미발생(0)으로 기록됨

3. 분석 결과

1) 청년층 창업 결정요인 변화

(1) 기초통계

□ 먼저 과거(2007~2009)의 청년층과 최근(2016~2018) 청년층 간에 창업 영향요인에 변화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구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과거와 최근 청년층 간 개인 특성별 차이가 있는지 살펴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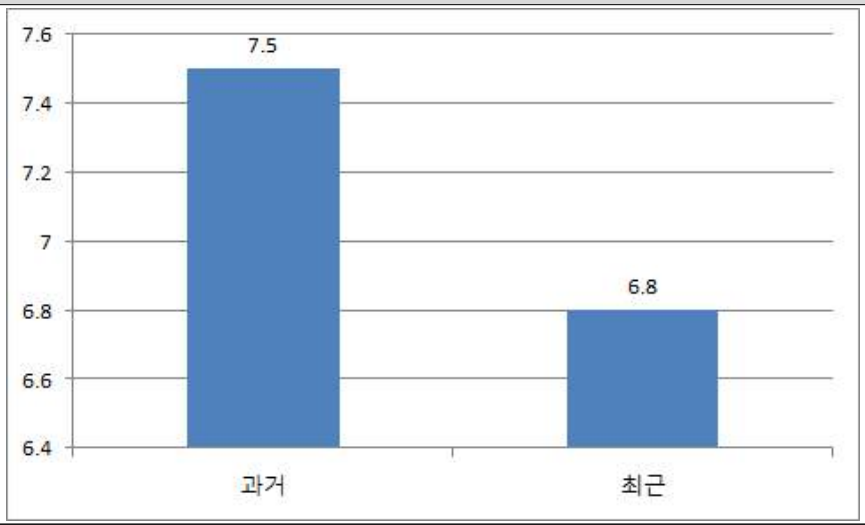
○ 먼저 과거와 최근 청년층의 일반 취업 및 창업률을 살펴보면, 과거에 비해 최근의 창업자 비율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구체적으로는 과거 전체 일을 하고 있는 청년층 중 창업한 비율은 7.5%였으나 최근에는 6.8%로 약 0.7%p 감소

[표 4-1] 과거와 현재 청년층 취업 및 창업률(단위: 명, %)

	일반 취업자		창업자	
	인원	비율	인원	비율
과거	1,669	92.5	136	7.5
최근	2,314	93.2	169	6.8

[그림 4-1] 청년층 창업 비중



○ 이를 성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과거와 최근 성별 일반 취업자 및 창업자 비율이 달라진 것으로 나타남

- 즉 과거에는 일반 취업자 중 남성이 45.4%, 여성이 54.6%, 그리고 창업자 중에서도 남성 47.8%, 여성 52.2%로 일반 취업자 및 창업자 비율 모두 여성이 더 높았으나, 최근에는 일반 취업자는 과거와 동일하게 여성 비율이 높았으나(남: 47.7%, 여: 52.3%), 창업자는 남성과 여성이 각각 52.1%, 47.9%로 남성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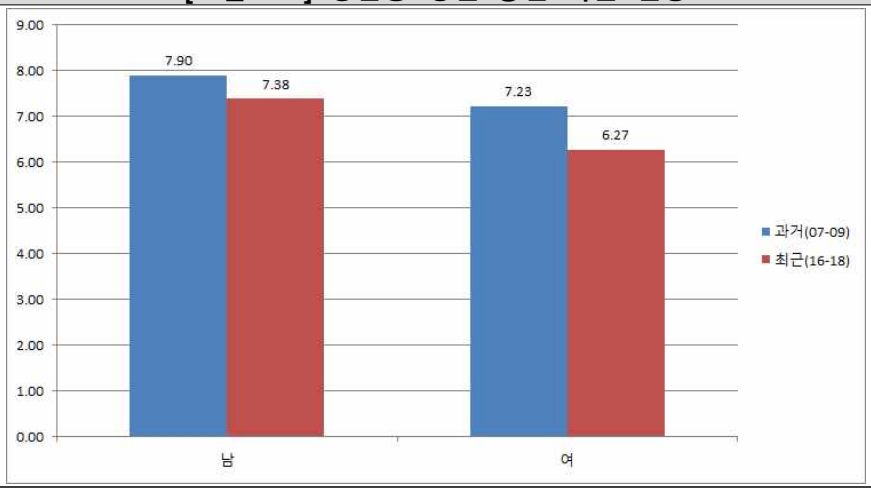
[표 4-2] 과거와 현재 성별 청년층 취업 및 창업률(단위: 명, %)

	과거				최근			
	일반 취업자		창업자		일반 취업자		창업자	
남	758	45.4	65	47.8	1,104	47.7	88	52.1
여	911	54.6	71	52.2	1,210	52.3	81	47.9
전체	1,669	100.0	136	100.0	2,314	100.0	169	100.0

○ 성별 창업률을 비교하면 남성의 경우 '07-09 기간에 7.9%에서 '16-18 기간에는 7.2%로 약 0.7%p 감소한 반면 여성의 경우엔 동일기간 7.4%에서 6.3%로 약 1.1%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앞의 일반 취업자와 비교했을 때 여성의 창업 감소 폭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는 앞서 예상했던 기업가정신 이론 가설과는 배치되는 결과로 한국은 인식 변화로 인한 창업 기조 변화 보다는 여타의 요소들이 창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그림 4-2] 청년층 성별 창업 비율 변동



○ 학력별로 살펴보아도 성별과 유사하게 과거와 최근 일반 취업자의 학력별 비율 순서는 큰 변화가 없는 반면, 창업자의 경우 학력별 비율의 순서가 변화함

- 구체적으로는 일반 취업자의 경우 과거와 최근 모두 대졸의 비율이 가장 높고(과거: 41.4%, 최근: 50.6%), 다음으로 전문대졸(과거: 30.5%, 최근: 26.0%), 고졸(과거: 25.4%, 최근: 19.4%)의 순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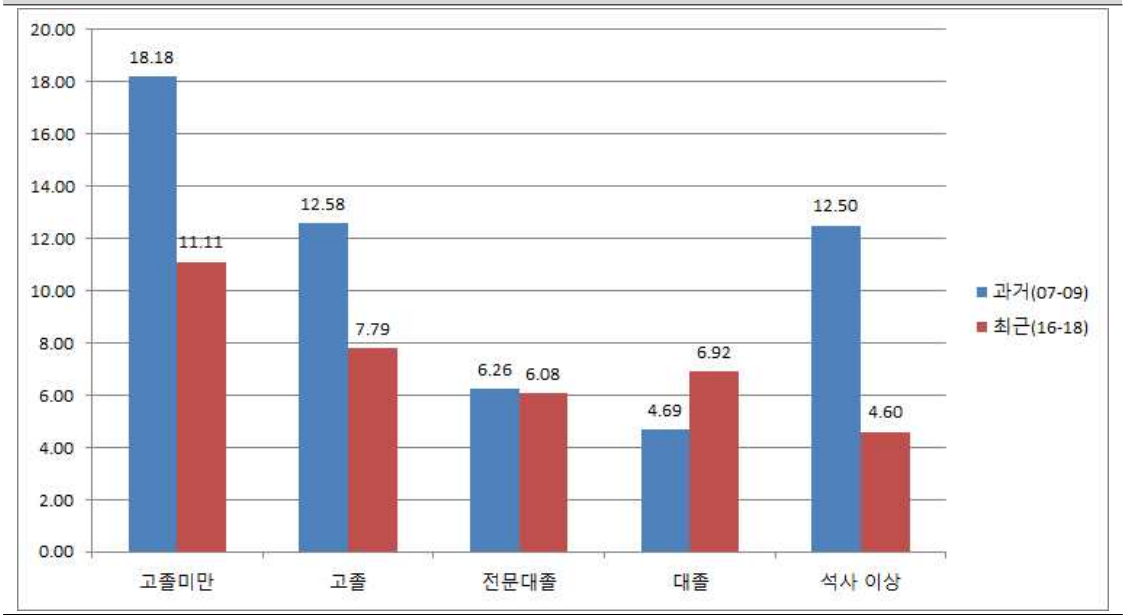
- 반면, 창업자의 경우 과거에는 고졸이 44.9%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전문대졸과 대졸이 각각 25.0%로 동일하고, 석사 이상이 3.7%, 고졸 미만이 1.5%의 순이었으나, 최근에는 대졸이 51.5%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전문대졸 23.1%, 고졸 22.5%, 석사 이상 2.4%, 고졸미만 0.6%의 순으로 나타남

○ 이를 통해 청년층의 경우 과거에 비해 최근으로 올수록 규모가 적은 석사 이상을 제외하면 고학력 창업자가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표 4-3] 과거와 현재 학력별 청년층 취업 및 창업률(단위: 명, %)

	과거				최근			
	일반 취업자		창업자		일반 취업자		창업자	
고졸미만	9	0.5	2	1.5	8	0.3	1	0.6
고졸	424	25.4	61	44.9	450	19.4	38	22.5
전문대졸	509	30.5	34	25.0	602	26.0	39	23.1
대졸	691	41.4	34	25.0	1,171	50.6	87	51.5
석사 이상	35	2.1	5	3.7	83	3.6	4	2.4
전체	1,668	100.0	136	100.0	2,314	100.0	169	100.0

[그림 4-3] 청년층 학력별 창업 비율 변동



○ 이러한 특성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과거에 비해 기술 창업의 증가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최근 10년간 전체 학력 수준에 드라마틱한 변화가 없었고, 오히려 대졸자의 비중이 감소하였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상대적 고학력자들의 창업 비중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음

- 하지만 앞선 3장에서 분석한 최근 청년 창업 분석 동향과 같이 놓고 보면, 고학력자들의 창업 비중이 늘어 생계형 창업 보다는 기술 창업의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전체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여전히 적어 생계형 창업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 청년층의 거주지역별 일반 취업자 비율과 창업자 비율을 살펴보면 일반 취업자는 큰 변화가 없고, 창업자의 경우 광역시도 거주자의 창업 비율이 증가함

- 구체적으로는 16개 시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을 때, 일반 취업자의 경우 과거와 최근 모두 서울지역과 경기지역의 비율 순위가 변동한 것 외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창업자의 거주지 또한 과거와 최근 모두 서울, 경기지역의 비율이 높은 편이었으나 그 외 지역의 순위는 크게

변동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서울·경기, 광역시, 기타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창업자의 경우 과거에는 서울·경기지역 거주자가 44.9%로 가장 많고, 광역시 33.8%, 그 외 21.3%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최근에는 광역시에 거주하는 청년층의 비율이 46.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서울·경기지역이 39.6%, 그 외 지역 14.2%로 변화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표 4-4] 과거와 현재 거주지별 청년층 취업 및 창업률(단위: 명, %)

	과거				최근			
	일반 취업자		창업자		일반 취업자		창업자	
서울	427	25.6	35	25.7	551	23.8	36	21.3
부산	194	11.6	10	7.4	198	8.6	13	7.7
대구	124	7.4	10	7.4	165	7.1	10	5.9
인천	129	7.7	14	10.3	178	7.7	20	11.8
광주	74	4.4	3	2.2	106	4.6	17	10.1
대전	67	4.0	5	3.7	103	4.5	13	7.7
울산	25	1.5	4	2.9	38	1.6	5	3.0
경기	345	20.7	26	19.1	567	24.5	31	18.3
강원	12	0.7	1	0.7	41	1.8	4	2.4
충북	39	2.3	5	3.7	41	1.8	1	0.6
충남	42	2.5	7	5.1	51	2.2	3	1.8
전북	35	2.1	1	0.7	40	1.7	3	1.8
전남	38	2.3	7	5.1	46	2.0	3	1.8
경북	47	2.8	3	2.2	80	3.5	4	2.4
경남	64	3.8	5	3.7	91	3.9	6	3.6
제주	7	0.4	0	0.0	15	0.6	0	0.0
세종	0	0.0	0	0.0	3	0.1	0	0.0
전체	1,669	100.0	136	100.0	2,314	100.0	169	100.0

□ 다음으로는 과거와 최근 청년층 각각에 대하여 일반 취업자와 창업자별로 가구 배경의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봄

○ 먼저 취업 혹은 창업 당시 아버지의 종사상지위를 살펴보면, 창업 청년층

의 아버지 종사상지위에 과거와 최근에 큰 차이를 보임

- 즉 일반 취업자의 경우에는 최근에 아버지 종사상지위가 임금근로자 등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의 비율이 과거보다 더 증가하기는 하였으나(과거: 50.9%, 최근: 60.8%), 취업할 당시 아버지 종사상지위가 자영업이 아닌 경우보다 자영업인 경우(과거: 49.1%, 최근 39.2%)가 과거와 최근 모두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남

- 하지만 창업자의 경우에는 창업 당시 아버지의 종사상 지위가 자영업인 경우가 과거에는 더 높았으나(자영업: 68.0%, 그 외: 32.0%), 최근에는 자영업 이외인 경우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자영업: 43.8%, 그 외: 56.3%)

[표 4-5] 아버지 종사상 지위별 청년층 취업 및 창업률(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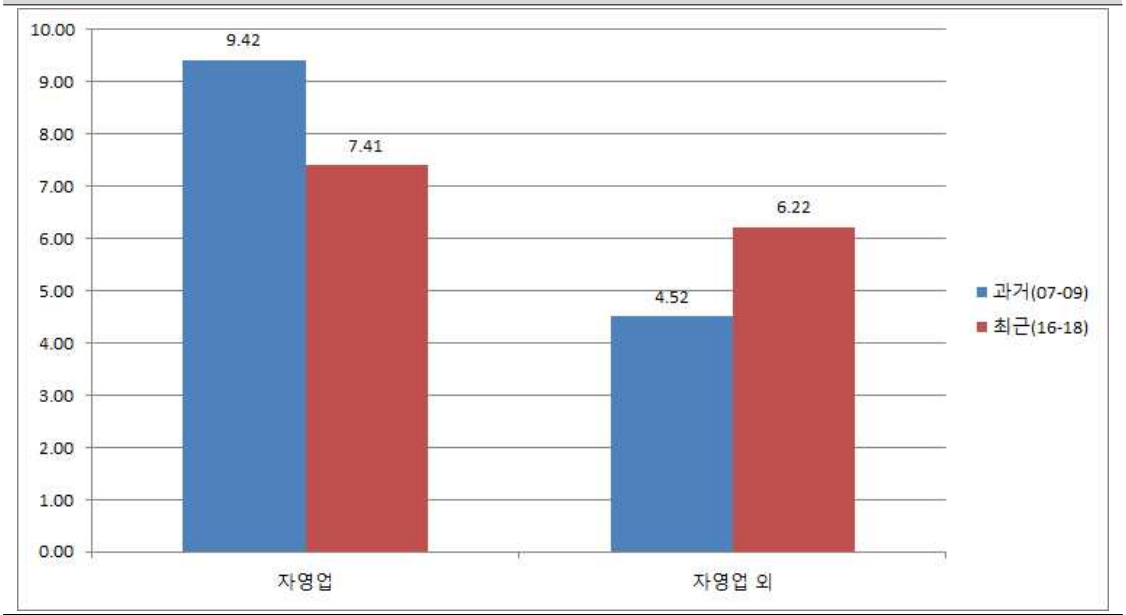
	과거				최근			
	일반 취업자		창업자		일반 취업자		창업자	
자영업	673	49.1	70	68.0	787	39.2	63	43.8
자영업 외	697	50.9	33	32.0	1,221	60.8	81	56.3
전체	1,370	100.0	103	100.0	2,008	100.0	144	100.0

○ 앞선 3장의 분석에서 창업을 위한 정보 취득에 본인 또는 본인의 인적네트워크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다수를 차지하였고, 창업 동기에 있어서도 친구나 지인의 추천이 약 10% 가까이 차지하였음

- 즉, 부모의 직업이 자녀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음

- 위의 결과는 이러한 성향이 최근에 올수록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으며, 부모의 영향 보다는 본인의 직업관이나 자유 의지가 창업을 하는데 보다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그림 4-4] 아버지 직업별 창업 비율 변동



○ 다음으로 취업 혹은 창업 당시 어머니의 종사상지위를 살펴보면, 어머니 종사상지위의 경우 시점별, 창업 여부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즉 과거와 최근 청년층 모두 취업 혹은 창업 당시 어머니의 종사상지위가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의 비율이 모두 7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남

[표 4-6] 어머니 종사상 지위별 청년층 취업 및 창업률(단위: 명, %)

	과거				최근			
	일반 취업자		창업자		일반 취업자		창업자	
자영업	193	27.2	14	23.7	256	22.5	20	26.0
자영업 외	516	72.8	45	76.3	883	77.5	57	74.0
전체	709	100.0	59	100.0	1,139	100.0	77	100.0

○ 다음으로 과거와 최근에 취업 혹은 창업 당시 부모 동거 여부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먼저 과거 일반 취업자의 경우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가 58.2%로 비동거인 경우(41.8%)에 비해 많았으나, 창업자의 경우 부모와 비동거하는 비율이 51.5%로 동거인 경우(48.5%)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하지만 최근에는 일반 취업자와 창업자 모두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일반 취업자의 경우 부모와 동거하는 비율이 비동거에 비해 약 2.4배 높고(부모 동거: 71.0%, 비동거 29.0%) 창업 한 경우 약 1.6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남(부모 동거: 62.1%, 비동거 37.9%)

[표 4-7] 청년층 부모 동거 여부별 취업 및 창업률(단위: 명, %)

	과거				최근			
	일반 취업자		창업자		일반 취업자		창업자	
동거	972	58.2	66	48.5	1,640	71.0	105	62.1
비동거	697	41.8	70	51.5	669	29.0	64	37.9
전체	1,669	100.0	136	100.0	2,309	100.0	169	100.0

○ 청년층의 취업 혹은 창업 당시 혼인 여부의 시점별 차이를 살펴보면, 일반 취업자의 경우 과거와 최근 차이가 없는 반면, 창업자의 경우 기혼자의 비율은 감소하고 기혼자가 아닌 경우의 비율이 증가함

- 다시 말해, 일반 취업자의 경우 과거와 최근 모두 기혼이 아닌 경우(미혼, 이혼, 사별 등)의 비율이 각각 90.9%와 91.9%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비율 또한 유사하게 나타남

- 반면, 창업자의 경우 과거와 최근 모두 기혼이 아닌 경우의 비율이 높기는 하나 과거에 비해 최근 창업 청년층의 기혼자 비율이 감소하고 기혼 이외의 비율이 소폭 증가

[표 4-8] 청년층 혼인 상태별 취업 및 창업률(단위: 명, %)

	과거				최근			
	일반 취업자		창업자		일반 취업자		창업자	
기혼	152	9.1	44	32.4	187	8.1	38	22.5
기혼 외	1516	90.9	92	67.6	2,127	91.9	131	77.5
전체	1,668	100.0	136	100.0	2,314	100.0	169	100.0

○ 마지막으로 청년층의 취업 혹은 창업 당시 가구의 소득수준 차이를 살펴보았으며, 여기서 가구 소득수준은 가구 근로소득, 부동산 소득, 기타 소득을 모두 포함한 금액 기준임

- 먼저 과거 일반 취업자의 경우 가구 소득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가 31.4%로 가장 많고, 다음이 3천만원 미만(31.0%), 5천만원 이상 8천만원 미만(30.7%), 8천만원 이상(6.8%)의 순임

- 창업자의 경우 일반 취업자와 마찬가지로 가구 소득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가 33.1%로 가장 많았으나, 그 다음은 5천만원 이상 8천만원 미만인 경우가 30.1%, 3천만원 미만이 27.2%, 8천만원 이상이 9.6%로 일반 취업자에 비해 고소득 가구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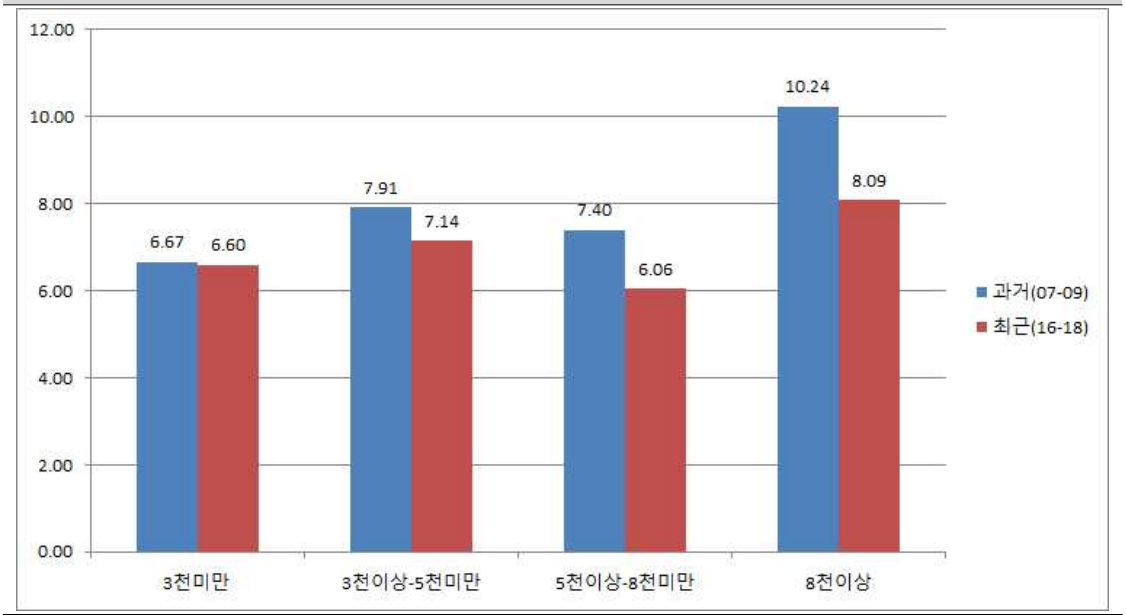
- 반면, 최근 청년층의 경우 일반 취업자의 가구 소득은 3천만원 미만이 36.1%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5천만원 이상 8천만원 미만(30.2%), 8천만원 이상(19.1%),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14.6%)의 순으로 나타나 과거에 비해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비율이 각각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창업자의 경우에도 가구 소득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가 34.9%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5천만원 이상 8천만원 미만(26.6%), 8천만원 이상(23.1%),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15.4%) 등의 순으로 나타나 일반 취업자와 마찬가지로 과거에 비해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비율이 각각 모두 증가

[표 4-9] 과거와 현재 가구 소득수준별 청년층 취업 및 창업률(단위: 명, %)

	과거				최근			
	일반 취업자		창업자		일반 취업자		창업자	
3천미만	518	31.0	37	27.2	835	36.1	59	34.9
3천이상-5천미만	524	31.4	45	33.1	338	14.6	26	15.4
5천이상-8천미만	513	30.7	41	30.1	698	30.2	45	26.6
8천이상	114	6.8	13	9.6	443	19.1	39	23.1
전체	1,669	100.0	136	100.0	2,314	100.0	169	100.0

[그림 4-5] 가구 소득별 창업 비율 변동



○ 소득 구간별 창업자 비율을 살펴보면

- 가구의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창업 비율 감소폭이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과거의 경우 가구 소득 구간이 높을수록 대체적으로 창업하는 비중이 높았던 반면 최근에는 조정이 일어나 대체적으로 균일한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즉, 과거에는 가구 소득이 창업 여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되나, 최근으로 올수록 이러한 영향도는 작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다음으로 계량 분석 모형을 이용하여 창업 결정 요인 및 창업 유지에 미치는 요소들이 무엇인지 파악하도록 함

(2) 실증분석 결과

□ 앞서 살펴본 과거와 최근 청년층의 개인 및 가구 특성 등을 고려하여 창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있어서 시점별(과거 vs. 최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실증분석을 진행함

○ 먼저 시점 구분 없이 분석 대상으로 구축된 전체 청년들의 창업 결정요인을 살펴본 결과, 개인 특성 중에서는 연령, 학력, 거주지역이 가구 특성 중에서는 결혼 여부, 부모님 종사상지위가 창업에 영향을 미침

- 구체적으로는 나이가 많을수록 창업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고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에 비해 전문대 졸업자이거나 대학 졸업 이상인 경우의 창업 가능성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혼인 여부는 기혼인 경우에 그리고 부모님 종사상 지위가 자영업인 경우에 청년층의 창업 가능성이 높아짐

[표 4-10] 청년층 창업 결정요인(전체)

		B	Odds ratio	SE	z value
성별: 남		0.08	1.08	0.13	0.61
연령		0.20 ***	1.22	0.03	7.54
학력: 고졸이하	고졸	-0.64	0.53	0.71	-0.90
	전문대졸	-1.27 †	0.28	0.72	-1.77
	대졸이상	-1.42 *	0.24	0.72	-1.98
거주지역: 서울	부산	-0.17	0.84	0.25	-0.68
	대구	0.03	1.03	0.27	0.11
	인천	0.35	1.42	0.23	1.52
	광주	0.34	1.41	0.28	1.23
	대전	0.56 †	1.75	0.29	1.95
	울산	0.54	1.71	0.40	1.36
	경기	-0.16	0.85	0.19	-0.86
	강원	0.24	1.28	0.51	0.48
	충북	0.14	1.15	0.46	0.30
	충남	0.44	1.55	0.38	1.17
	전북	-0.36	0.70	0.55	-0.66
	전남	0.36	1.44	0.38	0.96
	경북	-0.02	0.98	0.42	-0.04

		B	Odds ratio	SE	z value
	경남	0.21	1.23	0.35	0.60
	제주	(empty)			
	세종	(empty)			
직장 이동 횟수		0.00	1.00	0.05	-0.03
결혼 여부: 기혼 외		0.80 ***	2.24	0.19	4.26
부모님 종사상지위: 자영업 외		0.25 *	1.29	0.12	2.03
부모님 동거여부: 비동거		0.12	1.13	0.16	0.76
가구소득: 3천미만	3천이상-5천미만	-0.10	0.91	0.17	-0.57
	5천이상-8천미만	-0.03	0.97	0.16	-0.20
	8천이상	0.30	1.35	0.19	1.58
상수		-7.38 ***	0.00	0.97	-7.62
N		4,256			
LR-test statistic		197.48			
Pseudo R^2		0.09			
Log likelihood		-998.97			

주1) †p < 0.1, *p < .05, **p < .01, ***p < .001
주2) 결혼여부 기타: 혼인을 제외한 모든 경우(미혼, 이혼, 사별 등)
주3) 부모님 종사상지위 기타: 부모님 두 분 중 한분이 자영업자인 경우를 제외한 모든 경우

○ 다음으로 과거와 최근 시점으로 구분하여 청년들의 창업 결정요인을 살펴보았으며, 먼저 과거 청년층의 경우에는 개인 특성 중에서 연령, 학력, 그리고 취창업 전 직장 이동 횟수, 결혼 여부가 창업에 영향을 미쳤고, 가구 특성 중에서는 부모님 종사상지위, 가구 소득이 창업에 영향을 미침

- 구체적으로는 나이가 많을수록, 직장 이동횟수가 많을수록 창업 가능성이 높아짐

- 학력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에 비해 전문대 졸업자이거나 대학 졸업 이상인 경우의 창업 가능성은 더 낮고, 혼인 여부는 기혼인 경우가 그 외의 경우에 비해 창업 가능성이 낮음

- 부모님 종사상 지위는 자영업인 경우 청년층의 창업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가구 소득이 3천만원 미만의 저소득인 경우에 비해 8천만원 이상의 고소득인 경우 창업 가능성이 높게 나타남

[표 4-11] 청년층 창업 결정요인(과거)

		B	Odds ratio	SE	z value
성별: 남		0.29	1.34	0.20	1.46
연령		0.26 ***	1.30	0.04	5.81
학력: 고졸이하	고졸	-0.90	0.40	0.97	-0.93
	전문대졸	-1.66 †	0.19	0.98	-1.69
	대졸이상	-2.17 *	0.11	0.99	-2.21
거주지역: 서울	부산	-0.34	0.71	0.38	-0.88
	대구	0.26	1.30	0.39	0.67
	인천	0.23	1.26	0.36	0.66
	광주	-0.70	0.50	0.64	-1.10
	대전	-0.15	0.86	0.53	-0.28
	울산	0.72	2.05	0.60	1.20
	경기	-0.14	0.87	0.28	-0.48
	강원	-0.49	0.61	1.13	-0.44
	충북	0.32	1.38	0.54	0.59
	충남	0.50	1.65	0.51	0.98
	전북	-1.18	0.31	1.07	-1.10
	전남	0.32	1.38	0.50	0.63
	경북	0.22	1.25	0.65	0.34
	경남	0.34	1.40	0.52	0.65
	제주	(empty)			
	세종	(empty)			
직장 이동 횟수		0.90 **	2.45	0.28	3.23
결혼 여부: 기혼 외		-0.21 *	0.81	0.10	-1.99
부모님 종사상지위: 자영업 외		0.46 *	1.59	0.19	2.41
부모님 동거여부: 비동거		0.16	1.17	0.23	0.70
가구소득: 3천미만	3천이상-5천미만	0.01	1.01	0.25	0.02
	5천이상-8천미만	0.26	1.30	0.26	1.01
	8천이상	0.77 *	2.16	0.36	2.12
상수		-8.67 ***	0.00	1.51	-5.74
N		1,796			
LR-test statistic		125.13			
Pseudo R^2		0.13			
Log likelihood		-419.12			

주1) †p < 0.1, *p < .05, **p < .01, ***p < .001
주2) 결혼여부 기타: 혼인을 제외한 모든 경우(미혼, 이혼, 사별 등)
주3) 부모님 종사상지위 기타: 부모님 두 분 중 한분이 자영업자인 경우를 제외한 모든 경우

○ 반면 최근 청년층의 경우에는 개인 특성 중에서 연령, 거주지역, 그리고 취창업 전 직장 이동 횟수, 결혼 여부가 창업에 영향을 미쳤고, 가구 특성 중에서는 창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과거와는 차이를 보임

- 구체적으로는 나이가 많을수록, 직장 이동횟수가 많을수록 창업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과거의 청년층과 동일한 패턴임

- 반면, 학력의 경우 과거와는 달리 청년층 창업에 영향이 없는 반면, 청년층의 거주지역은 서울지역 거주인 경우보다 인천, 광주, 대전 등 광역시 거주의 창업 가능성이 높아지는 차이를 보임

- 또한 과거에는 기혼의 창업 가능성이 낮았던 반면, 최근에는 기혼자의 창업 가능성이 높게 나타남

- 가구 특성의 경우 과거에는 부모님의 종사상 지위와 가구소득이 창업에 영향을 미쳤으나 최근에는 가구 특성이 청년층의 창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표 4-12] 청년층 창업 결정요인(최근)

		B	Odds ratio	SE	z value
성별: 남		-0.11	0.89	0.17	-0.67
연령		0.17 ***	1.18	0.03	4.86
학력: 고졸이하	고졸	-0.58	0.56	1.13	-0.52
	전문대졸	-1.01	0.37	1.13	-0.89
	대졸이상	-0.89	0.41	1.13	-0.79
거주지역: 서울	부산	0.08	1.09	0.35	0.24
	대구	0.00	1.00	0.38	0.01
	인천	0.52 †	1.68	0.30	1.70
	광주	0.87 **	2.40	0.33	2.67
	대전	1.04 **	2.84	0.36	2.91
	울산	0.59	1.81	0.53	1.12
	경기	-0.14	0.87	0.26	-0.52
	강원	0.62	1.86	0.58	1.06
	충북	-0.59	0.56	1.04	-0.57
	충남	0.28	1.33	0.64	0.45
	전북	0.28	1.33	0.65	0.44
	전남	0.34	1.41	0.65	0.53

		B	Odds ratio	SE	z value
	경북	0.03	1.03	0.55	0.06
	경남	0.33	1.38	0.47	0.69
	제주	(empty)			
	세종	(empty)			
직장 이동 횟수		0.76 **	2.14	0.28	2.76
결혼 여부: 기혼 외		0.12 *	1.13	0.06	2.14
부모님 종사상지위: 자영업 외		0.09	1.09	0.17	0.52
부모님 동거여부: 비동거		0.15	1.16	0.23	0.67
가구소득: 3천미만	3천이상-5천미만	-0.38	0.68	0.27	-1.45
	5천이상-8천미만	-0.29	0.74	0.22	-1.33
	8천이상	0.13	1.14	0.23	0.55
상수		-7.04 ***	0.00	1.40	-5.02
N		2,460			
LR-test statistic		112.33			
Pseudo R^2		0.09			
Log likelihood		-559.48			

주1) †p < 0.1, *p < .05, **p < .01, ***p < .001
주2) 결혼여부 기타: 혼인을 제외한 모든 경우(미혼, 이혼, 사별 등)
주3) 부모님 종사상지위 기타: 부모님 두 분 중 한분이 자영업자인 경우를 제외한 모든 경우

(3) 청년층의 창업 결정요인 분석 요약

□ 청년층의 창업 특성 변화는 기초 통계에서 확인한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음

○ (연령) 우선 공통된 특성으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창업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에 있음

- 이는 청년 창업의 경우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school to work)시 학교에서 창업으로 바로 연결되기 보다는 '학교 - 임금근로자 - 창업'의 매카니즘 구성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이는 과거나 최근 모두에서 나타나고 있는 결과임

○ (학력) 과거에는 고졸 이하의 창업 비중이 유의하게 높아 생계형 창업 가능성이 높게 나타난 반면 최근에는 학력이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두 가지 가능성을 의미하고 있는데, 첫째는 창업이 학력과 무관하게 나타나는 것 즉, 기술창업의 비중이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져 생계형 창업 비중을 상쇄시켰을 가능성이 있고, 둘째는 학력의 인적 프리미엄이 작용하지 않고 생계형 창업만이 증가했을 가능성이 있음

- 앞선 3장에서 분석한 최근 청년 창업 분석 동향 결과와 종합적으로 판단해보면, 고학력자들의 창업 비중이 늘어 생계형 창업 보다는 기술 창업의 가능성이 높아지기는 했지만, 전체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여전히 생계형 창업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두 번째 가설이 보다 타당하다고 판단됨

[표 4-13] 청년층 창업 결정요인(요약)

	전체	과거	최근
연령	많음	많음	많음
학력	고졸이하	고졸이하	-
혼인여부	기혼	미혼	기혼
부모직업	부모 자영업	부모 자영업	-
직장이동횟수	-	많음	많음
가구소득	-	저소득	-
거주지역	-	-	광역시

○ (혼인여부) 과거('07-09) 시점의 경우 미혼일수록 창업하는 비중이 높게나타났으나 최근('16-18)에는 기혼의 창업 가능성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창업 연령 증가와 연계되어 나타난 결과라고 판단되고, 최근의 창업 연령이 과거에 비해 높아지고 있는 결과가 반영되었다고 판단됨

○ (부모직업) 부모가 자영업일수록 과거에는 창업을 하는 비중이 유의적으로 높았으나 최근에는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를 보임

- 이는 과거에는 부모의 직업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현재에 비해 높았으나 이러한 성향이 최근에 올수록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으며, 부모의 영향 보다는 본인의 직업관이나 자유 의지가 창업을 하는데 보다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직장이동횟수) 전체 분석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과거 시점에서의 분석이나 최근 시점에서의 분석에서는 직장이동횟수가 많을수록 창업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청년층의 경우 다른 연령대의 직업이동과 다르게 직장이동은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과정에서 안정기로 수렴하는 과정에 가까움

- 직장이동횟수가 높다는 것은 안정기로 수렴하지 못하는 불안정 취업 형태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중노동시장 구조하에서 2차 노동시장에 머물다 창업으로 이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음

- 이 경우 1차 노동시장에서의 안정적 경력형성 과정을 통한 기술 창업 보다는 생계형 창업 가능성이 높으며 과거나 최근 모두 생계형 창업 비중이 상당수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음

○ (가구 소득) 과거의 경우 저소득 계층에서의 창업 가능성이 높았던 반면 최근의 경우엔 가구의 소득의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가구 소득인 낮은 계층의 창업은 상대적으로 생계형 창업 가능성이 높은 것을 감안한다면, 최근에는 이러한 경향은 약해지고 있는 추세로 보임

- 다만, 생계형 창업 과정을 기술 창업 등의 유익한 창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창업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정부의 자금 지원 등의 창업 환경이 원활할 수 있는 창업 생태계 조성이 필요함

○ (거주지역) 서울에 비해 인천, 광주, 대전 등의 창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서울이나 읍면부에 비해 창업을 위한 종합적인 생태계(창업비용, 인프라, 지자체 지원, 창업 자원 접근성 등)가 중간 형태인 광역시에서 최적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지역별 산업 생태계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이를 확인할 필요 있음

2) 청년층 창업 사업장 지속 결정요인 변화

□ 본 절에서는 청년층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 후 사업 지속 기간과 지속 영향요인에 있어서 시점별(과거 vs. 최근) 차이가 있었는지를 살펴봄

(1) 기초통계

□ 과거(2007~2009)의 청년층과 최근(2016~2018) 청년층 간에 창업 후 창업 사업장 지속 기간 및 지속 결정요인에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기 위해 구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업장 특성[7]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봄

○ 먼저 창업한 사업장 규모의 경우 5명 미만이 과거와 최근 모두 각각 87.4%와 91.7%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나, 최근에 비해 과거에 5명 이상 사업장의 비율이 약 4.3%p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4-14] 청년층 창업 사업장 규모(단위: 명, %)

	과거 창업자		최근 창업자		전체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5명 미만	118	87.4	155	91.7	273	89.8
5명 이상	17	12.6	14	8.3	31	10.2
전체	135	100.0	169	100.0	304	100.0

○ 다음으로 창업한 사업장의 소재지를 살펴보면 과거와 최근 모두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인 경우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각각 21.7%, 24.9%), 다음으로 경기지역(각각 20.9%, 20.1%), 인천광역시(각각 10.1%로 동일)의 순으로 나타나 수도권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가 가장 많음

○ 그 외 지역 중에서는 창업 사업장 소재지가 광주광역시인 경우가 과거에 비해 최근 크게 증가(각각 2.3%, 9.5%)하였으며, 충북 및 충남 등 충청권의 비율은 크게 감소(각각 8.8%, 5.0%)한 것으로 나타남

7) 청년 창업자의 개인 특성(성, 연령, 학력 등) 및 가구 특성(부모 동거여부, 부모 종사상 지위, 가구 소득 등)은 앞선 분석의 결과와 같으므로 본 파트에서는 창업 사업장의 특성 위주로 살펴봄

[표 4-15] 청년층 창업 사업장 소재지(단위: 명, %)

	과거 창업자		최근 창업자		전체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서울	28	21.7	42	24.9	70	23.5
부산	10	7.8	9	5.3	19	6.4
대구	8	6.2	9	5.3	17	5.7
인천	13	10.1	17	10.1	30	10.1
광주	3	2.3	16	9.5	19	6.4
대전	6	4.7	12	7.1	18	6.0
울산	4	3.1	6	3.6	10	3.4
경기	27	20.9	34	20.1	61	20.5
강원	1	0.8	4	2.4	5	1.7
충북	6	4.7	1	0.6	7	2.3
충남	5	3.9	3	1.8	8	2.7
전북	1	0.8	2	1.2	3	1.0
전남	7	5.4	3	1.8	10	3.4
경북	3	2.3	2	1.2	5	1.7
경남	5	3.9	7	4.1	12	4.0
제주	0	0.0	1	0.6	1	0.3
기타	2	1.6	1	0.6	3	1.0
전체	129	100.0	169	100.0	298	100.0

○ 창업 사업장 산업의 경우 과거와 최근 모두 도소매업인 경우가 29.4%와 23.1%로 가장 높음

- 과거와 최근 비중이 크게 차이나는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과 정보통신업의 경우 과거에 비해 최근의 비중이 높은 반면(각각 11.9%p, 4.6%p 차이), 도소매업과 교육 서비스업은 최근에 비해 과거에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각각 6.3%p, 4.0%p 차이)

[표 4-16] 청년층 창업 사업장 산업(단위: 명, %)

	과거 창업자		최근 창업자		전체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농업, 임업 및 어업	3	2.2	1	0.6	4	1.3
제조업	5	3.7	9	5.3	14	4.6
건설업	6	4.4	5	3.0	11	3.6
도매 및 소매업	40	29.4	39	23.1	79	25.9
운수 및 창고업	0	0.0	5	3.0	5	1.6
숙박 및 음식점업	12	8.8	35	20.7	47	15.4
정보통신업	1	0.7	9	5.3	10	3.3
금융 및 보험업	5	3.7	5	3.0	10	3.3
부동산업	6	4.4	5	3.0	11	3.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5	3.7	7	4.1	12	3.9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4	2.9	3	1.8	7	2.3
교육 서비스업	24	17.6	23	13.6	47	15.4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	1.5	1	0.6	3	1.0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0	7.4	12	7.1	22	7.2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0	7.4	9	5.3	19	6.2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 소비 생산활동	3	2.2	1	0.6	4	1.3
전체	136	100.0	169	100.0	305	100.0

○ 창업 사업장에서의 직업은 영업·판매직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과거: 34.6%, 최근: 26.3%), 비율 격차도 8.3%p로 큰 편임

- 과거에 비해 최근 가장 크게 증가한 직업은 음식 서비스직으로 12.4%p 증가하였고, 영업 판매직과 교육직은 각각 8.3%p, 4.6%p 감소

[표 4-17] 청년층 창업 사업장 직업(단위: 명, %)

	과거 창업자		최근 창업자		전체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관리직(임원·부서장)	1	0.8	0	0.0	1	0.3
경영·행정·사무직	6	4.5	7	4.2	13	4.3
금융·보험직	5	3.8	5	3.0	10	3.3
정보통신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1	0.8	5	3.0	6	2.0
건설·채굴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0	0.0	1	0.6	1	0.3
제조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1	0.8	0	0.0	1	0.3
교육직	22	16.5	20	12.0	42	14.0
법률직	0	0.0	1	0.6	1	0.3
사회복지·종교직	1	0.8	1	0.6	2	0.7
보건·의료직	3	2.3	2	1.2	5	1.7
예술·디자인·방송직	10	7.5	17	10.2	27	9.0
스포츠·레크리에이션직	3	2.3	6	3.6	9	3.0
미용·예식 서비스직	7	5.3	8	4.8	15	5.0
여행·숙박·오락 서비스직	4	3.0	2	1.2	6	2.0
음식 서비스직	5	3.8	27	16.2	32	10.7
돌봄 서비스직(간병·육아)	1	0.8	0	0.0	1	0.3
영업·판매직	46	34.6	44	26.3	90	30.0
운전·운송직	3	2.3	5	3.0	8	2.7
건설·채굴직	2	1.5	3	1.8	5	1.7
기계 설치·정비·생산직	1	0.8	5	3.0	6	2.0
금속·재료설치·정비·생산직(판금·단조·주조·용접·도장 등)	2	1.5	0	0.0	2	0.7
전기·전자 설치·정비·생산직	1	0.8	0	0.0	1	0.3
정보통신 설치·정비직	1	0.8	0	0.0	1	0.3
섬유·의복 생산직	1	0.8	1	0.6	2	0.7
식품 가공·생산직	0	0.0	5	3.0	5	1.7
인쇄·목재·공예 및 기타 설치·정비·생산직	3	2.3	1	0.6	4	1.3
농림어업직	3	2.3	1	0.6	4	1.3
전체	133	100.0	167	100.0	300	100.0

(2) 창업 유지 결정요인 분석

□ 본 절에서는 앞서 살펴본 창업 사업장 특성을 바탕으로 청년 창업자의 사업 유지 기간 및 영향요인에 있어서 시점별(과거 vs. 최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봄

○ 먼저 Kaplan-Meier Estimation 방법을 이용하여 계층(strata)별로 창업 후 창업 사업장 지속(폐업) 기간을 살펴본 후, 비례적 위험(hazard) 모형인 콕스 회귀모형(Cox Regression)을 활용하여 창업자의 개인특성과 창업 사업장 특성 등의 효과를 통제 한 후 창업 유지 효과를 살펴봄

○ 여기서 계층은 과거(2007년~2009년)에 창업한 집단과 최근(2017년~2019년)에 창업한 집단을 의미

□ K-M 추정은 1958년 Kaplan과 Meier에 의해 고안되었으며 비모수적 추정 방법 중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우석진, 2016) 의학 데이터를 활용한 생존기간 분석에 주로 사용되는 통계적 기법

○ 이 방법은 관찰된 생존 시간을 크기순으로 나열한 후 계산하며, 사건(event)이 관측된 시점마다 생존확률을 산출

○ 본 분석에서는 창업 후 폐업하기까지의 생존 시간이 해당되며, 기간은 월 단위로 환산하여 산출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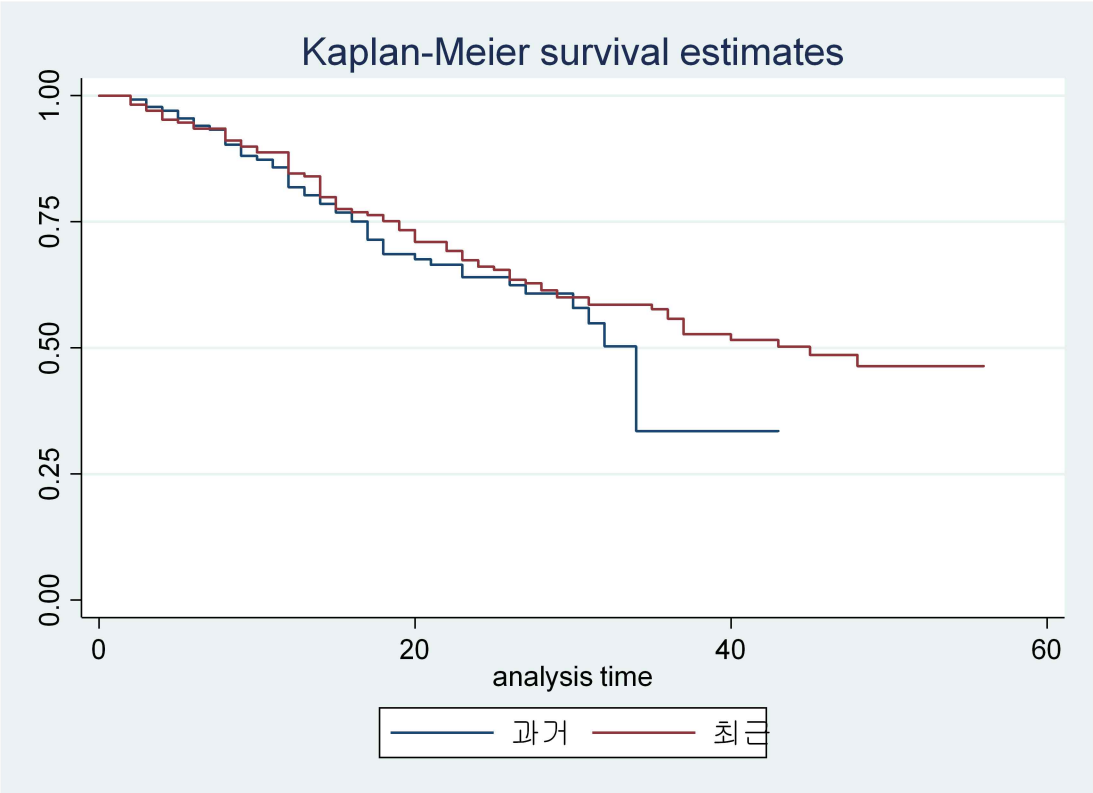
○ 과거와 최근 자료의 분석 기간을 동일하게 조정하기 위하여 과거의 경우 2010년 10월을 기준으로 해당 기간까지 창업 사업장을 폐업한 경우 사건(event)이 발생하였다고 판단

○ 최근의 경우 2021년 10월을 기준으로 해당기간까지 창업 사업장을 폐업한 경우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고, 기준시점까지 사업을 지속할 경우 중도 절단(censored)된 것으로 정의

□ K-M Curve를 통해 창업 시점에 따라 사업장 유지 기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음

○ [그림 4-6]의 세로축은 생존률 값을, 가로축은 생존기간(월)을 의미하며, 분석결과를 통해 과거에 창업한 청년층 집단이 최근에 창업한 청년층에 비해 시간이 지날수록 생존률이 낮아짐

[그림 4-6] 청년층 창업 시점별 창업사업장 유지기간(K-M Curve)



○ 대략적으로 과거 시점의 경우 50% 생존률이 34개월 시점에서 형성되는 반면 최근의 경우엔 43개월 가량으로 형성되어 과거 창업에 비해 기업 생존률이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Kaplan-Meier method의 경우 창업 시점과 같은 하나의 요인만 고려하여 사업장 유지 기간을 살펴볼 수 있어 기업 생존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요소를 고려할 수 없다는 한계점 존재

○ 즉, 특정 요인의 속성별 사업장 유지 기간의 시간 간격만 확인할 수 있을 뿐 다른 요인에 의한 생존율 효과를 살펴볼 수 없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사업장 생존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

양한 설명 변수들의 고려가 가능하고, 중도 절단된 관측치의 처리가 가능한 콕스 회귀(Cox regression)분석의 위험률(hazard) 모형을 이용하여 창업 시점별 유지 영향요인에 관한 분석 실시

□ 시점에 관계없이 구축된 표본 전체(과거와 최근에 창업한 청년층 전체)를 활용하여 창업한 사업장 유지 영향요인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창업 청년층 개인 특성은 사업장 유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반면, 사업장 특성 중 사업장 소재지, 규모 등은 사업 유지에 영향을 미침

- 구체적으로는 사업체 소재지가 인천, 경기, 충남, 경북 등 서울 외 지역인 경우에 비해 서울인 경우의 폐업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업체 규모는 5인 이상인 경우보다 5인 미만인 경우 폐업 가능성이 높음

[표 4-18] 창업 사업장 유지 영향요인_전체

		Coef.	Std. Err.	Haz. Ratio
성별: 남		-0.20	0.23	0.82
연령		-0.03	0.05	0.97
학력: 고졸이하	고졸	0.22	1.11	1.25
	전문대졸	-0.41	1.12	0.67
	대졸이상	-0.10	1.10	0.91
직장 이동 횟수		-0.05	0.08	0.96
사업체 소재지: 서울	부산	-0.13	0.45	0.88
	대구	-0.14	0.59	0.87
	인천	-0.85 †	0.45	0.43
	광주	0.00	0.45	1.00
	대전	-0.44	0.52	0.64
	울산	1.67	1.08	5.33
	경기	-0.59 †	0.32	0.55
	강원	-0.80	0.99	0.45
	충북	0.08	0.77	1.09
	충남	-1.38 *	0.58	0.25
	전북	0.46	1.25	1.58
	전남	0.50	0.94	1.66
	경북	-1.75 *	0.78	0.17
	경남	1.68	1.09	5.38
	제주	-1.77	1.22	0.17
	기타	-1.14	1.13	0.32
사업체 규모: 5인 이상		0.79 *	0.39	2.21

		Coef.	Std. Err.	Haz. Ratio
산업: 기타	1	-0.29	1.23	0.75
	2	-1.13	1.10	0.32
	3	-1.10	1.10	0.33
	4	-0.11	1.15	0.90
	5	-1.16	1.24	0.31
직업: 기타	1	-0.55	1.17	0.58
	2	-0.10	1.21	0.91
	3	-0.80	1.17	0.45
	5	-0.62	1.11	0.54
	6	-0.86	1.20	0.42
LR chi2(33)		33.07		
Log likelihood		-445.82		
Prob > chi2		0.46		

주1) †p < 0.1, *p < .05, **p < .01, ***p < .001
주2) 산업: 0. 기타/ 1. 제조,건설, 운송 / 2. 도소매 / 3. 음식점업 / 4. 정보통신, 금융 및 보험, 부동산 / 5. 서비스
주3) 직업: 0. 기타 / 1. 관리, 경영·행정·사무직, 금융·보험직, 연구직, 법률직, 사회복지, 보건의료 / 2. 교육직 / 3. 예술·디자인·방송직, 스포츠·레크리에이션직 / 4. 서비스직 / 5. 영업·판매직 / 6. 운전·운송직, 건설채굴직, 설치·정비·생산직

○ 이를 창업 시점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과거와 최근 모든 사업체 관련 요인 중 사업체 소재지, 사업체 규모가 사업장 유지 여부에 영향을 미쳤으며, 개인 요인 중 성별과 사업체 요인 중 산업은 최근 창업자 그룹의 사업장 유지 여부에만 영향을 미침

- 먼저 창업 청년층 개인 요인 중 성별의 경우 최근 창업자 집단에서만 여성에 비해 남성 창업자의 폐업 가능성이 높았음

- 사업체 관련 요인 중 사업장 소재지의 경우 과거와 최근 창업자 간에 유지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지역의 차이가 있었는데, 과거에는 인천, 경기, 충남, 경북 등 지역에 비해 서울지역 창업 사업장의 폐업 가능성이 높게 나타난 반면, 최근에는 충남, 경북 지역에 비해 서울지역의 창업 사업장 폐업 가능성이 높게 나타남

- 사업체 규모의 경우 과거와 최근 모든 5인 이상 사업장에 비해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의 폐업 가능성이 높았으며, 창업 사업장 산업의 경우 최근에만 서비스 산업에 비해 기타 산업의 폐업 가능성이 높게 나타남

[표 4-19] 창업 사업장 유지 영향요인_시점별

		과거 창업자			최근 창업자		
		Coef.	Std. Err.	Haz. Ratio	Coef.	Std. Err.	Haz. Ratio
성별: 남		-0.20	0.23	0.82	-0.75 *	0.37	0.47
연령		-0.03	0.05	0.97	0.06	0.07	1.06
학력: 고졸이하	고졸	0.22	1.11	1.25	-0.01	1.17	0.99
	전문대졸	-0.41	1.12	0.67	-0.49	1.21	0.62
	대졸이상	-0.10	1.10	0.91	-0.04	1.15	0.96
직장 이동 횟수		-0.05	0.08	0.96	-0.08	0.11	0.92
사업체 소재지 : 서울	부산	-0.13	0.45	0.88	-0.89	0.69	0.41
	대구	-0.14	0.59	0.87	-0.48	0.74	0.62
	인천	-0.85 †	0.45	0.43	-0.90	0.65	0.40
	광주	0.00	0.45	1.00	0.10	0.54	1.11
	대전	-0.44	0.52	0.64	-1.06	0.75	0.35
	울산	1.67	1.08	5.33	-		
	경기	-0.59 †	0.32	0.55	-0.84	0.53	0.43
	강원	-0.80	0.99	0.45	-		
	충북	0.08	0.77	1.09			
	충남	-1.38 *	0.58	0.25	-1.62 †	0.86	0.20
	전북	0.46	1.25	1.58	1.31	1.51	3.71
	전남	0.50	0.94	1.66	-		
	경북	-1.75 *	0.78	0.17	-2.08 †	1.13	0.12
	경남	1.68	1.09	5.38	-2.09	1.61	0.12
	제주	-1.77	1.22	0.17	-		
	기타	-1.14	1.13	0.32	-		
사업체 규모: 5인 이상		0.79 *	0.39	2.21	0.94 †	0.54	2.55
산업: 기타	1	-0.29	1.23	0.75			
	2	-1.13	1.10	0.32	-1.36	1.03	0.26
	3	-1.10	1.10	0.33	-0.90	0.99	0.41
	4	-0.11	1.15	0.90	-0.42	0.84	0.66
	5	-1.16	1.24	0.31	-2.05 †	1.18	0.13
직업: 기타	1	-0.55	1.17	0.58	-0.61	1.28	0.54
	2	-0.10	1.21	0.91	0.12	1.50	1.13
	3	-0.80	1.17	0.45	-0.06	1.50	0.94
	5	-0.62	1.11	0.54	-1.17	1.20	0.31
	6	-0.86	1.20	0.42	-1.26	1.34	0.28
LR chi2(33)		33.07			33.07		
Log likelihood		-445.82			-445.82		

	과거 창업자			최근 창업자		
	Coef.	Std. Err.	Haz. Ratio	Coef.	Std. Err.	Haz. Ratio
Prob > chi2	0.46			0.46		

주1) †p < 0.1, *p < .05, **p < .01, ***p < .001
주2) 산업: 0. 기타/ 1. 제조,건설, 운송 / 2. 도소매 / 3. 음식점업 / 4. 정보통신, 금융 및 보험, 부동산 / 5. 서비스
주3) 직업: 0. 기타 / 1. 관리, 경영·행정·사무직, 금융·보험직, 연구직, 법률직, 사회복지, 보건의료 / 2. 교육직 / 3. 예술·디자인·방송직, 스포츠·레크리에이션직 / 4. 서비스직 / 5. 영업·판매직 / 6. 운전·운송직, 건설채굴직, 설치·정비·생산직

(3) 창업 유지 결정요인 분석 요약

□ 창업 유지에 대한 시간을 비교하기 위해 생존분석 방법인 K-M curve를 이용함

○ 과거 시점(2007-2009) 50% 생존률 : 약 34개월

○ 최근 시점(2017-2019) 50% 생존률 : 약 43개월

□ 창업 유지 기간에 대한 분석은 생존분석 방법인 Cox Reg.를 이용함

○ (개인특성) 창업 결정요인 분석에 있어선 개인들의 특성이 유의하게 작용하였으나 창업 유지 분석에서는 개인 특성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즉, 창업을 하기 까지의 과정에서는 창업 관련 이론 등이 유의미하게 작용하여 개인의 특성들이 영향을 미치나 창업 이후의 생존은 개인적 특성보다는 사업 특성이 보다 큰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표 4-20] 청년층 창업 생존요인(요약)

	전체	과거	최근
성	-	-	여성
연령	-	-	-
학력	-	-	-
직장이동횟수	-	-	-
가구소득	-	-	-
사업장소재지	서울 외 지역	서울 외 지역	서울 외 지역

	전체	과거	최근
규모	5인 이상	5인 이상	5인 이상
산업	-	-	서비스산업

○ (사업특성) 서울 지역에서의 창업 보다는 그 외 지역에서의 창업에서 생존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특히, 과거의 경우 수도권 인근의 생존률이 서울에 비해 높았으나 최근에는 수도권 외곽에서의 생존률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이 또한 앞선 창업 결정요인과 마찬가지로 창업 생태계(창업비용, 인프라, 지자체 지원, 창업 자원 접근성 등)에 따른 영향으로 판단되며 향후 지역별 연구를 통해 밝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규모) 5인 이상 창업 사업장의 생존률이 5인 미만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는 앞서도 언급하였던 기술창업과 생계형 창업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보이며, 일정 정도의 규모의 경제를 통해 기업의 생존이 유지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또한 5인 미만 기업의 생존률을 높이기 위해 창업 지원 뿐 아니라 사후관리에도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연구 결과 요약

□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패널 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어떠한 집단(성, 연령, 학력, 세대, 노동시장 경험 등) 특성이 창업 및 창업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고자 함

○ 추가로 과거의 특정 시점(분석대상기간 설정)과 비교 가능한 최근 시점 간의 차이를 분석하여 효율적 창업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는 점에 있어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두고자 함

□ (정부의 창업 지원 정책) 정부의 창업 관련 지원 정책은 중앙부처의 사업만 약 22개가 나열될 정도로 다양하게 있으나 일부 창업지원 사업의 경우 대국민 홍보 부족과 낮은 사업비 단가로 인해 사업 활성화와 창업팀의 경쟁력 제고에 제약요인으로 작용 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음

○ 또한 패키지 사업을 제외하고는 창업 이후 사후 관리에 대한 지원은 없거나 소극적인 활동(정부창업지원사업 안내, 교육정보 등 프로그램 안내) 지원에만 그치고 있어 관리에 대한 한계를 보이고 있음

□ (최근 창업 청년 특성) 본 장에서는 청년패널(Youth Panel; YP) 자료를 활용하여 최근 청년층의 창업 실태를 살펴보고 있음

○ (창업자의 인적특성) 최근 창업자의 인적 특성을 요약하면

○ (성별) 취업자 남성비율 52.6% vs. 창업자 남성비율 59.4%

○ (연령대) 취업자 25-29세 30.4% vs. 창업자 35-40세 40.6%

○ (학력) 취업자 대졸 52.3% vs. 창업자 대졸 41.7%

□ (최근 창업 청년 특성) 최근 창업자의 창업 특성을 요약하면

○ (창업동기) '좋아하는 업종이어서' 32.5% > '일하는 시간이 자유로운 편이어서'가 18.1% > '적당한 임금근로 일자리를 발견할 수 없어서'가 11.5%

○ (창업관련 정보획득 경로) '친구 또는 지인의 지원을 받음' 37.1% > '혼자서' 35.1% > 부모(가족, 친지 등)의 지원을 받음 17.2%

○ (창업과정에서의 어려움) 청년 창업자들의 경우 자금확보(2.99) > 기술확보(2.83) > 행정절차(2.81)의 어려움을 보임

○ (창업소재지, 산업, 직업) 서울과 경기, 인천 등의 수도권이 50% 이상

- (산업) 도매 및 소매업 27.8% > 숙박 및 음식점업 14.4% > 교육 서비스업 13.3%

- (직업) 영업, 판매, 운전, 운송직 35.3% > 미용, 여행, 숙박, 음식, 경비, 청소직 16.1% > 경영, 사무, 금융, 보험직 12.8% > 교육, 법률, 사회복지, 경찰, 소방직 및 군인 11.9%

- 기술창업보다는 생계형 창업의 비중이 높다는 특성을 보임

□ (창업결정요인 특성 변화) 청년층의 창업 특성 변화는 기초 통계에서 확인한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음

○ (연령) 우선 공통된 특성으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창업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에 있음

- 이는 청년 창업의 경우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school to work)시 학교에서 창업으로 바로 연결되기 보다는 '학교 - 임금근로자 - 창업'의 매카니즘 구성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이는 과거나 최근 모두에서 나타나고 있는 결과임

○ (학력) 과거에는 고졸 이하의 창업 비중이 유의하게 높아 생계형 창업 가능성이 높게 나타난 반면 최근에는 학력이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나고 있음

[표 5-1] 청년층 창업 결정요인(요약)

	전체	과거	최근
연령	많음	많음	많음
학력	고졸이하	고졸이하	-
혼인여부	기혼	미혼	기혼
부모직업	부모 자영업	부모 자영업	-
직장이동횟수	-	많음	많음
가구소득	-	저소득	-
거주지역	-	-	광역시

○ (혼인여부) 과거('07-09) 시점의 경우 미혼일수록 창업하는 비중이 높게나타났으나 최근('16-18)에는 기혼의 창업 가능성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음

○ (부모직업) 부모가 자영업일수록 과거에는 창업을 하는 비중이 유의적으로 높았으나 최근에는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를 보임

○ (직장이동횟수) 전체 분석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과거 시점에서의 분석이나 최근 시점에서의 분석에서는 직장이동횟수가 많을수록 창업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가구 소득) 과거의 경우 저소득 계층에서의 창업 가능성이 높았던 반면 최근의 경우엔 가구의 소득의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거주지역) 서울에 비해 인천, 광주, 대전 등의 창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창업 지속 기간 변화) 창업 유지에 대한 시간을 비교하기 위해 생존분석 방법인 K-M curve를 이용함

○ 과거 시점(2007-2009) 50% 생존률 : 약 34개월

○ 최근 시점(2017-2019) 50% 생존률 : 약 43개월

□ (창업 유지 결정요인 변화) 창업 유지 기간에 대한 분석은 생존분석 방법인 Cox Reg.를 이용함

○ (개인특성) 창업 결정요인 분석에 있어선 개인들의 특성이 유의하게 작용

하였으나 창업 유지 분석에서는 개인 특성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5-2] 청년층 창업 생존요인(요약)

	전체	과거	최근
성	-	-	여성
연령	-	-	-
학력	-	-	-
직장이동횟수	-	-	-
가구소득	-	-	-
사업장소재지	서울 외 지역	서울 외 지역	서울 외 지역
규모	5인 이상	5인 이상	5인 이상
산업	-	-	서비스 산업

○ (사업특성) 서울 지역에서의 창업 보다는 그 외 지역에서의 창업에서 생존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규모) 5인 이상 창업 사업장의 생존률이 5인 미만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2 정책 제언

□ 정부의 창업 지원 정책에 대한 제언

○ 첫째, 정부의 창업지원 정책들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여 참여율을 높이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창업 상담이나 지원 정책 안내 등의 창구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으며, 해당 창구를 통해 타 창업지원 프로그램 연계 등의 시너지 효과를 구축할 수 있음

○ 둘째, 창업 관련 지원 정책들을 패키지 형태로 통합할 필요 있음

- 현재 부처별 또는 동일 부처 내에서도 유사한 형태의 지원 대상만 다른

사업들이 존재하고 있음

- 이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원 대상만 차이가 있는 유사 사업들은 통합할 필요가 있으며, 전문성이나 특수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타 지원 사업(인프라지원, 융자지원) 등과의 연계를 통해 후속적인 지원이 필요함

○ 셋째, 창업지원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할 필요 있음

- 정부의 창업 지원에 대한 일부 사업들을 보면, 창업 단계까지만 지원이 있고 사후지원 프로그램은 없거나 소극적인 단계에서의 활동에 국한된 사업들이 있음

- 창업에 대한 초기 생존률이 낮은 만큼 이를 인큐베이팅하여 중장기 생존률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이에 단순 창업 지원 차원의 프로그램 들은 패키지 형태(예비창업, 창업단계, 사후지원(인프라, 융자, 수출, 기술개발 등))로 전환하여 지속적인 사후관리 체제로 개편한 필요 있음

○ 넷째, 창업 생태계 복원을 통한 청년 창업 활성화 지원 필요

- 앞선 두 번째, 세 번째 제언은 결국 창업 생태계를 복원하여 창업의 선순환 구조를 지속적으로 가져가야 한다는데 그 핵심이 있음

- 창업 생태계는 창업의 기회 발견과 창업, 창업 초기, 성장기에 이르기까지 창업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매커니즘으로 이해할 수 있음

- 일반적으로 생태계란 생물공동체와 이를 지지하는 환경이 상호작용하는 공간을 의미하며, 창업의 생태계는 기업생태계, 벤처생태계 등의 개념에 가까움

- 박재환 등(2012)에 따르면 정부는 창업생태계를 창업자, 대학 등 창업지원기관, 투자자 등이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하며 지속적으로 창업이 활성화되는 환경으로 정의하고 있음

- 이들의 정의는 창업생태계가 어떻게 정의되든 간에 창업을 통한 지속적

인 경제성장이라는 목적을 추구하는 과정과 환경으로 이해할 수 있고, 정부의 창업 생태계 부흥과 선순환 정책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발아 단계에 있는 청년 창업을 활성화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음

- 이러한 창업 생태계와 관련하여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야 할 점은 2000년대 초 벤처 열풍의 소멸임

- 앞선 [표 3-3]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정부의 창업 정책 활용도는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당시 정부의 정책들은 당면과제에 대한 해결 위주로 운영되어 벤처 열풍이 소멸 되었다고 평가되고 있음

- 이러한 앞선 과오를 다시 반복하지 않고 창업 생태계의 선순환을 위해서는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창업 생태계의 구성요소간의 상호작용성을 긴밀하게 해주고 구성 요소간의 기능이 청년창업의 발전에 필요한 응집력을 발휘하도록 정부는 신뢰중개자로서 구성 요소간의 네트워킹 활성화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임

- 또한 창업생태계의 조성과 발전에 있어 정부의 역할은 중요하지만 정부의 역할은 일정 부분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어야 함

- 정부는 청년 창업 생태계가 선순환 할 수 있도록 시장 공급자, 수요자, 창업가, 사회적지원 그룹 등 각 개별 주체들을 이어주는 개별 중개자의 신뢰를 개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의 초점을 맞추어야 함

□ 청년층 창업 특성 분석 결과에 따른 정책 제언

○ 첫째, 최근 창업 청년층의 매카니즘을 보면 '학교 - 취업 - 창업'의 매카니즘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으로 창업 취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청년층의 창업 특성 분석에서 보면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school to work)시 '학교 - 창업'의 매카니즘 보다는 '학교 - 임금근로자 - 창업'의 매카니즘으로 운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이와 같이 대부분의 최근 창업 사례를 보면 순수 학생창업의 성공사례는

찾기가 어렵고, 창업 활성화와 창업 실패의 최소화 관점에서 창업 취업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음

- 창업 취업은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우수인재를 확보하는 반면 창업취업자 입장에서는 직장 경험을 통하여 창업 기반을 확보할 수 있다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함

- 하지만 창업할 청년을 고용하는 것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이해관계가 상충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중소기업과 창업 취업자와의 이해관계를 합치할 수 있는 대안이 요구됨

- 이는 사내분사와 독립채산제 같은 다양한 제도를 발굴하여 서로 윈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러한 다양한 제도에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 둘째, 생계형 창업 중심에서 기술 창업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 지원 필요

- 최근 창업 청년층의 특성 분석 및 청년 창업 결정 요인 분석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청년 창업의 상당수는 생계형 창업에 치중되어 있음

- 일반적으로 기술 창업 이라는 용어를 국내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기존 대부분의 국내 연구에서는 별도의 정의 없이 광의로 '기술을 갖고 창업한 기업' 또는 '기술에 기반해 창업한 기업'으로 사용하고 있음

- 반면 생계형 창업의 경우엔 고도의 기술을 요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적은 자본으로도 창업이 가능한 음식점 등 저자본·저기술 창업 등을 의미하고 있음

- 본문에서도 일부 언급하였듯이 생계형 창업은 단기 폐업, 저임금 저고용 및 고용 증대의 한계 등으로 창업의 질적 저하를 낳고 있음

- 이러한 개인 사업자의 창업은 단명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생계형 창업이 지속적인 고용 창출로 연결되는 데는 구조적인 한계가 존재함

- 이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을 보유한 개인이나 기업이 창업하여

안정적으로 장기간 고도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고용 창출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실정임

- 또한 <창업 결정 요인 분석>이나 <창업 생존 요인 분석> 결과에서 나타난 창업이나 기업 생존 등이 서울권에서 광역시 등의 지역으로 이동한 결과와 결합한다면, <권역별 기술 창업지원 협의회> 등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기관이 필요함

- 해당 협의회는 기술창업 기업의 발굴·육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기술창업 기업 지원을 위한 권역 내 산학연 전문가 풀의 운영, 금융지원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할 것임

- 해당 협의회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① 기술창업 기업의 발굴 및 육성 지원 ② 창업 상담이나 지원 정책 안내 등의 일원화된 창구 유지 ③ 단절적이거나 개별적으로 나열된 정부의 타 창업 지원 프로그램 연계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셋째, 정부의 창업 지원 정책 접근성이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성공모델 제시 필요

- 청년 창업과 관련하여 인위적인 자원의 제공을 통한 일명 '창업 내몰기'가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창업이 활용화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함

- 또한 성공적인 창업에 한정되지 않고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도록 청년 창업의 다양한 성공모델 정립이 필요하며, 실패한 사례 또한 반면교사 삼을 수 있도록 다양한 사례 제시가 필요함

- 현재 정부의 창업 지원 프로그램의 참여율 저조 등의 사유에는 사업의 홍보도 부족하지만 제공 정보가 실질적으로 활용하는데 유익하지 않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인적네트워크의 활용 비중이 높았던 것을 감안한다면 해당 정책은 정책 이용 만족도 향상 및 활용도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함

<참고문헌>

「해외 문헌」

Ace, J., Braunerhjelm P., Audretsch, D., & Carlsson, B. 2009. The knowledge spilliover theory of entrepreneurship, 32: 15-30.

Armington, C., & Acs, Z. J. 2002. The determinants of regional variation in new firm formation, Regional Studies, 36: 33-45.

Audretsch, D. B., & Keilbach, M. 2004. Entrepreneurship capital and economic performance. Regional Studies, 38: 949-959.

Barney, J. B. 1991. Firm resources and sustained competitive advantage. Journal of Management, 17: 99-120.

Baum, J. R., Locke, E. A., & Smith, K. G. 2001. A multidimensional model of venture growth.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44: 292-303.

Baumol, W. J. 1990. Entrepreneurship: Productive, unproductive, and destructiv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8: 893-921.

Bowman, D., & Gatingnon, H. 1995. Determinants of competitor response time to a new product introduction.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21: 42-53.

Braunerhjelm, P., Acs, Z. J., Audretch, D. B., & Carlsson, B. 2010. The missing link: Knowledge diffusion and entrepreneurship in endogenous growth, Small Business Economics, 34(2): 105-125.

CBInsights(2021), The Unicorn Report.

Cento Ventures. 2021. Vietnam tech investment report. www.cento.vc

Cook, R., Campbell, D., & Kelly, C. 2012. Survival rates of new firms: An exploratory study, Small Business Institute Journal, 8(2): 35-42.

Dohse, D., Schertler, A. 2003. Explaining the regional distribution of new economy firms: A count data analysis, Kiel Working paper, 1193

Drucker, P. F. 1985. Innovation and Entrepreneurship,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s.

Etzkoxitz, H. & Leydesdorff, L. 1996. Emergence of a triple helix of university-industry-government relations, Science and Public Policy, 23.

Glaeser, E. L., Kerr, S. P., & Kerr, W. R. 2015. Entrepreneurship and urban growth: An empirical assessment with historical mines.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97: 498-520.

Guerini, M., & Rossi-Lamastra, C. 2014. How university and industry knowledge interact to determine local entrepreneurship. Applied Economics Letters, 21: 513-516.

Lee, S. Y., Florida, R., & Acs, Z. 2004. Creativity and entrepreneurship: A regional analysis of new firm formation. Regional Studies, 38: 879-891.

Miller, N. J. & Besser, T. L. 2005. Exploring decision strategies and evaluations of performance by networked and non-networked small US businesses. Journal of Developmental Entrepreneurship, 10: 167-186.

Porter, M. 1985. Competitive Advantage, Free Press, New York.

Reiner, T. 1974. Welfare differences within a nation, Regional Science, 32: 65-82.

Rosenthal, S. S. & Strange, W. C. 2010. 9 small establishments/big effects: Agglomeration, industrial organization, and entrepreneurship. In Agglomeration economics(pp. 277-302). University of Chicago Press.

Sarmento, E., & Nunes, A. 2010. Entrepreneureship performance indicators for acitve employer enterprises in Portugal, Temas Economicos, 9.

Sayres, L. W. 1989. Pooled time series analysis, Sage Publication, INC.

World Bank. 2019. Doing Business 2020.

Zhou, K. Z., Yim, C. K., & Tse, D. K. 2005. The effects of strategic orientations on technology and market-based breakthrough innovations. Journal of Marketing, 69: 42-60.

Zhou, Y., He, C., & Zhu, S. 2016. Does creative destruction work for Chinese regions? Growth and Change, 48: 274-296.

「국내 문헌」

강경란・박철우(2021), 대학생들의 기업가정신・디지털역량과 금융이해력이 창업인식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창업학회지, 16: 164-184.

관계부처 합동(2020), 지역균형뉴딜 촉진을 위한 지역혁신 중소기업 육성방안.

글로벌기업가정신연구협회(2019), 2018 년 글로벌기업가정신연구.

김도관(2017), 지역 차원의 통합형 창업 지원방안, 부산발전포럼, 166: 103-107.

김민철・황정욱・김근형(2004), 창업보육센터 활성화 요인 연구, 전산회계연구, 8: 155-171.

김성민・임욱빈・안상봉(2017), 대학 창업보육센터의 사후 지원에 대한 졸업기업의 성과에 관한 연구, 한국창업학회지, 12: 181-206.

김성태(2012), 우리나라 지역경제성장과 지방재정,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과제 2012-14 호.

김영찬(2009), 외식사업 창업에 따른 입지결정 요인 분석, 한국조리학회지, 15: 30-46.

김예정(2019), 창업의지가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창업역량 및 차별화 경쟁우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14: 63073.

김용태・박재환(2013), 사회적기업 창업성과 영향요인 연구, 경영교육연구, 28: 303-327.

김정홍・정윤선・박종복・안준기(2014), 기술창업기업의 지방입지 촉진 및 고용창출 활성화 방안, 산업연구원.

김지영・이예림(2016), 부산지역 창업활동이 지역경제 성장과 실업률 저감에 미치는 영향 분석, 벤처창업연구, 11: 111-122.

김태훈(2009), 중소건설업체의 생존분석에 관한 실증 연구: 기술보증기금의 지원을 받은 기업을 중심으로, 국토연구 61.

김현수・조대명(2019), 창업보육센터 지원정책 고도화를 위한 지역특성 반영에 관한 연구, 한국창업학회지, 14(2): 158-180.

김형철・김광숙・최백연(2008), 벤처기업 조직성과의 영향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광주, 전남지역의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한국창업학회지, 3: 303-332.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1), 벤처기업 고용 동향 브리핑.

동진우・정혜진(2020), 제조 벤처 창업과 지역 특화 간의 관계, 한국지역개발학회지, 32: 21-43.

류준영・남진・이창효(2014), 서울지역 창업 중소기업의 생존율과 생존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도시행정학보, 27(4): 247-271.

문남철(2008), 지역 간 창업 격차 및 특성, 지리학연구, 42: 255-267.

박재환・박명수・김대엽(2012), 창업정책 현황과 창업생태계 관점에서의 청년 창업 활성화 방안, 경영교육연구, 27: 1-30.

박철우(2018), 개인특성과 창업동아리 활동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부산지역 대학생 중심으로, 경영교육연구, 33: 533-557.

배은솔・윤갑식(2021), 부산광역시 지식서비스업 창업의 입지결정 요인분석, 지방정부연구, 25: 265-280.

서대훈(2019), 주요국의 스타트업(Startup) 지원방식과 시사점, KDB 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

서울대학교 법인재정립위원회(2020).

신혜원・김의준(2014), 기업 입지유형 및 규모가 신생기업의 생존에 미치는 영향, 국토연구, 12.

안태욱・강태원・이미경(2020),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창업생태계 성공요인 도출에 관한 연구, 유통경영학회지, 23: 91-105.

왕서혜・박상수(2020), 중국의 기업가 정신과 창업의도에 관한 연구: 5 대 신상방(新商幫) 지역, 창업교육, 창업경험을 중심으로, 중국연구, 82: 177-216.

우경・정승영(2013), 도・소매업체의 입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 동중앙아시아연구. 24: 117-141.

윤문섭・배종태(2004), 사업 유사성, 창업자 능력 및 연구개발의 상호작용이 벤처기업의 초기 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기업가정신과 벤처연구, 7: 133-166.

윤성진・김지선・김갑성(2015), 지역특성을 고려한 주택연금 제도개선 필요성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50(2), 119-141.

윤호열・김병근(2017), 지역의 환경적 요인이 기술기반 창업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 혁신거점기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18: 35-46.

이경아(2021), 기업가형 대학 도입 방안, 민주연구원 비공개 보고서.

이금숙・박소현(2019), 업종별 창업 및 폐업의 지리적 특성 분석, 한국경제지리학회지, 22: 178-195.

이미경・김정인(2020), 창업보육센터 지원서비스가 창업기업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서울지역 BI 운영주체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경영교육연구, 35: 133-158.

이민재・정진섭(2021), 충북지역의 창업생태계 활성화 전략: 삼중나선모델을 중심으로, 상업교육연구, 35: 87-115.

이병기(2003), 한국신생기업의 생존요인: 이론과 실증, 한국경제연구원.

이예림・김학민(2016), 기업가적 행동과 환경이 국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무역과 혁신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무역학회지, 41: 41-59.

이윤숙・문성욱(2016), 창업의 수, 생존율 및 고용 성장에 관한 고찰: 1994 년에서 2013 년까지 서울시 사업체를 중심으로.,Korea Business Review, 20: 121-141.

이인성・박우진(2016), 수출역량강화사업이 수출성과에 미치는 효과연구: 경기지역 창업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11: 141-151.

이희혁・유영진(2019), 외식창업 성공요인이 경영성과와 창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9: 233-248.

이창근(2017), 산업별 창업 결정요인의 세 가지 가설 검증, 2008-2014 년.,지역연구, 33: 17-27.

이해진(2019),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속가능성과 협력 네트워크 조직의 관계,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9: 57-89.

임배근(2011), 역사문화기반의 도시재생과 지역경제 활성화: 고도경주를 중심으로, 한국지역경제 연구, 20: 193-219.

정두희・이경표・신재호(2019), 지식재산기반 창업의 효과 및 시사점: 주요 창업성과에 대한 특허기반 창업의 영향, 벤처창업연구, 14(3): 1-11.

정상철・김영진(2017), 정부 창업지원정책의 조절효과를 고려한 창업가정신이 창업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적 연구: 부산・경남지역의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인터넷전자상거래연구, 17: 55-70.

정혜진(2016), 창업활동이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분석:16 개 광역시・도를 중심으로(207~2014), GRI 연구논총, 18: 35-62.

중국정부망(2019), http://www.gov.cn/premier/2019-06/05/content_5397685.htm

중소벤처기업부(2020), 2019 년 창업기업실태조사.

중소벤처기업부(2021), 한국 창업 생태계의 변화 분석

조만석・김선우(2017). 미국 창업정책 동향과 시사점, 동향과 이슈, 29: 1-18.

조윤숙(2021),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협력이 사회적기업의 창업 성공에 미치는 영향: 한신대 캠퍼스타운 창업팀 ‘낙과유수’ 사례연구, 사회적기업연구, 14: 57-74.

창업진흥원(2021), 2020 년 창업기업실태조사.

창업진흥원(2019),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 관련 분석 모델・지표 개발 및 지역 창업인프라 구축・운영 사업의 성과지표, 조사연구-2019.

최승호・원성권・한성수(2016), 대학창업교육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강릉지역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20: 185-201.

최환석(2020), 부울경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 민주연구원 비공개 보고서.

통계청(2020), 2019 년 기업생멸행정통계 결과.

한국무역협회(2019), START UP 해외진출 첫걸음 가이드 북-중국.

한국무역협회(2019). 2021 년 베트남 스타트업 현황 및 전망.

한국콘텐츠진흥원(2020), 베트남 콘텐츠 산업 동향.

현상백・이효진・조고운・오윤미(2019), 중국의 창업생태계 발전전략과 정책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홍인기・민경세(2017), 지역축제 서비스 품질이 지역기반 창업기업 제품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함평나비축제를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12: 61-71.

「참고 사이트 및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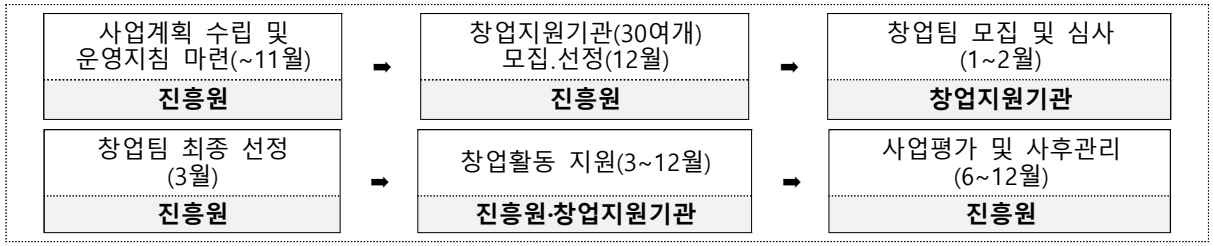
통계청, KOSIS.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MDIS.

뉴시스, 지방 벤처투자 실적 저조 수도권 벤처붐 전락 우려, 2021.10.07.

<부록>

1	사회적기업 진흥원 운영	□ **사업의 목적 및 내용** ○ **(사업 목적)**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창업가를 선발하여 사회적기업 창업의 모든 과정을 지원,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사회적기업가 양성 ○ **(사업 내용)** 창업공간*, 창업자금, 창업 관련 교육 및 멘토링, 자원 연계 등 지원 * 창업팀별 특성에 따라 차등지원(팀당 7백만원∽5천만원) □ **주요 지원대상** ○ 예비창업팀(미창업자, 1인 이상) ○ 초기창업팀(미창업 또는 창업 2년 이내, 3인 이상) ○ 재도전창업팀(육성사업 참여 후 폐업한 기업의 대표) □ **전달체계** ○ 전국 30여개 위탁수행기관 선정 및 관리

<table>
<tr><td></td><td></td><td> 
</td></tr>
<tr><td>2</td><td>기상산업 활성화</td><td>☐ 사업의 목적 및 내용

○ (사업 목적) 기상기업의 유망 기상기술(제품) 중점 개발·사업화 집중 지원체계 마련 및 체계적 기상산업 육성

○ (사업 내용) 지원 대상자(기업)별 수준에 따라 맞춤형 기업 성장지원
- 전주기 성장지원사업: ‘기획-개발-생산-판로-마케팅’ 등 전주기 성장지원금 지원
- 성장 인프라지원: 입주기업 사무공간 및 공동업무시설 제공, 협업공간 운영을 통한 입주기업 간 아이디어 교류 및 발굴지원
- 분기별 입주기업 네트워킹 데이 개최: 입주기업 실무자 중심 소통의 장 마련을 통해 기업별 중점 개발기술 공유 및 협업 방안 모색 등

☐ 주요 지원대상

○ 전주기 성장지원사업: 기상기업성장지원센터 입주·졸업기업 및 모든 기상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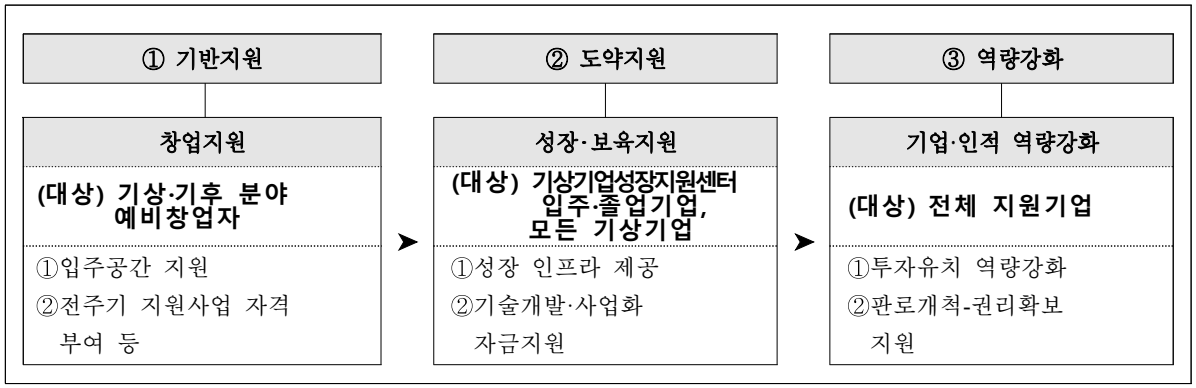
○ 성장 인프라지원(기상기업 성장지원센터 입주지원)</td></tr>
</table>

구분	세부분야	입주조건
기상사업자	예보업, 감정업,컨설팅업	3년 평균 매출액 15억원 미만
	장비업	3년 평균 매출액 25억원 미만
예비창업자	-	기상·기술 관련분야 사업 예정인 자
기 창업자	-	기상기업성장지원센터 졸업기업
	기상·기후 관련	창업 7년 이내인 기업

□ **전달체계**

○ (수행기관) 한국기상산업기술원

○ 기반지원-도약지원-역량강화 3단계



3	농식품 벤처창업 및 벤처육성	□ **사업의 목적 및 내용**

<table>
<tr><td></td><td></td><td>○ (사업 목적) 농식품 벤처·창업에 대한 ‘기술-자본-시장’의 체계적인 맞춤형 지원을 통해 농업·농촌의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및 미래성장산업화 도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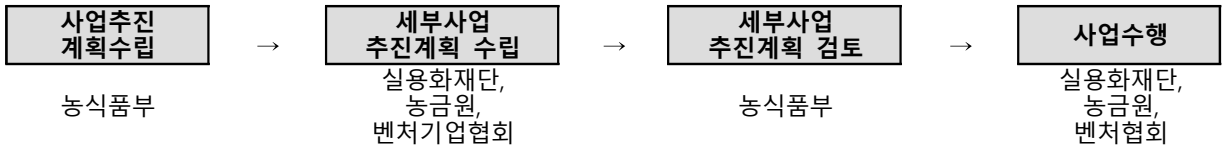
○ (사업 내용) 농식품 벤처창업센터 운영, 농식품 창업콘테스트 개최, 기술평가지원, 판로지원, 벤처육성지원, 농식품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등 추진

□ 주요 지원대상

○ 농식품 분야 기술 및 아이디어를 보유한 벤처·창업 기업 및 예비창업자

□ 전달체계

○ (수행기관) 농식품 분야 기술 및 아이디어를 보유한 벤처·창업 기업및 예비창업자

 
</td></tr>
<tr><td>4</td><td>관광사업 창업지원 및 벤처육성</td><td>□ 사업의 목적 및 내용

○ (사업 목적) 산업 간 융·복합, IT 접목 등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 발굴・지원을 통한 관광산업의 외연 확대 및 청년 일자리 창출 기여

○ (사업 내용) 관광벤처기업 발굴, 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육성 지원(교육・컨설팅 등 사업화 지원, 홍보마케팅 및 판로개척 지원 등)

□ 주요 지원대상</td></tr>
</table>

		○ 관광분야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등 □ **전달체계** ○ **(수행기관)** 한국관광공사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 예산 확정 — 국회→기획재정부→문체부 ↓ 국고보조금 신청서 제출(사업계획서포함) — 보조사업자(관광공사)→문체부 ↓ 보조금 지원계획 확정 및 교부 — 문체부→보조사업자(관광공사) ↓ 사업 수행 — 보조사업자(관광공사) ↓ 정산 보고 — 보조사업자(관광공사)→문체부 ↓ 사업비 정산 확정 및 잔액 반납 조치 — 문체부→보조사업자(관광공사)
5	문화중심도시육성	□ **사업의 목적 및 내용** ○ **(사업 목적)** 문화콘텐츠 창작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기획·제작 및 사업화 할 수 있도록 전 과정을 지원, 문화콘텐츠 생태계 환경 조성

○ **(사업 내용)** 신규 콘텐츠 육성, 우수 콘텐츠 사업화 지원, OTT 전용 콘텐츠 제작지원, 국내외 마케팅 지원

- (신규 콘텐츠 발굴·육성) 애니메이션·웹툰 파일럿/레벨업 제작지원 등

- (성장기업 콘텐츠 제작) CG활용, 콘텐츠 IP활용 체험형 콘텐츠 제작지원

- (OTT 전용 콘텐츠 제작) OTT 전용 콘텐츠 제작센터 구축, 콘텐츠 기획개발· 제작지원

- (국내외 마케팅) 전시·상담회 참가지원, 투자유치 IR피칭 및 홍보컨설팅 지원 등

① 신규 콘텐츠 발굴 및 육성
1. 사 업 명 : 문화콘텐츠기획창작스튜디오 운영지원
2. 사업내용 : 애니메이션·웹툰 파일럿/레벨업 제작지원 및 멘토링을 통한 신규 콘텐츠 발굴 육성

② 사업화지원(완성형 콘텐츠 제작지원)
1. 사 업 명 : 첨단융합콘텐츠제작지원(CG활용, 체험형융합콘텐츠)
2. 사업내용 : 본편단계 애니메이션 제작지원 및 콘텐츠 IP활용 신기술 융합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통한 글로벌 프로젝트 발굴 및 기업 성장 지원

③ OTT 전용 콘텐츠 제작지원
1. 사 업 명 : OTT 플랫폼 전용 스튜디오 구축 및 영상 제작지원
2. 사업내용 : OTT 전용 스튜디오 등 제작센터 구축·운영을 통한 콘텐츠 개발·제작 지원

④ 국내외 마케팅 지원
1. 사 업 명 : 문화콘텐츠 글로벌마케팅 지원
2. 사업내용 : 해외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신규 유통망 확보 및 맞춤형 마케팅 지원

□ 주요 지원대상

○ 문화콘텐츠(애니메이션, 웹툰, 영화 등)분야 초기창업자 및 성장단계의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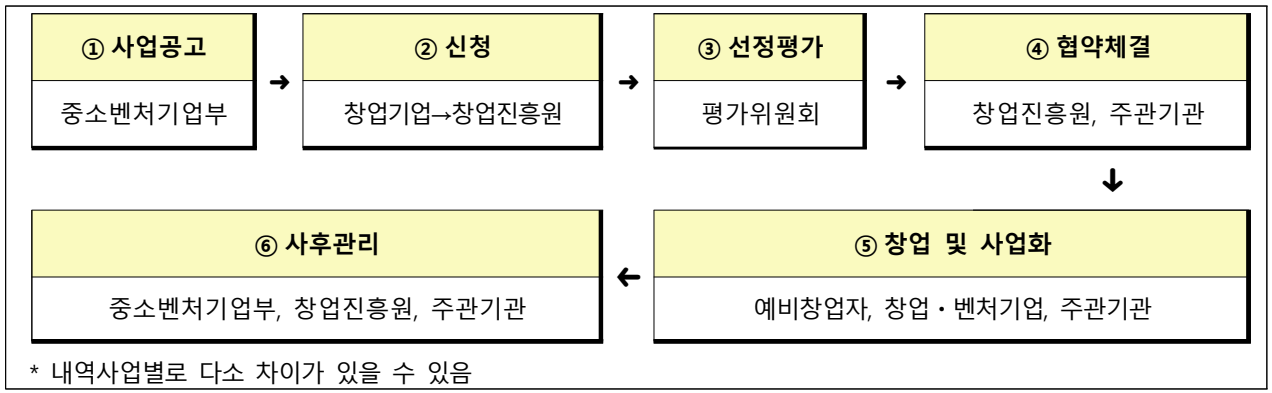
		□ **전달체계** ○ (수행기관) 광주광역시((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6	섬유패션산업활성화기반마련	□ **사업의 목적 및 내용** ○ **(사업 목적)** 고부가가치 High-end 봉제・패턴분야 의류 전문가 양성을 통해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 및 국내 일감연계 활성화 ○ **(사업 내용)** 샘플제작교육(5개월), 현장실습교육(2개월), 실무자 필수특강(전문성 강화)를 거쳐 인력양성 교육 실시, 우수 교육생 중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 - **(인력양성)** High-end 의류제조 봉제・패턴 전문교육 실시 * (샘플사 교육)High-end 전문 샘플사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수행 * (패턴사 교육)전문 패턴사 양성 기본교육 및 현장실습 교육 수행 - **(창업지원)** High-end 샘플실 창업을 위한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 * (공간/장비지원) 우수 수료생 대상 창업 인큐베이팅 공간 및 장비 무상 지원 * (일감연계 지원 및 기수멘토링) PM협의체 네트워크 활용 및 글로벌 디자이너브랜드 육성사업 등과 연계하여 지속적인 일감 제공 및 기술 멘토링 지원 □ **주요 지원대상** ○ 봉제업 취업 및 창업희망 청년(패션 관련학과 졸업자 등), 봉제기술자 중 샘플사 및 패턴사로 전직을 희망하는 자 등(총 36명) * (샘플 교육 24명, 패턴 교육 12명)→ (21년도) 패턴사 교육을 통한 전문패턴사 12명 추가 양성

		□ **전달체계** ○ (사업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사업주관기관 및 교육기관) 공모 예정
7	창업사업화 지원	□ **사업의 목적 및 내용** ○ **(사업 목적)** 예비, 초기, 도약 등 창업기업 성장단계별 및 신산업 등 혁신분야 창업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창업 활성화와 생존률 제고 ○ **(사업 내용)** - (예비창업패키지) 참신한 아이디어, 기술을 가지고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의 성공적인 창업 사업화를 지원 - (초기창업패키지) 창업 이후 업력 3년 이내 창업기업의 안정적인 시장진입과 성장을 지원 - (창업도약패키지) 창업 이후 업력 3~7년 이내 창업기업이 매출 부진과 자금 부족으로 실패하는 '데스밸리' 극복과 도약을 지원 - (혁신분야 창업패키지)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소재·부품·장비, 비대면 등 신산업 분야의 기술력·성장가능성을 갖춘 스타트업·벤처기업 육성 -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국내 창업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을 통한 역량 강화 및 해외 유망 창업기업 국내 유치를 통한 글로벌 창업생태계 조성 □ **주요 지원대상** ○ 예비창업자 및 창업·벤처기업 - (예비창업패키지) 예비창업자 - (초기창업패키지) 창업 3년 이내 기업

- (창업도약패키지) 창업 3년 이상 7년 이내 기업
- (혁신분야 창업패키지) 7년 이내 창업기업
-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7년 이내 창업기업

□ **전달체계**

○ **(수행기관)** 창업진흥원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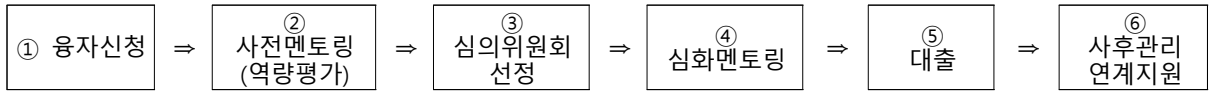
* 내역사업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8	중소기업 재기지원(재도전 성공패키지)	□ **사업의 목적 및 내용** ○ **(사업 목적)** 성실한 실패경험과 우수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재창업자를 발굴, 패키지형 지원을 통한 성공적인 재창업 지원

		○ **(사업 내용)** 사업화자금(평균50백만원 내외), 교육·멘토링, 보육공간제공 등 패키지식 사업화 지원 □ **주요 지원대상** ○ 예비 재창업자 또는 업력 7년 미만 재창업 기업의 대표 □ **전달체계** ○ **(수행기관)** 창업진흥원(전담기관) 및 권역별 6개 관기관 **공고·모집** (중기부) ➡ **성실경영·서면·대면평가** (창진원) ➡ **사업화 지원 및 재창업교육** (창진원, 주관기관) ➡ **최종점검 및 성과평가** (창진원, 주관기관) ➡ **후속 연계지원** (창진원) □ **전년대비 주요 개편사항** ○ **(청년 다시-DREAM 프로그램 신설)** 청년 재창업자 성공적인 재창업을 위해 사업화자금 및 IR, 마케팅 프로그램 등을 패키지식으로 지원('22년 100명 규모) ○ **(IP전략형·TIPS-R 지원 확대)** 사업화와 특허컨설팅은 동시에 지원하는 IP전략형과 민간투자를 유치한 재창업기업을 발굴하는 TIPS-R의 지원물량을 각각 20개사→30개사로 확대
9	벤처기업 경쟁력 강화(여성벤처 활성화)	□ **사업의 목적 및 내용** ○ **(사업 목적)** 유망한 여성 예비창업자 발굴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한 여성벤처기업 신규출현과 기존 여성벤처기업의 역량강화를 통해

		여성벤처활성화를 지원 ○ **(사업 내용)** 여성 예비창업자를 대상, 창업 전문교육 및 선배CEO 연계 창업지원을 통해 청년층 여성의 벤처창업 촉진 **□ 주요 지원대상** ○ 여성 예비창업자 **□ 전달체계** ○ (수행기관) (사)한국여성벤처협회
10	혁신창업사업화자금(일자리 창출촉진)	**□ 사업의 목적 및 내용** ○ **(사업 목적)** 혁신·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중소기업 및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등을 지원하여 창업을 활성화하고, 신기술분야 영위기업 및 기술·경영성과 우수 기업 지원으로 창업 성공률 제고

		○ **(사업 내용)** 업력 7년 미만의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설비투자 관련 시설자금 및 기업 경영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지원(융자) **□ 주요 지원대상** ○ 창업 중소기업(업력 7년 미만) 중 혁신·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기업,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등 **□ 전달체계** ○ (수행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직접 수행) **사전상담 및 신청** ▪ **중소기업 → 온라인 상담예약 → 상담 → 온라인 융자신청** ▼ **자금심사** ▪ **중진공 → 신청 중소기업 자금심사** ▼ **지원결정 및 대출** ▪ **중진공 → 중소기업**
11	혁신창업사업화자금(청년전용창업자금)	**□ 사업의 목적 및 내용** ○ **(사업 목적)** 우수 아이디어를 보유한 청년층의 창업초기 운영자금 지원으로 혁신성장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사업 내용)** 업력 3년 미만의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설비투자 및 운영자금 지원 **□ 주요 지원대상**

		○ 대표자 만 39세 이하인 예비창업자 또는 업력 3년 미만 기업 **□ 전달체계** ○ (수행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직접 수행) 
12	창업성공패키지	**□ 사업의 목적 및 내용** ○ **(사업 목적)** - (청년창업사관학교) 유망 창업아이템 및 혁신기술을 보유한 우수창업자 발굴 후 창업사업화 등 창업 全단계*를 패키지방식으로 일괄지원 * (창업준비) 교육 및 사업계획 검증 → (창업실행) 창업 사업화 → (창업성장) 정책자금, 수출·마케팅, R&D, 투자지원, BI 등 - (글로벌창업사관학교) D.N.A. * (Data, Network, A.I.) 혁신기술 분야 (예비)창업자를 발굴, 글로벌 수준의 기술교육·보육을 제공하여 글로벌 창업기업 육성 ○ (**사업 내용**) **①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 (사업화지원금) 최대 1억원 이내(총 사업비의 70% 이하) * 기술개발 및 시제품제작, 기술정보활동, 지재권 출원 및 마케팅 지원 등 - (창업인프라) 창업아이템의 사업화에 필요한 창업공간, 네트워킹 공간 및 제품개발 장비 등

- (교육, 코칭) 창업교육, 사업화코칭 및 단계별 진도 관리

- (시제품제작) 제품개발, 디자인 지원을 위해 제품개발전담조직 운영, 신속시제품 제작장비 등을 통한 원루프(One-Roof) 제품개발 지원

- (국내외 판로개척)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 글로벌 연수 및 멘토링, 해외 IR 및 펀딩 지원

② 글로벌창업사관학교

- (사업화지원금) 최대 50백만원 이내(총 사업비의 70% 이하)

  * D.N.A. 기술 고도화, 베타테스트·제품 제작, 해외시장검증 등 단계별 사업화 지원

- (D.N.A. 특화교육) D.N.A. 분야 선도 글로벌 기업 교육, 창업기업의 기술·사업화 수준에 따른 맞춤형 교육 및 실전 프로젝트형 교육 지원

- (글로벌 보육) 글로벌 일류 창업기획자를 통한 창업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제품 및 서비스의 현지화 지원

- (네트워킹) 국내외 온·오프라인 컨퍼런스 및 경진대회 참가를 지원하여 창업기업의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 주요 지원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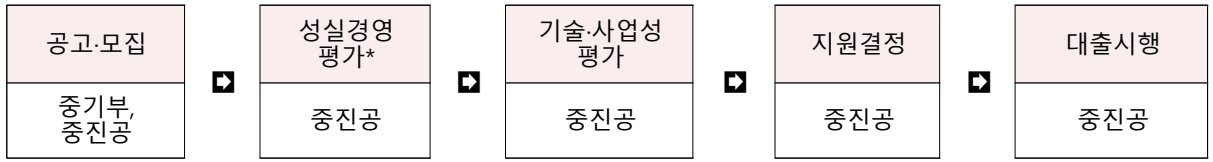
○ (청년창업사관학교) 만39세 이하인 자로서, 창업 후 3년 이내 기업

○ (글로벌창업사관학교) D.N.A분야 업력 3년미만 (예비)창업기업

□ 전달체계

○ (수행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직접수행

<table>
<tr><td></td><td></td><td>① 창업준비 : 교육 및 사업계획 검증
입교자 모집 ⇨ 입교심사 (서류/PT/심층) ⇨ 입교(협약)
⇩
② 창업실행 :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를 통한 창업사업화 지원
중간평가 ⇦ 창업사업화 I ⇦ 교육, 사업계획 검증
⇩
창업사업화II ⇨ 성공평가
⇩
③ 창업성장 : 졸업기업 후속 연계지원
정책자금, 수출·마케팅, 투자 및 R&D 연계지원</td></tr>
<tr><td>13</td><td>재도약지원자금(재창업자금)</td><td>☐ 사업의 목적 및 내용
○ (사업 목적) 원활한 재도전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직한 실패기업인에 대하여 재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 (사업 내용) 재창업에 필요한 운전 및 시설자금을 지원
☐ 주요 지원대상
○ 저신용자 및 사업실패 이력을 보유한 예비재창업자 또는 재창업 7년 미만의 중소기업
☐ 전달체계
○ (수행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직접 수행)</td></tr>
</table>

		 * (성실경영평가) 재창업 전 기업을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경영했는지 여부 등을 평가(재창업 지원을 위한 사전 통과기준)
14	소상공인 창업지원(생활혁신형 창업지원사업)	**□ 사업의 목적 및 내용** ○ **(사업 목적)** 변화하는 소비트렌드를 반영, 생활 속 특성에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창업하는 생활 혁신가를 발굴 및 지원 ○ **(사업 내용)** 생활혁신형 창업자를 발굴·선정하여 성공불융자(최대 2천만원)를 지원한 후, 성실경영실패시 부분 상환면제로 실패 부담 최소화 **□ 주요 지원대상** ○ 예비 창업자(연령 불문) **□ 전달체계** ○ (수행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table>
<tr><td></td><td></td><td>
<table>
<tr><th>신청·접수</th><td></td><th>지원대상 확인</th><td></td><th>대출승인</th><td></td><th>사후관리</th></tr>
<tr><td>서류제출</td><td>➪</td><td>현장실사,
지원대상 확인</td><td>➪</td><td>대출승인 및 약정체결</td><td>➪</td><td>원리금 상환 안내,
단기연체 상환관리</td></tr>
<tr><td>선정자↔지원센터</td><td></td><td>지원센터</td><td></td><td>지원센터↔선정자</td><td></td><td>공단, 지원센터</td></tr>
<tr><th>판정대상 선별</th><td></td><th>판정서류 제출</th><td></td><th>본판정</th><td></td><th>재판정</th></tr>
<tr><td>판정대상 확인,
판정안내문 발송</td><td>➪</td><td>온라인 제출</td><td>➪</td><td>판정지침에 의거
성공·실패 판정</td><td>➪</td><td>판정지침에 의거
성공·실패 판정</td></tr>
<tr><td>공단, 지원센터</td><td></td><td>판정대상자</td><td></td><td>전문기관</td><td></td><td>전문기관</td></tr>
</table>
</td></tr>
<tr><td>15</td><td>여성기업육성(여성창업지원)</td><td>
☐ 사업의 목적 및 내용

○ (사업 목적) 창업보육시설 등을 갖춘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 여성창업경진대회 개최 등을 통해 여성창업 활성화 지원

○ (사업 내용)

- (센터 운영) 보육공간 등 제공, 전문가(경영, 회계, 법무, 마케팅 등) 컨설팅 등 입주기업 지원

- (W-창업패키지) 여성기술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 멘토링, 시제품 제작 등 지원 후 창업지원 사업간 연계 지원 등 일괄 지원

- (확장·신설) 지역 여성창업지원 기반 강화를 위해 창업보육공간 증설, 화상회의실, 온라인 컨텐츠 제작 공간 등 여성전용창업 인프라 구축

- (창업경진대회) 우수 (예비)여성창업기업 발굴·포상 및 후속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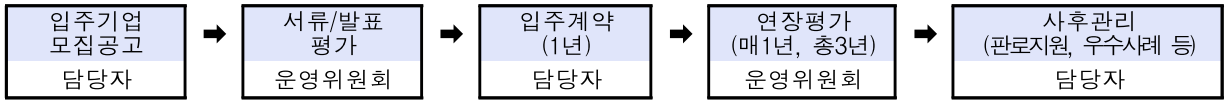
☐ 주요 지원대상
</td></tr>
</table>

○ 여성기업, (예비)여성창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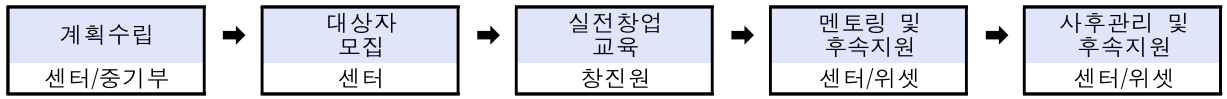
□ **전달체계**

○ (수행기관)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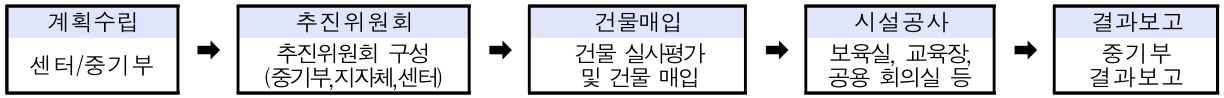
-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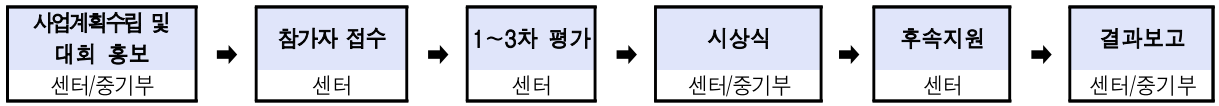
- W-창업패키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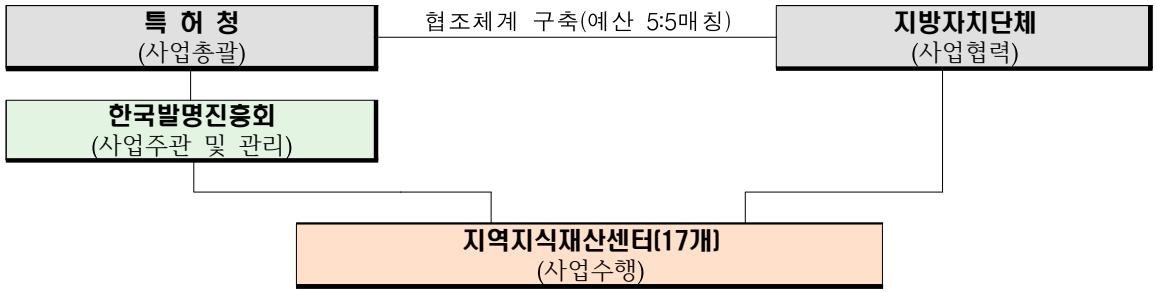
-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확장 및 신설



- 여성창업경진대회



16	지식재산산업 창업 촉진(IP디딤돌 프로그램)	□ **사업의 목적 및 내용** ○ **(사업 목적)** 혁신형 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식재산 기반 창업 지원체계 구축 - 개인 및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기술적으로 발전시켜 지재권화하고, 사업아이템 도출을 지원하여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촉진 ○ **(사업 내용)**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17~)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경상보조 □ **주요 지원대상** ○ 개인 및 예비창업자 □ **전달체계** ○ (수행기관) 한국발명진흥회, 전국 17개 지역지식재산센터 ○ 특허청과 지자체가 협조체계 구축(예산 5:5매칭) - 특허청이 사업을 총괄·감독하고 한국발명진흥회가 사업주관, 지역지식재산센터가 사업 수행

<table>
<tr><td></td><td></td><td> 
</td></tr>
<tr><td>17</td><td>수산산업 창업투자 지원(지역별 창업투자지원센터)</td><td>☐ 사업의 목적 및 내용

○ (사업 목적) 수산산업의 창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창업투자지원센터 지정·운영하여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육성

○ (사업 내용) 해양수산분야 기업 육성지원 역량을 보유한 수행기관*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해당 지자체 매칭을 통해 보조(정부 50% : 지방50%)

* 연구기관, 테크노파크, 특화센터 등 기업지원을 위해 설립된 소속기관 또는 독립법인

☐ 주요 지원대상

○ 해양수산분야 창업자·유망기업

☐ 전달체계

○ (운영) ’22년 7개소(부산·제주·경북·강원·전남·충남·전북) 운영</td></tr>
</table>

<table>
<tr><td></td><td></td><td>
<table>
<tr><th>시도</th><th>부산</th><th>제주</th><th>경북</th><th>강원</th><th>전남</th><th>충남</th><th>전북</th></tr>
<tr><td>수행기관</td><td>부산테크노파크(TP)</td><td>제주TP</td><td>경북환동해산업연구원</td><td>강릉과학산업진흥원</td><td>전남생물산업진흥원</td><td>충남TP</td><td>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td></tr>
<tr><td>운영시작</td><td>'15~</td><td>'15~</td><td>'16~</td><td>'17~</td><td>'18~</td><td>'19~</td><td>'22~</td></tr>
</table>
</td></tr>
<tr><td>18</td><td>해양수산 신산업 육성 및 기업투자 유치지원</td><td>

☐ **사업의 목적 및 내용**

○ **(사업 목적)** 해양수산 분야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 육성을 위해 기업성장 주기별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사업 내용)**

- **(창업기획자 운영)** 해양수산 분야 전문 민간창업기획자를 지정하여 창업 기업 발굴부터 사업화, 투자유치까지 전담 지원체계 구축
- **(사업화 자금 지원)** 기술 보유기업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시제품 제작·개선, 상품화, 홍보, 해외진출 등에 필요한 자금 지원
- **(투자 활성화)** 해양수산 투자기관협의회 운영, 팸투어 실시 등을 통해 기업에 투자유치 기회를 제공하고, 전문 투자심사역 양성
- **(정보제공)** 해양수산 창업 지원 정책 및 성공사례 소개 등을 위한 창업투자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창업설명회 및 상담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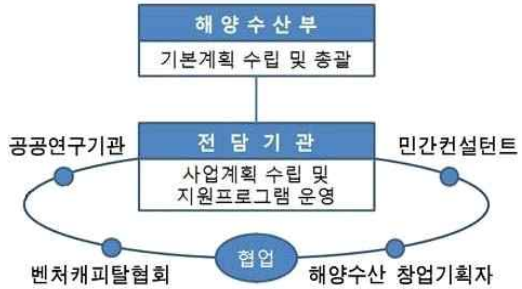
☐ **주요 지원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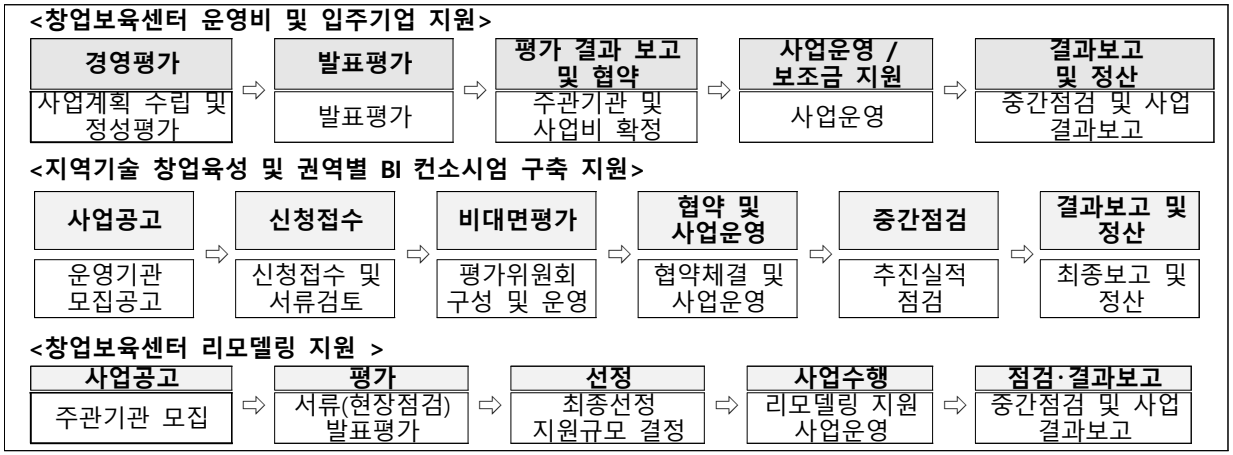
○ 해양수산 분야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

☐ **전달체계**

○ (수행기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td></tr>
</table>

		
19	창업인프라지원(창업보육센터지원)	☐ **사업의 목적 및 내용** ○ **(사업 목적)** 대학·연구소 등에 창업보육센터 지정·운영을 통한 (예비)창업자에게 공간, 경영·기술 등 제공으로 지속적인 성장 유도 ○ **(사업 내용)** 입주기업 보육 지원, 지역기술 창업육성, 권역별 BI 컨소시엄 구축 지원, 보육시설 리모델링 및 운영시스템(BI-Net) 지원 ☐ **주요 지원대상** ○ 중기부 지정 창업보육센터(263개) 및 입주기업(6,308개) ☐ **전달체계** ○ (수행기관) (사)한국창업보육협회

<table>
<tr><td></td><td></td><td> 
</td></tr>
<tr><td>20</td><td>소상공인재기지원(희망리턴패키지)</td><td>☐ 사업의 목적 및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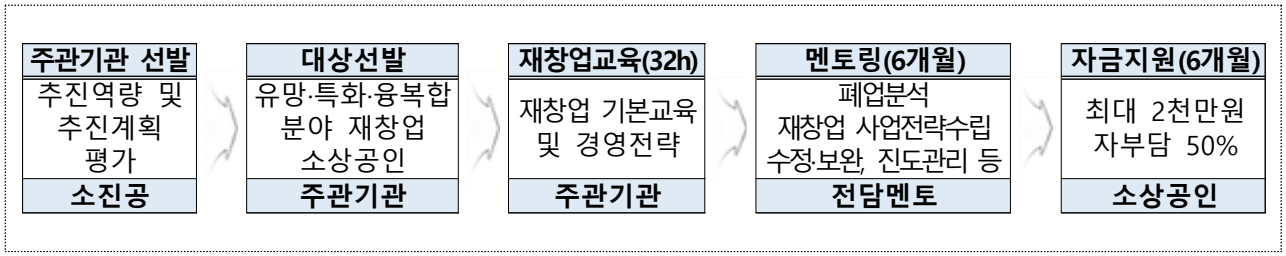
○ (사업 목적) 회전문 창업을 지양하고 소비트렌드와 사업 경쟁력이 확보된 재창업을 통해 건강한 소상공인 생태계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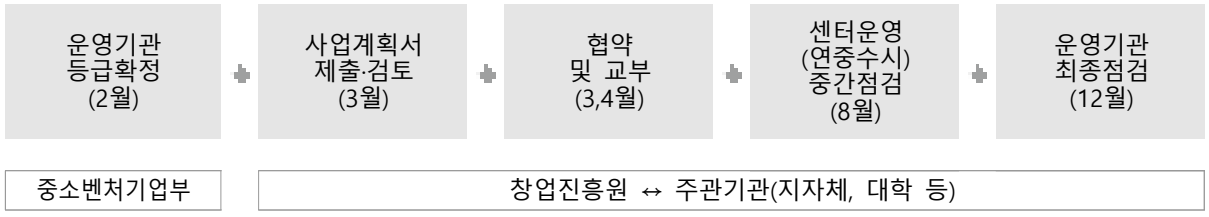
○ (사업 내용) 소상공인의 재창업사업화 계획을 토대로 지원하는 혁신 분야와 민간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활용한 특화분야로 지원

☐ 주요 지원대상

○ 재창업 의지와 성공 가능성이 높은 폐업한 소상공인

☐ 전달체계</td></tr>
</table>

		○ (수행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1	창업생태계기반구축(중장년기술창업센)	**☐ 사업의 목적 및 내용** ○ **(사업 목적)** 전국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운영을 통해 숙련된 경험·네트워크를 보유한 역량있는 중장년 발굴, One-Stop 형태의 창업지원 서비스 제공 ○ **(사업 내용)**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운영을 통해 숙련된 경험·네트워크를 보유한 역량있는 중장년을 발굴하고 창업교육 및 사무공간 등 보육서비스 지원 **☐ 주요 지원대상** ○ 중기부 지정 중장년 기술창업센터(33개) **☐ 전달체계** ○ (수행기관) 창업진흥원

<table>
<tr><td></td><td></td><td><중장년기술창업센터 운영비 지원>
 
</td></tr>
<tr><td>22</td><td>대학창업활성화</td><td>☐ 사업의 목적 및 내용

○ (사업 목적) 학생·교원 등 초기 대학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자금 조성을 통해 대학 내 창업 생태계 조성 및 창업 붐 확산 도모

○ (사업 내용) 정부와 대학 등(대학기술지주회사, 학교법인, 산단 등)이 공동으로 펀드를 조성하여 초기 대학 창업기업에 중점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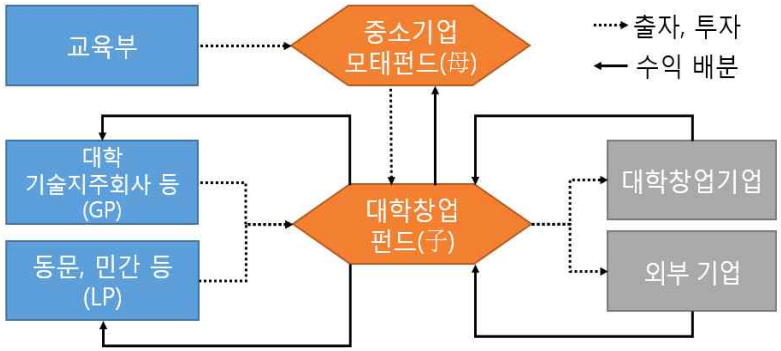
☐ 주요 지원대상

○ 운용사(공모선정) : 대학기술지주회사*(단독, 연합) 등
* 펀드를 운용할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GP : General Partner)을 선정

○ 투자대상 : 초기 대학 창업기업(학생·교원 등) 등

☐ 전달체계

○ (수행기관) 한국벤처투자
* 「벤처투자법」 제67조 및 제70조에 따른 중소기업 모태펀드 관리 기관으로서, 출자사업 공고부터 펀드 청산까지 대학창업펀드 전 과정 관리</td></tr>
</table>

○ 정부와 대학 등이 매칭(정부3:대학1)으로 펀드를 조성하고, 대학기술지주회사가 운용사로서 투자기업 발굴·투자

< 대학창업펀드 출자 구조 >